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글쓰기에 대하여 내가 아는 모든 것

(Everything I know about writing/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 영 과

김 지 은

2013年 2月

글쓰기에 대하여 내가 아는 모든 것

김지은

2013

들어

**글쓰기에 대하여
내가 아는 모든 것
(Everything I know about
writing/번역논문)**



1974년 시드니의 한 트럭 회사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존 마스던은 신문에 나와 있는 교사 교육 코스(teaching course)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자신의 일에 따른 분함과 불만을 느끼고 있던 존은 그 교육 코스에 지원하여 합격을 했고, 1978년부터 글쓰기 지도를 시작했다. 그는 교직생활 첫 1년 동안 체육과 치유독서 과목을 지도했고 11학년 학생들에게 크리켓을 가르쳤다. 그는 같은 해에 고등학교 1학년 영어 클래스 하나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반 학생들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존은 그 힘겨운 여정에서 무사히 살아남았고, 1984년에 그 유명한 질롱(Geelong) 그래머 스쿨¹⁾ 팀버탑 캠퍼스의 영어 주임교사가 되었다.

3년 후 존의 첫 번째 책이 출간 되었다. 그의 첫 번째 책 『할 말이 많아요』(1987)는 50만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호주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베스트셀러 중 한 권이 되었고 12개국 언어로 번역 되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세계적인 작품들은 내놓았는데 그 중에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 『투모로우』, 『전쟁이 시작된 날』, 『Checkers』와 『Dear Miffy(할 말이 많아요2)』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존은 늘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은 빅토리아 주 롬지(Romsey) 인근 지역에서 글쓰기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번의 『글쓰기에 대하여 내가 아는 모든 것』 개정판은 생생하고 신선한 문체와 빼어난 통찰력으로 쓰여졌으며 어떻게 존이 작가와 교사라는 두 가지 직업에서 얻은 경험을 이 책에 담아낼 수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면 존 마스던의 웹사이트를 방문 할 수 있다.

www.johnmarsden.com.au

1) (영국에서 특히 과거의) 중등학교[그래머 스쿨](공부를 잘 하는 11~18세의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
Geelong은 과거 영연방이었던 호주 시드니에 소재하고 있다.

감사의 글

나는 이 책에서 내가 말을 인용한 사람들과 논제나 아이디어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가끔은 나의 파일 정리 방식이 부족하여 내가 인용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이름이 빠져 버린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 싶다.

특히, 나는 강단 있고 능숙한 타이핑 솜씨로 수고 해준 엘리자베스와 앤드류 휘렌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책에 자세하게 적지는 못했지만 테쉬 헤쳐, 헤미쉬 카메론, 톰 왓슨, 안나 브라운, 마이클 롱, 라이스 제임스, 질 몬테그, J.월슨 호그, 줄리아 스타일스, 미셸 존, 찰리 벨, 제프 필립스, 앵트 해밀턴, 토리 우드하우스, 프레딕 위자야팔라, 샘 마스든, 나탈리 딘스, 포스 허버트, 커스티 미첼, 레이노를 톰, 앤드류 메인, 존 루이스, 아그네스 뉴웬후이젠과 피터 매카시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나의 두 친구들과 예전 동료들이었던 존 고다드 박사와 딕 존스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들의 말실수 모음집도 이 책에 나와 있는 몇 개의 사례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풍족한 재정 지원을 해 주신 호주 문학협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헌사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나는 몇 명의 터무니 없는 선생님들과 많은 평범한 선생님들, 그리고 소수의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났다. 마쥔 스캇 선생님, 톰 베들리 선생님, 로버트 파커 선생님과 나이젤 크라우스 선생님이 마지막 그룹에 속하는 분들이다.

그 분들이 제게 주셨던 격려와 지원, 그리고 영감에 감사드리며 이 책을 그 분들께 바친다.

목차

Part One

수집가

들어가는 말	1
좋은 영어들	4
시에 나오는 좋은 영어들	8
스포츠에 나오는 좋은 영어들	10
어린이들이 쓰는 좋은 영어들	12
코미디언들이 쓰는 좋은 영어들	13
온갖 장소에서의 좋은 영어들	15

나쁜 영어들 16

동의반복	17
애매모호성	18
혼합된 은유들	19
당연한 말 줄이기	20
혼동	20
클리셰	21
불명료화	24
완곡어법	26

PART TWO

작가

순환하기	30
웃기 좋은 글들	36
이야기의 자료들	38
추가 자료들	44
동물 이야기	44
부상	44
죽음	45
경험을 사용하는 방법들	45
상상력	47
효과적 언어사용	49
스타일에 대하여	54
알려주지 말고 보여주기	58
시시한 말	61
시시한 언어	66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	71

지위	74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	78
인물과 디테일	79
배경과 디테일	80
긴장감을 위한 디테일	80
이름들	82
감각들	85
경험해 본 척 하기	88
현실에 법칙을 따르기	90
섹스와 죽음	93
심리학	96
빛	97
페이스 조절하기	99
등장인물 성격묘사와 목소리	102
갈등 속 캐릭터	110
뼈에 살 붙이기	110
배경 (그리고 전경)	112
기억해야 할 것...	118
결론	120

제 1 장

수집가

들어가는 말

골무를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차를 모으는 사람도 있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전화카드를 모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언어 수집가가 되어야만 한다.

영국 작가 A.S. Byatt²⁾는 "만일 당신의 머릿속에 이야깃거리가 노래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창고가 없다면 모국어의 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모든 훌륭한 작가들과 독자들이라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언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아름답고 적절하고, 감동스러운 언어를 보거나 들으면 강하게 반응한다. 그런 언어들이 바로 A.S. Byatt 가 말한 '아름답게 지저귀는 이야깃거리들'이다.

당신은 반드시 언어에 대한 이런 감수성을 키우는 일을 꼭 해야 하며, 그래야만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효과적인 글과 그렇지 않은 글, 신선한 글과 진부한 글, 그리고 아름다운 글과 그렇지 못한 글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데, 우선은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나면 마침내 언어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목표는 단어를 쉽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된다. 훌륭한 정원사가 캄캄한 밤중에 100미터 밖에서도 잡초를 발견 할 수 있는 것처럼, 노련한 농부가 양 떼 무리 중에 어떤 양의 걸음걸이가 불편한지 한 눈에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언어 전문가는 잘못 쓰인 문장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단어의 선택을 즉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하거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언어를 수집한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다. 그렇다, 전화카드 같은 것을 모으는 일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만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다). 나는 노트에 좋은 언어와 나쁜 언어의 예를 그때그때 적어 놓는다. 버스 정류장과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옥외 광고판과 거리표지판들을 읽고, TV와 라디오를 귀를 쫑긋 세워 들으면서도 적는 것이다.

2) 영국의 여류 소설가·비평가(1936-). '포제션(Possession)'으로 부커(Booker)상 수상. 1993년, 연작집(連作集) '마티스 스토리스(Matisse stories)'를 발표함.

내가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어렸을 적에 시에 나오는 단어들의 운율을 즐겨 들었던 기억이 있다.

Jonathan Jo

**Has a mouth like an 'O'
And a wheelbarrow full of surprises;
If you ask for a bat,
Or for something like that,
He has got it, whatever the size is.**

이 시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 하나였다. 또 다른 시는,

**They're changing guard at Buckingham Palace
Christopher Robin went down with Alice.
Alice is marrying one of the Guards.
'A soldier's life is terrible hard,'
Says Alice.**

위의 시들은 모두 A. A. Milne³⁾ 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 라는 책에 실린 것들이다. 나의 아버지도 아래와 같은 웃기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주시며 우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셨다.

Q: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duck?

A: One of its feet is both the same.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다.

**A queer bird is the pelican,
It's beak holds more than its stomach is able to.**

이 이야기가 웃겼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로서는 저속한 단어로 여겨지던

3) Alan Alexander, 밀른(1882-1956) 영국의 소설가·극작가·동화 동요 작가. 극·동화·추리소설 세 분야에 걸쳐 발자취를 남긴 영국 작가. 제1차 세계 대전 후에는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작품을 쓰는 작가로서 그리고 극작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주요 저서에는 《도버 가도(街道)》, 《아기 곰 푸》 등이 있다.

'belly(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나는 시의 리듬과 운문을 사랑했다. 아홉 살이 되었을 쯤에 나는 Irene McLeod가 지은 '외로운 개'라는 시의 신랄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I'm a lean dog, a keen dog, a wild dog and lone;
I'm a rough dog, a tough dog, hunting on my own;
I'm a bad dog, a mad dog, teasing silly sheep;
I love to sit and bay the moon, to keep fat souls from sleep**

장시간 동안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에도 아래에 나온 것들과 같은 기발한 말장난이나 의성어, 또는 두운⁴⁾을 사용한 옥외 광고판들을 읽으면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Better late than dead on time.⁵⁾

Next to myself I like BVDs best.⁶⁾

...Sssschwepervesence...⁷⁾

Better buy Buttercup Bread.

요즘, 우리 집에 와본다면 내가 언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팔을 뻗으면 양 끝에 손이 닿는 크기 정도의 책상 위에 있는 책장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사전 3,40권이 꽂혀있다. 이 사전들 중에는

4) <문학> 시가에서, 구나 행의 첫머리에 규칙적으로 같은 운의 글자를 다는 일. 또는 그 운.
5) 'Better late than never.'의 말장난. Dead on time 은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한다는 관용어적 뜻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시간에 맞춰(on time) 에 죽느니(dead) 조금 늦는(late) 것이 낫다(better)'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Pun의 예다.
6) BVD is a brand of men's underwear, which are commonly referred to as "BVDs." BVD stands for Bradley, Voorhees & Day, the New York City firm that initially manufactured underwear of this name for both men and women. BVD is now only for men. It was founded in 1876 and named for its three founders. (번역)
BVD는 남성용 하의의 상표이다. 여기서는 '내 옆에 BVD 바지가 있는 것이 최고다' 라고 해석 할 수 있다.
7) 세계적 음료회사인 Schweppes 의 광고문구. 자사의 이름과 탄산의 거품이 난다는 뜻의 effervescence 를 조합해서 Sssschwepervesence 라고 했다. 두운법의 예다. Schweppes is a beverage brand that is sold around the world. It includes a variety of carbonated water and ginger ales. Its marketing campaign made heavy use of an onomatopoeia in their commercials: "Schhhhh.... Schweppes," after the sound of the gas escaping as one opens the bottle.

인용구, 속담, 관용어, 외국어, 관용구와 우화, 유의어, 축약어, 호주 영어 사전이 있고 어원 사전들도 있다. 나는 7권의 속어와 구어적 표현 사전을 가지고 있다.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내 영어 실력은 확실히 더 좋아졌다. 나의 영어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망치는 사소한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는 나의 가장 좋은 취미이다!

내가 이 책에서 썼듯이 당신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의 자서전을 써 보는 것도 유용한 연습이 될 것이다. 가장 처음 배운 단어들과 구절, 그리고 그 영어단어들과 구절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떠올려보라. 그때부터 오늘까지의 영어와 당신의 관계를 에세이로 계속해서 쓰고, 최근 당신에게 큰 영향을 준 단어를 제시해보아라.

좋은 영어들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간 개인적인 반응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특정한 단어들의 조합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그것들로부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합의라는 것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상적 언어를 '좋은 영어'라고 부르는데 동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보통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적 언어를 '좋은 영어'라고 생각한다. 신선하고, 다채롭고, 시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상적 언어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최신 유행에 뒤떨어지면 그룹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중요한 기능을 설명해준다. 언어는 누가 그 지역사회에 속하여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 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사립학교 학생들은 학교 매점을 과자점이라고 부른다. 대다수의 공립학교 학생들은 그냥 매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만일 당신이 기존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게 된다면, 전학 간 학교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

전까지 당신에게는 아웃사이드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언어에 대한 수백 개의 예를 수집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테니스 경기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만원 버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고3학생들의 이야기를 잠시 엿들은 것이다. 대화의 내용은 이렇다

제프: “너 아직도 세라랑 사귀냐?”

매트: “어, 아니야, 지난 주 토요일에 완전 박살나버렸어.”

박살나다니! 관계가 끝났을 때를 이토록 완벽하게 설명하다니! 몇 주 후, 박살나버렸다는 표현은 ‘c and b’ 로 축약되어 있었다:

“테레사는 잘 있니?”

“c and b야, 완전 c and b라고.”

시적이고 간결한 표현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인기가 없는 아이들을 칭하는 이름 짓기가 유행했었다. Scott⁸⁾ (for ‘Scott no friends’, 친구가 없는 스캇), Wes⁹⁾ (‘Wes all your friends?’, 네 친구들은 다 어디 있니?), Neville (‘Scott no friends and Neville will, 스캇은 친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거야), 그리고 Nigel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나는 이 Nigel¹⁰⁾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내가 좋아했던 또 다른 단어는 속이는 것을 뜻하는 ‘strap’ (‘She strapped my essay’, 그녀가 내 에세이를 베꼈어요)이고, ‘lag’라는 단어는 고자질(‘그 아이는 정말 lagger야!’ ‘네가 날 일러바쳤니?’), 그리고 ‘pussburgers’ 라는 말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고기와 치즈가 섞여있고 그 위로 빵가루가 뿌려진 음식이 있다.

내가 가르치던 기숙학교에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단어는 ‘maggot(빈둥거림)’이다. 이 사교적인 빈둥이는 하루 종일 수다만 떨고 다른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을

8) S got no friends 의 말장난.

9) Where is all your friends의 말장난.

10) ‘왕따’를 의미한다.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툼 봤니?’

‘오우, 톼은 정말 엄청 빈둥거리는 녀석이야. 아마 또 도서관 앞 정원에서 수다나 떨고 있을 거야.’

얼마 후 학생들은 ‘빈둥’ 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나는 가서 좀 빈둥거리다가 와야겠어.’ 라는 식이다. 어느 날은 내가 모닝티를 마시려고 교무실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 ‘Happy maggotting, sir! (좋은 하루 되세요 농땡이 선생님!)’ 어떤 여학생은 이 ‘빈둥’이라는 단어를 한층 더 감동적으로 사용했다. ‘우리 부모님은 멜버른에 가서 maggting(빈둥대려고)하려고 나를 기숙학교에 보냈어.’

그 밖에 내가 좋아했던 단어들 중에는 ‘단 한번 밖에 듣지 못한’ 단어들도 꽤 있다. 어떤 여학생이 한숨을 쉬며 어느 여선생님의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다. ‘그 선생님은 정말 스트레스 주는 데는 stress monster (귀신)이야.’ 한번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두 여학생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 한 명이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다가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소녀의 친구는 그녀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Go for gold Tori! Go for Gold! (용기 있는 자가 황금을 얻는 거야 토리, 용기를 내)’ 나는 이 표현을 내 책에 썼다. 프레딕이라는 이름의 남학생이 부서진 모형 비행기의 잔해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Oh!crumpulatulations, dudes. (오우! 폭삭추락축하해, 친구들아.)’ 또 한번은 중학교 3학년생 여자아이가 남자 아이들에게 좀 비켜달라고 말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내게 항의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남자애들은 정말 boy-y people(구제불능)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 노트를 찾기에 바빴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쓰는 표현들 중에는 대부분 모욕적인 말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언급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들 중 90퍼센트는 고작 대여섯 개의 단어들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쓰는 말은 아주 제한된 언어일 것이다. 나는 TV에서 ‘젊은이들’이 다음과 같이 기발한 표현들을 쓰는 걸 좋아한다. 내가 기억하는 것들 중에는 ‘bottom boil (바닥이 절절 끓는다)’ 와 ‘farty breath(방귀냄새가 나는 입)’

등이 있다. 이런 싱싱한 표현들은 전달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이런 표현들은 긴장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All right, Vegemite(괜찮아, 베지마이트)*라는 책에 보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저속한' 언어들이 얼마나 언어에 다채로움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음은 내가 학교에서 들은 대화의 내용이다.

'My brother's a pain (내 남동생은 정말 골칫덩어리야).'

'My brother goes beyond pain (내 남동생은 골칫덩어리 그 이상이야).'

태즈매니아 지역의 데번포트에서는 이런 대화도 들었다.

'Haven't you got a brain?(너는 뇌가 없니?)'

'No, when God handed them out I thought they were milk shakes, and I asked for an extra thick one(응, 하나님께서 내게 뇌를 주실 때 나는 그게 밀크셰이크인 줄 알고 좀 더 걸쭉한 걸로 달라고 부탁드렸거든).'

한 가지 더 있다.

'You're making me sick (너는 정말 날 속상하게 해).'

'Fine then, go an be sick(좋아, 넌 가서 드러누워 버려라).'

때로는 청소년들을 겨냥한 전문 잡지들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청소년들 특유의 언어를 일부러 과장되게 사용하는 예도 볼 수 있다.

'Chow down spacos! Drop your mack lot at our wooden box if you wanna cool it and show what a ripping spagnoli your troppo self is. We are two funky doodettes who crack up at the zapagorny attitude of quaverial life. So write marbot! ACT.'

내가 가지고 있는 40권의 사전이 무용지물이 되었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

시에 쓰인 좋은 영어들

시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언어를 잘 사용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시어(詩語)의 우아함과 경제성을 음미하면서, 시인들이 선택하여 배열한 단어들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으면서 많은 시들을 읽었다. 시가 요구하는 언어의 절제력은 실제로 완벽한 표현들을 많이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표현들의 우리 문화의 질을 높였다.

He nothing common did or mean

Upon that memorable scene.

이것은 17세기 시인 앤드류 마블이 영국왕 찰스 1세가 처형장으로 향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 시다. 시의 언어적 절제력은 단어 선택에서뿐만 아니라 단 두 줄의 문장으로 시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극도로 감정을 배제하려고 하는 시인의 노력에서도 엿보인다. 이 짧은 시는 위엄 있고 감동적이며 숭고함마저 느껴진다.

셰익스피어가 쓴 연극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셰익스피어는 클레오파트라의 바지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 barge she sat in, like a burnished throne,
Burned on the water: the poop was beaten gold;
Purple the sails, and so perfumed that
The winds were love-sick with them; the oars were silver,
Which to the tune of flutes kept stroke, and made
The water which that beat to follow faster,
As amorous of their strokes.**

셰익스피어가 두 번째 문장에서 'burned(타다)'을 사용하기 위해 첫 문장에서 'burnished(윤을 내다)'사용 했다는 사실은 언어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쁨을 선사한다. 이 시에 나오는 향기가 나는 듯과 사랑에 빠진 바람의 모습처럼, 물살을 젖는 노와 사랑에 빠진 강물의 모습처럼 그렇게 셰익스피어의 단어 선택은 탁월했다.

때로 시인은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경탄을 자아낼 만큼 간결한 문체로 표현하기도 한다.

토마스 그레이의 묘반(墓畔)의 애가(哀歌)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The boast of heraldry, the pomp of pow'r,
And all that beauty, all that wealth e'er gave;
Awaits alike th' inevitable hour.**

The paths of glory lead but to the grave.

미사여구가 이어지는 앞에 세 문장에 이어 나오는 마지막 문장은 마치 급행열차처럼 독자의 마음을 강타하고 지나간다. 이처럼 확실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단어들은 이 나라의 국회의사당 입구에도 쓰여 있어야 할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시를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시를 읽는 것 대신 노래를 듣는다. 하지만 시와 노래는 거의 같은 것이다 많은 노래들은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작사자겸 작곡가인 밥 딜런,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 폴 사이먼, 트레이시 채프먼, 돈 워커(Cold Chisel 멤버), 폴 켈리, 주디 스몰과 에릭 보겔은 가장 뛰어난 시인이자 뮤지션들이다. 브루스 스프링턴의 노래 'Born in the USA'는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에 월남전 참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사회를 비판했다.

Born down in a dead man's town

The first kick I took was when I hit the ground

죽은 자의 도시에서 태어나, 나의 첫 걸음마는 사회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되었다

You end up like a dog that's been beat too much

Till you spend half your life just covering up...

갈갈이 물어뜯긴 개 같은 내 인생, 어느 새 절반이나 살아버린 내 인생...

그리고 그 다음은

Down in the shadow of the penitentiary

Out of the gas fires of the refinery

제련소 가스불빛에 비친 교도소의 그림자,

I'm ten years burning down the road

Nowhere to run, ain't got nowhere to go...

도망갈 곳도, 아니 아예 갈 곳도 없는 이 길에서 10년을 보냈어...

이 노래의 가사는 한 줄 한 줄 마다 강렬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 노래는 각 줄마다 신선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담으면서 힘찬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노래 중간에 반복되는 아이러니한 코러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라는 가사는 스프링턴이 이 노래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억압과 좌절의 표지라기보다는 흔히 내세우는 미국의 자부심의 상징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스포츠 중계에 쓰인 좋은 영어들

스포츠 해설가들은 종종 영어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릴 정도로 최악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중 한 부류이기는 하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아주 특별한 느낌을 잘 담아내기도 한다. 특히, 경기에 필요한 기술을 말이나 글에 적용할 때 그런 특별한 느낌을 잘 표현한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정확성과 교묘함을 절묘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절제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원칙을 다 갖추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AFL의 Western Bulldogs 팀의 전 코치, 테리 윌러가 한 말이다

**There are no trees on a football field, no rocks, nowhere to hide (축구
그라운드에는 나무도 한 그루 없고, 바위도 하나 없어서 숨을 곳이 없죠).**

나는 이 한 마디가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호주 출신 크리켓 선수 데이비드 분이 떠오르는 볼에 가슴을 강타 당했을 때, 해설가 맥스 워커는 데이비드 분의 가슴에 들었을 멍에 대해 매우 선명한 예측을 내놓았다.

He'll have a receipt for a couple of days, no doubt about that. The rings of Saturn will come out-green, purple, a sort of murky grey...

(분명 이틀 정도는 병원에 다녀야 할 겁니다. 가슴위로 초록색, 보라색, 탁한 회색을 띄는 토성의 고리 같은 멍이 들거예요).

그리고 수영선수 트레이시 위컴은 그녀의 절제력 있는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re was one girl I used to swim against. She'd stand up there on the blocks beside me and I'd be one hundred per cent serious and blocking everything out and here she'd be, this pretty blonde thing, winking at the boys and yapping away to me, saying things like, 'Gee, Tracey, I like your hair.' I'd think, No wonder you never do any good, your mind's all over the place. You're in the wrong place, kid. Go and do ballet or something. 항상 저와 수영을 같이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제 옆에 있는 블록 위에 서 있으면 저는 100퍼센트 집중해서 저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막아낼 준비를 갖추고 있었죠. 그 예쁘장하게 생긴 금발의 여자아이는, 남자 애들에게 윙크를 하면서 제게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어머, 트레이시, 네 머리 참 맘에 든다'라구요. 저는 '머리가 맘에 든다고?!' 라고 생각했고, 창피해서 수영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정신이 다 흐트러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그 애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예쁜 머리를 하고 수영대신 발레처럼 우아한 것만 해버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트레이시가 글을 잘 써서 문학상이라도 수상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강력하게 들려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가 그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언어는 독창적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생생하고 독자의 마음을 잡아 끈다. 수영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스케이트보딩과 서핑에는 특히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았다. 예를 들어 그로멧, 스케그와 베일(서핑 표현), 그리고 올리, 애시드 드롭^{acid drop}, 페이스 플랜트¹¹(아야!), 틱톡¹², 슬램¹³ 그리고 스테일피쉬¹⁴(스케이트 보딩)가 있다- 위에 나온 스포츠들은 각각 특유의 강하고 역동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크리켓¹⁵의 경우, 매우 복잡한 전문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잘 바뀌지도 않는다).

만일 스포츠가 중요한 관심사라면, 스포츠 용어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포츠 용어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좋은 영어들

세 살이나 네 살 정도 된 아이들은 영어를 기발하고 다채로운 방법으로 사용한 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아이들이 말을 하면 웃음거리가 되기 일쑤고 얼마 지나 지 않아 우리 어른들처럼 지루하고 뻔한 언어를 구사하도록 변한다. 하지만 내가 수집한 많은 언어들 중 가장 훌륭한 작품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내 친구 커스티는 다섯 살짜리 여자 아이의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에게는 맵신으로 갓 태어난 남동생이 있었다. 어느 날, 커스티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방목장을 가로질러 산책을 할 때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Kirsty, the black cow, and the sky at night, and my baby brother are all alike (커스티 아줌마, 저 까만 소도 까만 밤하늘도 내 동생이 보는 까만색과 다 똑같네).'

아이가 동생의 시각장애를 표현한 이 말은 감동적이고 시적이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내게 유아원에서 좋아하는 아이가 생긴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다.

11) Originally skateboarding and snowboarding slang, a humorous variant of handplant, which is an intentional technique in these sports.

12) 스케이트보딩 전문용어(사전 참조)

13) 스케이트보딩 전문용어(사전 참조)

14) 스케이트보딩 전문용어(사전 참조)

15) 크리켓 ((특히 영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11명씩 두 패로 갈려서 하는 옥외 구기))

'Daddy, I'm enheartened with Sophie(아빠, 내 안에 소피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다니! 어느 사전에서도 이런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언젠가 'got (가지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사용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 했을 때마다, 그 물건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Look at my got , look at my got!(내가 짐 좀 봐요, 내 짐 좀 봐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만일 당신에게 어린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있다면, 잠깐 동안 그 아이들의 말을 엿들어 보아라.

코미디언들이 사용하는 좋은 영어들

우리사회의 몇 퍼센트나 되는 농담이 언어에 관한 것일까? 40퍼센트? 50퍼센트? 사실, 말장난에서부터 무시무시하고 금기된 주제(섹스, 배설, 고통, 죽음)들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모든 농담이 그 안에 포함될 것이다.

코미디언들은 항상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들 중 한 부류이다. 다음과 같이 영리한 농담을 하기도 한다.

문제: 화장실이 없는 에스키모의 집을 뭐라고 할까요?¹⁶⁾

답: 이그

문제: 날개가 없는 날파리를 뭐라고 할까요?

답: 걷는 파리

문제: 찐 콩¹⁷⁾과 양파를 보면 나오는 것은?

답: 눈물

그 밖에도 좀 더 세련된 유머로 사람들을 속이고 웃기는 앤드류 댄튼과 리타 룬더 같은 코미디언들도 있다. 레드 사이먼은 'Hey Hey It's Saturday(헤이 헤이 오늘은 토요일이야)'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떻게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손을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손가락을 다 펴서 흔들지는 않지만요.' 마지막 한 방 까지 잊지 않은 정말 영리하게 쓴 문장이다. 내가 생각 할 수 있는 다른 예를 들자면, 로니 바커와 로니 코르벳이 한 사람만 초대되는 파티에 대해 묘사한 적이 있다. 초대받은 손님은 생수나 녹은 얼음을 마실 수 있고 본인이

16) 화장실은 영국 구어로 'loo'라고 한다.

17) Baked beans: 찐 콩과 베이컨등을 토마토 소스에 넣어 요리한 것.

'바닥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한 후, 파티 게임으로 Sardine game 을 할 수 있었다. 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와 피가 섞인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만 있다면!' 그리고 'The Goon Show' 에 나오는 고고학자 지망생들이 유물을 발굴하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크런: '민, 너 뭐하는 거야? 나는 벌써 강아지 뼈 네 개 중에 세 개를 혼자 찾았어...어, 봐봐, 또 하나 있다...아, 이것 봐!'

미니: '세상에, 존... 이 두개골은 500만 살은 되었을 것 같아.'

헨리(노래 부르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위의 대화 내용은 모두 말장난들이다. 신문사에서 개최한 대회에 참가한 사람이 쓴 아래에 나오는 탐정소설의 첫 문단처럼 말이다.

Four a.m. Friday morning. I was in my office working on a case. I had to work on a case, I couldn't afford a desk. There was tap at the door. I got up and turned it off. I hate to see waste. On the way back I saw a figure pass my second floor. She arrived at my office door, a live brunette. This dame spelt trouble. She got it right first time. I asked her to spell psychiatrist. Not now, she said. She fell into my office and leaned close to me over my case. I could see it was murder, she had it written all over her face. I passed her a Kleenex so she could wipe it off and she warned me about the hood in the alley-way with the felt-tip. The she broke down and spilled her guts. I could see this one was going to need a lot of Kleenex. 18)

스파이크 밀리건과 같은 언어에 대한 이해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드물다. 어렸을 적 영어를 완전히 익힌 후, 그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고 끊임없이 영어를 개조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여기 그의 책 '*아돌프 히틀러: 그의 추락에 내가 기여한 것*'에 나온 예가 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중 같은 군대 막사를 사용하던 코골이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코를 골아대는 병사들은 각자 특유의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거너 포레스트의 소리는 날계란들이 부드럽게 회전하는 럭비공(football)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를 내며 가글을 하는 것 같았다. 완전한 코골이 소음으로 치자면 거너 노트를 빼 놓을 수 없다. 그의 콧소리는 방의 반대편에 있는 나이프와 포크 그리고 스푼이 진동하게 했다. 그가 잠들기 전에 우리는 미리 느슨하게 놓여 있는 모든 물건들을 역기로 눌러 놓아야 했다. 시드 프라이스는 좀 더 힘찬 소리를 냈는데 하룻밤 사이에 침대가 6 인치나 움직일 정도였다. 심한 밤에는 그의 침대를 복도에서 발견할 때도 있었다.

18)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사용해서 쓴 범죄소설의 도입 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이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거너 리치의 이 가는 소리는 마른 코르크 마개가 병목에서 '뿌지이-지익' 하는 소리를 내며 비틀리는 소리 같았다.

하루 종일 농담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There was this kangaroo hopping down a road...'¹⁹⁾ 'Knock, knock...'²⁰⁾ 'Why did the fireman take a fishing line to the...'²¹⁾와 같은 농담들은 쉽게 질린다. 보통, 재미있는 사람들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단어들을 영리하고 신선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는 7학년에 재학 중이던 레이노르 라는 학생을 기억한다. 레이노르는 어느 날, 같은 반 친구들이 콘돔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교실에 들어간다. '그게 뭐야?' 라고 레이노르는 순진하게 물어봤다. 순간, 친구들로부터 조롱하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레이노르는 곧 자신이 저지를 실수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실수를 멋지게 만회했다. '그게 뭔지 나도 알아' 라고 레이노르가 말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작은 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온갖 장소에서의 좋은 영어들

어느 중학교에 있는 목공예 반에 한 교사가 칠판에 규칙들을 적어서 붙여놓았다. 그 중 첫 번째 두 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았다.

**물건을 옮긴 사람이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것.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면, 만지지 말 것.**

내게는 이 규칙들이 완벽한 영어였다. 거기에는 어수선한 단어가 하나도 없었고, 전문용어도, 의미의 혼동도 전혀 없었다. 언어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된 문장이었다.

어디서 좋은 언어의 표본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좋은 언어의 표본은 틀린 철자에서도 나올 수 있다. 10학년생 중 앤드류라는 학생이 Surfer's Paradise(서퍼스 파라다이스)에 대한 에세이를 Surface Paradise (서페이스 파라다이스, 표면 파라다이스)라고 써서 내게 제출한 적이 있다. 나는 앤드류의 틀린 철자가 오히려 서퍼스 파라다이스라는 장소에 대한 훌륭한 설명이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격렬한 폭풍우를 설명하면서 실수로 'lightning' 의 'l' 에 줄을 그어서 'tightning storm' 으로 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나은 단어 선택이었다. 그 단어는 오히려 폭풍우가 손아귀에 그 지역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는 이미지를 주었다. 불길한 먹구름, 으르렁대는 천둥, 숨 막히는 정적.

내가 일하고 있던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 된 남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19) 호주의 농담.

20) "똑똑,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국 동요와 흡사)

21) 호주의 농담.

차에 동승했던 친구는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 중 한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그 문장을 받아 적었다. 그는 '피터는 앤드류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정작 피터 자신의 목숨은 지켜내지 못 했습니다.' 이 문장이 전달한 엄숙함과 품위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과일가게에 갔을 때의 일이다. 그녀는 조그맣고 까만 열매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과일가게 점원에게 '이건 뭐죠?' 라고 물었다. 점원은 'they're blueberries, but they're black because they're green (이건 블루베리인데 아직 설익어서 검은 색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대답이다.

그렇다, 좋은 언어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좋은 언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가진 언어의 기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비로소 아름답게 지저귀는 것들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쁜 영어들

터놓고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집어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겠는가?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확인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언어의 보편적인 오류들을 매우 빠르게 자각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당신의 연설이나 작문에서 오류를 줄여 나가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비평적 독자이자 비평적 작가가 되도록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멜버른의 Age 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자. 'Israelis Shoot Dead Arab Boy.(이스라엘인들 아랍소년 총격으로 사살)' 자신에게 물어보자, '이것이 기사의 요점을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좀 더 나은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었을까? 애매모호하지는 않은가?' 라고.

동의반복

문장에서 클러터²²⁾를 삭제하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초고에서 미쳐 삭제

하지 못했다면 편집 과정에서라도 삭제해야 한다. 많은 클러터들은 대부분 동어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틀로지²³⁾는 이미 서술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Late line'²⁴⁾ 이라는 프로그램에 금융 전문가가 나와서 포스터 그룹²⁵⁾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포스터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²⁶⁾ 큰 양조회사이고 그보다 앞선 기업은 3개 밖에 없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에 나온 또 하나의 예가 있다. 카루터스씨가 파라마타²⁷⁾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다. 그는 파라마타 교도소가 관대한 타입의 교도소라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문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요소가 늘 존재하기 마련이죠.

3MP 라디오 뉴스에서는 어느 날 이런 문장도 흘러나왔다.

외무부 장관인 에반스 상원의원은 오늘 아침 호주를 떠나 해외로 갔습니다.

3MP 라디오에는 아무래도 직원들 중에 토틀로지 전문가가 있는 것 같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테니 말이다.

패커씨의 심장은 멈췄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문장의 후반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크리켓 해설자들도 동의반복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인물들이다.

이곳은 크리켓을 하기에 좋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크리켓 그라운드네요. (또, 토니 그레그다)

그는 신장이 6피트 3이나 됩니다. (밥 윌리스)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맥스 워커)

22) 제공되어야 할 정보 이외의 색채나 명도 등 불필요한 정보들로 인해 생기는 혼란 현상.

23) 동의반복

24) 호주의 시사 정보 프로그램

25) 맥주 제조회사

26) <해설>한 문장 안에서 의미가 반복되는 구절에 밑줄을 그었다.

27) 호주, 시드니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

구름들이 아직도 하늘에 있습니다. (남아공 해설자)

하지만 '정확한' 영어를 사용하기로 유명한 기관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다.

... 경찰과 사회 복지사들의 새벽 급습은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BBC 라디오 4)

라몬트는 꿈을 꿈꾸는 총장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1991년 6월 14일 Times 신문의 헤드라인)

꿈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꿈단 말인가?

애매모호성

가끔은 문장이 엉망으로 쓰여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독자는 혼란스러워진다.

Her eyes flew open, and she saw his fly open too,' (밀스 앤 분 소설)

내게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엘비라는 개가 있었다. 어느 날 엘비는 내가 일하는 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왔다. 학교 미화원들이 'WET FLOOR'라는 큰 사인을 세워 놓았다. 그래서 엘비는 바닥에 오줌을 싸 버렸다.²⁸⁾

서울 올림픽에서 다이빙 해설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줬다.

다이빙 선수들이 수영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다이빙 선수들에게는 심각한 일이다! 사실, 다이빙 해설자들은 다이빙 선수들이 입수 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첨병 거려서 점수를 잃고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었다.

혼합된 은유들

Zivojinovic seems to be able to pull the big bullet²⁹⁾ out of the top drawer

28) <해설>WET FLOOR는 바닥 청소 후 물기가 남아있어서 미끄러움을 주의 하라는 표시이지만 강아지 엘비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바닥에 오줌을 싸버린다.

29) 보통은 'pull the biggest crowd' 또는 'pull the biggest fraud' 와 같이 '사상 최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보지노비치가 맨 위 서랍에서 크게 한 방 쏠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테니스 해설가)

도대체 큰 총알 한 방이 맨 위 서랍에서 무얼 하고 있다는 말인가? 해설가는 은유(간접적 비유)를 사용할 때 혼동을 한 것이다. 그는 차라리 'He's able to play shots from the top drawer'(가장 중요한 샷을 날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He's able to fire the big bullet'(크게 한 방 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위의 두 가지 표현은 잘 알려진(사실, 오래된)표현들이다. 하지만 경기 순간의 열기로 인해 해설자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섞어서 사용해버렸고 엉망으로 망쳐버렸다.

Age 신문에 나온 CD 리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The Moon and You'... 는 가장 뛰어난 앨범이라고 그라보우스키는 말하며 아마도 이 앨범은 모던 재즈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며, 뒷문을 통하여 모던 재즈를 뉴류로 가져온 앨범이라고 했다.

나는 지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하지만 뒷문으로부터 분수령을 가져와 주류에 편입 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1998년 1월, 세인 원이 300번째 위킷³⁰⁾을 던졌을 때, 주장인 마크 테일러는 이렇게 회상했다.

남아공에서 세인은 너클에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잘 참아냈습니다.

만일 당신이 비교를 하고 싶은 거라면, 아무 상관없다. 비교야말로 작문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이다(은유를 사용하는 것). 하지만 은유를 사용하는 한, 사용하는 방법이 한결 같아야 한다. 지리 에세이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은 피해야 한다.

원시림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곳이다.

당연한 말 줄이기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어수선한 문장 없애기 캠페인이다. 만일 독자들이 추론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그들에게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30) 크리켓에서 22yd의 거리를 두고 세워지는 3개의 기둥으로 된 문으로 그 위에 작은 2개의 베일즈(bails : 횡목)가 놓여진다. 투수가 위킷을 향해 볼을 던지면 타자는 이 앞에 서서 볼을 치는데, 이 베일즈가 떨어지면 타자는 아웃이 된다. 위킷은 지상에서 28in의 높이로 9in의 폭이며, 볼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간격으로 세워져 있다.

문장을 어수선하게 만든 것이고 중요한 내용이 어딘가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는 이미 놓쳐버린 뒤다.

서울 올림픽에서 남자 다이빙 경기의 최고 인기 스타는 미국의 그렉 루가니스였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다이빙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루가니스가 발을 헛디뎠다. 보드 위로 넘어진 것이다. 해설자는 바로 이렇게 말했다.

루가니스가 우발적으로 보드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 말은 루가니스가 평소에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넘어진다는 뜻인가?

올림픽 경기에서 또 다른 해설자가 남자 400미터 육상 결승 경기에서 호주의 데런 클라크 선수가 '오늘 아주 잘 달리려고 한다' 고 말했다. 해설자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 어려웠다. 클라크 선수는 그 경기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훈련을 했고 그 경기는 그의 선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였다. 그가 잘 달리려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누구나 알고 있다.

혼동

가끔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지 정말로 궁금해 질 때가 있다. 한 테니스 해설가가 말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Chip Hooper is such a big man³¹⁾ that it's sometimes difficult to see where he is on the court. (칩 후퍼는 덩치가 큰 선수라서 가끔은 그가 코트 위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영국의 한 스포츠 해설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넬슨 피켓 선수에게는 썩 좋은 시즌이 아닌데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로드 마쉬는 스리랑카 크리켓 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나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답을 찾는 중이다. 로드는 세 번의 부정문 사용을 기록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31) Big man 은 주요 인물이라는 뜻도 있고 덩치가 큰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예는 또 한 번 텔레비전 진행자 돈 레인이 어느 날 밤, '아메리칸 풋볼'에 나와서 말하는 데서 들을 수 있었다.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저것이 공을 놓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영어의 혼돈뿐만이 아니라, 수학의 혼돈일 때도 있다.

저는 스코틀랜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게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스코틀랜드 방식에서 360도 다른 것입니다.(코치, 에디 톰슨)

퀸즈파크 타원형 풋볼 경기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동그랗습니다. (토니 코지어)

처음으로 4대 4를 이루며, 이제 양 쪽 모두 한 골씩 남겨두고 있습니다.(워터폴로 텔레비전 해설자)

5년 전에는, 그가 지금보다 더 훨씬 어렸을때... (브루스 매커브니)

5년 전에 우리는 누구나 지금보다 다섯 살 어렸다.

클리쉐(진부한 표현)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서 클리쉐는 아주 많이 사용된다.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오스카 와일드나 도로시 파커가 아닌 이상, 말을 시적으로나 창의적으로나 뛰어나게 말 할 만큼의 정신적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 클리쉐는 일상의 대화가 편안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안녕, 잘 지냈어?'

'별 일 없이 지내. 너는 어때?'

'어, 그럭저럭 지내... 이 아이가 네 아이니?'

'응, 이 아이야.'

'우와, 누가 봐도 너를 속 빼닮았구나, 어머니!'

이런 식으로 클리쉐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전형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 아이가 네 아이니?' 라고 물었을 때, 똑똑한 척 하는 사람만이 '아니, 이건 기형 파인애플이야.' 라고 말 할 것이다.

클리셰는 각각의 방식과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방식과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만일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놀라게 되기도 한다. 'I'm going to grab forty winks³²⁾' 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보자. 이 표현은 기이한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They screamed blue murder³³⁾.' 라는 표현도 있다. 어떤 종류의 사인이 파란색이란 말인가? 'I got off by the skin of my teeth.³⁴⁾' 이빨에 피부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 구절의 요점은 이빨에는 피부가 없다는 점이다.

어떤 클리셰들은 처음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신선함과 빼어남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을 것이다. 'I went like a bat out of hell³⁵⁾.' 작고 검은 박쥐 한 마리가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빠져나오는 모습은 아주 좋은 비유이다. 'He was as thin as a rake.³⁶⁾' 상상 해 보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표현이 있다. 'You'll be late for your own funeral.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셰는 연설할 때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작문에서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클리셰를 사용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당신의 말을 듣는 청중들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막연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과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만 갖는 상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붙잡아두려면 산뜻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매체이다. 아마도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는 드라마 대본이 시청자들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아주 조금 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피곤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드라마를 볼 때만큼은 편안하게 봐도 된다. 드라마 대본은 끝도 없이 클리셰를 사용함으로써 시청자가 조금만 집중해도 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5분 동안 드라마를 보면서 몇 개의 클리셰가 나오는지 세어보자. 적어도 15개에서 20개의 클리셰가 나올 것이다. 여기 '우리 생애 나날들'의 5분 동안의 내용이 있다.

'별 거 아니야.'

'미안해.'

'야, 그러지마. 곧 괜찮아질 거야.'

'그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32) '낮잠을 한 숨 자다' 라는 표현으로 'I'm going to take forty winks' 가 있다.

33) '소란을 피우다' 라는 뜻.

34)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쓰다' 라는 뜻.

35) '지옥을 빠져나가는 박쥐와 같았다.' 라는 뜻.

36) '부지깽이처럼 마른 남자.' 라는 뜻.

37) '너를 네 장례식에도 늦을거다' 약속시간에 자주 늦는 사람을 뜻한다.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까다롭게 굴 입장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상관하지 않아.'

'이 일은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해.'

'나와 너희 아빠는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함께 겪어왔단다.'

'네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나도 알아.'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당신을 바꾸지 않을거야.'

'우리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이아나, 난 어린애가 아냐. 내 앞에서 연극 안 해도 돼.'

'글쎄, 난 역시 당신을 못 속이겠어.'

이건 마치 드라마 대본을 쓰는 사람들에게 몇 천개의 클리셰가 컴퓨터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새로운 대본을 만들어 낼 때 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컴퓨터가 200개의 클리셰 구절에 링크를 걸어서 찰칵! 하고 찍어내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에피소드가 되는 것이다.

동료 중 한 명이 내게 서울 올림픽 기간 중 스포츠 해설자의 표현 리스트를 건네 준 적이 있다. 각 구절마다의 공통요소는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모든 것이죠'였다. 그래서 올림픽 첫날 우리는 이렇게 들었다. '올림픽 게임은 탁월함의 추구를 위한 모든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날 그 말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모든 것이죠, 바로 예상 밖의 패배(upsets)들이죠.' 그리고 얼마 후 '그의 마지막 드로우와 함께 상대 선수로부터 금메달을 빼앗아 오네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모든 것이죠.' 곧 이어 우리는 또 이런 말을 들었다. '준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을 따냈네요. 금메달 3관왕인데요, 하지만 그것이 또 올림픽의 모든 것이죠'.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네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폐막식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모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바로 우리에게 수많은 기억들을 남겨줄 바로 그들이 올림픽의 모든 것이죠.'

불명료화

어수선행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 했다. 어수선행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종류는 단어들이 불필요하게 너무 길거나 문장이 끝도 없이 늘어질 때다.

가장 뛰어난 문장 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인 호주 작가 이반 사우스홀은 초고로 돌아가서 매 페이지마다 10단어씩을 삭제하는 훈련을 스스로 했다. 그것은 좋은 단련법이다!

세계2차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은 리더십에 대한 압력이 그를 짓누르던 그 때에, 그의 부하들에게 한 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는 읽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것 또한 좋은 훈련법이다!

미국 군대에는 이런 모토가 있다. KISS. 이것은 'Keep It Simple, Stupid!' 을 의미한다. 전쟁에서도 그렇고 작문에서도 이 모토를 지키라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불명료화' 라는 단어 자체가 불명료화의 한 가지 예다. 차라리 '애매한 말' 이 나올 것이다.

고2와 고3 시절에는 특히 학생들을 사로잡는 치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꼭 길고 복잡한 문장을 써야 한다고 느끼거나 그들이 아는 단어 중 가장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스콧 피츠제럴드와 같이 훌륭한 작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Most of the confidences were unsought- frequently I have feigned sleep, pre-occupation, or a hostile levity when realized by some unmistakable sign that an intimate revelation was quivering on the horizon; for the intimate revelation of young man, or at least the terms in which they express them are usually plagiaristic and marred by obvious suppressions.³⁸⁾

하지만 글을 그만큼 쓰지 못하는 작가나 연사가 시도를 한다면...그것은 낭패다.

속행 2회전을 피하려는 그들의 희망은 악화되어버렸습니다. (그렉 매튜스, 크리켓 경기 리뷰를 하며)

이것은 영국 교육부에서 앞서 학교에 보냈던 지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낸

38)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유산' 중 한 부분.

확인용 서류의 내용이다. 명확한 설명내용을 받기 전에 미리 내려진 지시 내용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라!

Where a pupil is unable to complete a SAT due to his absence from school...if in the opinion of his head teacher he has not done enough work as aforesaid, the levels of attainment determined by the teacher assessment shall be the levels for the purpose of article 7 unless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in the case of a pupil at a school which the authority maintains) or SEAC(in the case of pupil at a grant-maintained school) disagree, in which case the levels of attainment by reference to the work the pupil has done on the SAT in question.

다음은 호주 전 수상 밥 호크의 연설 중 한 부분이다.

While society cannot provide employment for its members, the production/work/income nexus has to be abandoned as a justification for our present parsimony to the unemployed. An assumption cannot be used to justify making second-class citizens of those who are unfortunate enough to constitute the living proof of the inaccuracy of the assumption.

나는 그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는 있었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인 규칙으로, 누군가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두 번 읽어야 한다면 그것은 잘못 쓴 문장이다. 독자가 의미 파악을 위해 문장 읽기를 자꾸 멈춰야 한다면 문장의 흐름은 방해받게 되고 당신의 설득력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당신 스스로 위태롭게 만들고만 것이다.

불명료화에 대한 치기는 초등학교까지 퍼져나갔다. 내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워크숍을 끝내고 난 후 가여운 6학년 학생 한 명이 내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난 그 학생은 숨도 쉬지 않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전했다.

저는 이런 교육적 경험을 제공 해주신 존 마스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워크숍이 실패한 걸 알았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어느 소녀가 일어나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의 감탄을 갈채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곳에 앉아있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소녀가

박수를 쳐달라고 말한 줄 모르고 있었다.

글쎄, 나는 그래서 학생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틀림없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미숙한 단어 선택으로 의미가 모호해진다면 그것은 최악이다! 내게는 '길리건의 섬'이라는 훌륭한 텔레비전 시리즈에 나온 훌륭한 한 장면으로 위의 모든 내용이 요약될 것이다. 극중에서 스키퍼는 이렇게 말한다, '오 길리건, 네가 하고 있는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어떻게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겠니?'

완곡어법

완곡어법은 사람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것들을 좀 더 듣기 좋게 바꾸어 사용하는 단어나 구절을 뜻한다. 왜냐하면 완곡어법은 말의 의미를 약하게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형편없다!

자주 쓰이는 완곡어법으로는 lavatory(화장실)을 'rest room(쉬는 곳)' 이나 'comfort station(휴게실)'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sack(해고) 라는 말 대신 'termination of employment(재직종료)'를, prison(감옥) 이라는 말 대신 'detention centre(수용소)'를, dying(죽어가다)대신 'passed away(돌아가시다)' 나 'expired(수명을 다하다)'를 사용하기도 한다.

나의 남동생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동생은 나이가 지긋한 Hall 여사를 치료하고 있었다. 어느 날, 동생이 여사의 병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환자인 Hall 여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Hall 여사님 어디 계시죠?' 라고 그가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오우' 그녀는 이어서 '갈보리로 가셨어요.'라고 말했다.

내 동생은 이것이 기독교식으로 죽음을 말하는 완곡어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무척이나 건강해 보이셨는데,' 라고 그가 말했다. '네, 그랬죠' 라고 간호사는 '하지만 우리는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을 갈보리로 보내드리는걸요.' 라고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갈보리는 요양원의 이름이었다.

1889년 토마스 하디는 부유한 먼 친척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한 순진한 시골소녀의 이야기인 『*더버빌가의 테스*』를 썼다.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열일곱 살 이었고 259페이지까지 읽고 나서야 나는 테스가 알렉 더버빌에 의해 처녀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을 뒤에서부터 다시 읽으면서 90페이지에서 야한 장면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장면은 하도 섬세하게 다뤄져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기 힘들었다.

"테스!" 더버빌이 불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어둠이 너무 짙어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의 발치에 있는 뿌옇게 흐린 물체가 낙엽 위에 두고 갔던 하얀 모슬린의 형체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암흑이었다. 더버빌이 몸을 숙였다.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몸을 더 숙였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얼굴에 따뜻하게 와 닿았다. 곧 그의 뺨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으며 속눈썹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둠과 침묵이 사방에 깔려 있었다. 머리 위에는 체이스 숲의 원시림 주목(朱木)과 오크 나무가 솟아 있고, 이 나무에서 보금자리를 잡은 새들이 마지막 새벽잠을 자고 있었으며, 그들 주변에서는 토끼들이 조용 조용 뛰고 있었다. 그러나 테스의 수호천사는 어디 있었고, 그녀의 소박한 신앙의 섭리는 어디 있었느냐고 누군가는 물으리라. 아마도 빈정대기 좋아하는 티시베 사람이 말하는 다른 신처럼 하느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나, 쫓고 있었거나, 길을 걷고 있었거나, 아니면 잠을 자고 있어 깨워서는 안 될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째서 비단만큼이나 섬세하고 사실상 눈처럼 티없는 이 아름다운 여자의 살결에 운명처럼 추한 무늬가 박히게 되었는가? 어째서 늘 조잡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차지하고, 엉뚱한 남자가 자기 짝이 아닌 여자를 소유하며, 엉뚱한 여자가 남의 남자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분석철학자도 우리의 질서 의식에 맞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재난 속에 보복의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사실상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갑옷으로 무장한 테스 더버빌의 선조가 싸움에서 우쭐한 기분으로 요란스럽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시골 처녀들에게 이보다 더 무자비한 짓을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전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신들에게는 해당 될 수 있는 도덕률일지 모르나 보통 사람들은 외면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그러한 설명은 이 일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

테스가 사는 시골의 이웃들은 자기들끼리 운명에 대해 "그건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어." 라는 말을 하곤 한다. 애석한 점은 바로 여기 있었다. 이제부터 헤아릴 수 없이 큰 사회적 틈이 우리 여주인공의 인성에 자리잡아, 트란트리지의 양계장에서 삶의 기회를 시험해 보기 위해 어머니 집 문 밖을 나왔던 전날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³⁹⁾

그러므로 토마스 하디는 테스가 순결을 빼앗기는 순간을 완곡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 소설은 독자들을 끌어내는 M⁴⁰⁾ 이나 R⁴¹⁾ 등급은 아니지만 하디는 서문에서 이 책으로 인해 불쾌해지거나 '견딜 수 없어 하는'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대변한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섹스보다도 완곡어법을 더 견딜 수 없어 할 것이다.

39) 토마스 하디의 소설 '더버빌가의 테스' 중에서 발췌.

40) Matured Audience 의 줄임말, 만 16세 이상 관람객 또는 독자를 뜻한다.

41) Restricted 의 줄임말, 만 18세 이상 성인 관람객 또는 독자를 뜻한다.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어가 최고다. 『Exodus(영광의 탈출)』 과 『Mita 18』의 작가 레온 유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타이프라이터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빠르든 느리든 당신은 반드시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페이지에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완곡어법은 부정직하고, 불명료하며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의 산물이다. 명확한 언어는 작가와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이들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과 맞닥뜨릴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런던 데일리 미러 신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 완곡어법의 팬 말이다.

총에 맞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사진을 실은 첫 면 때문에 역겨웠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사는 좀 더 간결하게 다루고 좀 더 예의바르게 만들어 질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책을 읽어가면서 당신은 아마도 당신 주변에 있는 언어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쯤이면 당신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속 단어나 구절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했을 지도 모른다. 자, 그럼 이제부터 글쓰기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는 언어 자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테크닉, 테마와 플롯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 2 장

작가

순환하기

엔딩은 종종 작가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때로 완벽한 엔딩은 쉽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기도 하지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의 엔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중요하다. 독자

를 이야기 속으로 점점 더 빨려들게 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남겨지게 만드는 것만큼 잔인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무대에 서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가수와 코미디언들을 예로 들자면, 그들은 관객이 항상 공연을 더 보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글쓰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독자들로 하여금 '아, 이 이야기가 영원히 이어졌으면' 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책장을 덮도록 만드는 것이, 도대체 이 이야기가 끝나기는 할 건지 궁금해 하면서 앞으로 몇 페이지나 남았는지 계속해서 세어보도록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낫다. 이야기 속 상황이나 인물들을 후려쳐서 죽음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엔딩으로 다가갈수록 가벼운 터치를 사용해야 한다.

몇몇 독자들은 내 책의 엔딩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는지 모르세요?" 라고 한 소녀가 내게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쓴 모든 책에 엔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때 이야기를 멈춘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끝내는 방법은 문자 그대로 죽음 또는 죽음들을 통해서이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면 마지막 장면이나 마지막 두 장면 중, 무대 위에 너무 많은 시체들을 늘어놓아서 살아남은 배우가 시체 위로 기어오르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처럼 보인다. 햄릿의 마지막 장을 예로 들자면, 왕과 왕비, 햄릿, 오펜리아, 라에르테스,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햄릿에 나오는 인물들 전부였다.

대부분의 작가들에게는 하나의 이야기에서 죽일 수 있는 인물 수의 제한이 있다. 그리고 주의해 두어야 할 또 한 가지는 전문작가가 1인칭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주인공이 엔딩에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학생들은 작문을 할 때 그와 같은 엔딩을 쓸 때가 많다(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그럴 때마다 거의 매번 그 결정에 반대한다). 체코 작가 보흐밀 흐라발은 그의 책 『엄중히 감시받는 열차』에서 위와 같은 엔딩을 썼고, 조이스 케리의 『마구(馬口)』에서도 주인공이 책이 끝나갈수록 사라질 준비를 한다. 그레이엄 스위프트의 『더 스위트숍 오너』에서는 1인칭으로 된 부분이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마치 우리는 주인공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듯 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주인공도 책의 마지막에 가서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충분히 훌륭한 작가라면 주인공을 죽여도 된다.

또 다른 종류의 엔딩은 종종 생각을 해 보게 만들면서, 서서히 진정시켜가는 스타일이다. 클라이맥스는 지났고, 소란과 함성은 잦아들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꽤나 차분한 방법으로 결과에 대해 알게 된다. 이것은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스크린 위에 획 지나가면서 이후로 그들이 각자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영화들의 엔딩일 수도 있다.

로슬리 비티는 지금 알래스카에서 얼음을 공부하고 있다.

미구엘 샌타나는 여행 작가가 되고자 했던 그의 포부를 이루었다.

결혼을 했고 세 자녀와 함께 벨기에에 살고 있다.

가브리엘라 피스토니는 시드니에서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와 같은 테크닉을 사용한 영화로는 '대통령의 음모', '3중대의 병사들', 그리고 '애니멀 하우스'가 있다.

만일 당신이 이야기나 책에서 위와 같은 엔딩을 쓰고자 한다면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될 것이다. 빅터 휴고의 『노퍽담의 굽추』의 마지막 두 문단은 이 테크닉을 사용한 예다. 또한, 헨리 필딩의 『대도(大盜) 조나단 와일드전(傳)』의 끝에서 두 번째 문단도 그 예 중 하나이다.

As to all other persons mentioned in this history in the light of greatness, they had all the fate adapted to it, being every one hanged by the neck save two, viz Miss Theodosia Snap, who was transported to America, where she was pretty well married, reformed, and made a good wife; and the count, who recovered of the wound he had received from the hermit and made his escape into France, where he committed a robbery, was taken, and broke on the wheel.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말끔하게 덜어주는 문단이다.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의 마지막 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All who have cared for Fred Vincy and Mary Garth will like to know that these two made no such failure, but achieved a solid mutual happiness...Lydgate's hair never became white. He died when he was fifty...Sir James never ceased to regard Dorothea's second marriage as a mistake...

이것은 주요 인물들의 결과를 7 페이지로 요약한 내용이다.

또 다른 평범한 접근방법은 이야기를 몇 줄, 몇 문단 또는 몇 페이지로 간단하게 끝내면서 주인공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생각에 잠기고 그 또는 그녀가 배운 점은 무엇인지, 또는 그 또는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히 만족스러운 엔딩을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은 예는 아주 많다.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의 엔딩이다.

그 소년들의 한 가운데에서 지저분한 몸뚱이에 머리는 헝클어지고 코를 흘리며 랠프는 잃어버린 착한 마음과, 어두워진 동심과, 새끼돼지라는 건설하고 지혜롭던 친구가 떨어져 죽은 일이 슬퍼서 마구 울었다.⁴²⁾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게츠비』의 엔딩이다.

42) 윌리엄 골딩, '파리대왕', 소담출판사(1996)

나는 그곳에 앉아 그 오랜 미지의 세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개츠비가 부두 끝에 있는 데이지의 초록색 불빛을 처음 찾아냈을 때 느꼈을 경이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 푸른 잔디밭을 향해 머나먼 길을 달려왔고, 그의 꿈은 너무 가까이 있어 금방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으리라. 그 꿈이 이미 뒤쪽에, 공화국의 어두운 별판이 밤 아래 두루마리처럼 펼쳐져 있는 도시 저쪽의 광막하고 어두운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해마다 우리 눈앞에서 뒤쪽으로 물러가고 있는 극도의 희열을 간직한 미래를 믿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피해 갔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 내일 우리는 좀 더 빨리 달릴 것이고 좀 더 멀리 팔을 뻗칠 것이다.....그리고 어떤 갠 아침에는.....

그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앞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 하는 것이다. 43)

시그프리드 서순의 『조지 서스턴 회상록』의 엔딩이다.

It had been a long journey from that moment to this, when I write the last words of my book. And my last words shall be these- that it is only from the inmost silences of the heart that we know the world for what it is, and ourselves for what the world has made us.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번 장의 타이틀인 '순환하기'로 돌아오게 하는 종류의 엔딩이다. 만약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이야기의 시작점을 다시 상기시켜 보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 구조가 순환되면 독자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한다. 『호빗』에서 예를 들자면, 빌보는 결국 그가 여정을 시작했던 호비톤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그리고 이것은 작가의 기술이다)많은 것들이 변해있다. 이런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톨킨은 빌보가 얻은 교훈을 보여주며 훌륭하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모험은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성장과 지혜는 굴속으로 기어들어가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빌보는 우정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며 황금과 보석은 결국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호비톤에 있었던 빌보를 돌아보고 책의 시작부분에 나온 그의 사고방식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마 당신은 수많은 어린이 그림책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모리스 센텍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그 예다. 이 책은 맥스가 말썹을 부려서 자신의 방 안으로 들여보내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책은 맥스가 아직 방 안에 있지만

43)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민음사(2009)

그의 분노를 다 풀어버리고 난 후 야참을 먹으면서 끝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엔딩들은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삶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에피소드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이야기가 끝난 후로도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음은 막심 고리키의 『어린시절』의 엔딩이다.

A few days after Mother's funeral Grandfather said, 'Alexi, you're not a medal, you're only hanging around my neck. There's no room for you here. You must go out into the world!'

And so I went out into the world.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핀』에서는 하나의 모험이 끝나고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된다.

자, 이제 더 이상 쓸 이야기라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 까닭은 만일 책을 쓴다는 것이 이렇게도 귀찮은 일이지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아마 이 일에 덤비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앞서 인디언 부락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샬리 아줌마가 나를 양자로 삼아 <교양있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나는 그 일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 일이라면 전에도 한 번 해 본적이 있으니 말입니다.⁴⁴⁾

그리고 잭 런던의 『야성의 외침』에도 그런 엔딩이 있다.

녀석이 언제나 혼자 오는 것은 아니었다. 기나긴 겨울밤이면 늑대들이 먹이를 찾아 낮은 골짜기까지 달려 내려오곤 했는데, 그때쯤이면 무리의 맨 앞에서 창백한 달빛이나 희미한 북극광을 받으며 다른 늑대들보다 커다란 몸집으로 아득한 옛날 그대로인 야성의 노랫소리를 우렁차게 내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⁴⁵⁾

그리고 더 명백한 예는 월키 콜린스의 『문스톤』에 나와 있다.

세월은 어제를 지나 오늘, 오늘을 지나 내일로 흘러갑니다. 또 그렇게 흘러가면서 되풀이되기 마련이지요. 문스톤은 앞으로 어떤 운명의 길을 걸어갈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⁴⁶⁾

물론 많은 책들이 '타임라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 책들은 한 가지 사건으로 시작해서 뒤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전개되고 마지막 사건이 일

44)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핀', 민음사(2009)

45) 잭 런던, '야성의 외침', 웅진닷컴(2003)

46) 월키 콜린스, '문스톤', 푸른숲(2007)

어나고 난 후에야 책이 끝난다. 따라서 거기에는 논리적 관계가 있게 되고, 추이성(推移性)과 필연성(必然性)이 있게 된다. 거의 모든 스릴러와 호러, 그리고 추리소설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과 관계를 열거하는 책에서도 이런 진행 방법을 쓴다. 이런 책의 끝에는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지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전한다.

잭 케루악의 『픽』의 엔딩이다.

And Sheila run up, kissed his hungarianly, and we went in and eat the steaj she saved up for us, with mashy potatoes, pole beans and cherry banana spoon ice-cream split.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웨이크필드의 목사』의 엔딩이다.

As soon as dinner was over, according to my old custom, I requested that the table might be taken away, to have the pleasure of seeing all my family assembled once more by a cheerful fireside. My two little ones sat upon each knee, the company by their partners. I had nothing now on this side of the grave to wish for; all my career were over; my pleasure was unspeakable. It now only remained that my gratitude in good fortune should exceed my former submission in adversity.

이러한 엔딩은 L. M. Montgomery 의 『빨강머리 앤』에서처럼 현대인의 구미에는 지나치게 감상적일 수 도 있다.

퀸스에서 집에 돌아와 그곳에 있던 날 밤 이후로 앤의 세계는 좁아지고 말았다. 앤은 앞에 놓인 길이 좁아지긴 했지만, 그 길을 따라 평화로운 행복의 꽃이 피어나리라고 확신했다. 성실한 노력과 가치 있는 꿈, 마음이 맞는 친구에게 얻는 기쁨이 앤의 것이 될 테고, 타고난 상상력과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를 앤에게서 빼앗아 갈 것은 없었다. 길에는 언제나 모퉁이가 있기 마련이다!

앤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땅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롭도다."⁴⁷⁾

셰익스피어의 비극 『율리우스 시저』에서 마크 안토니가 '음모자'들인 브루투스과 카시우스를 항복시킨 부분이 마지막이다. 브루투스는 전투에서 전사하지만 연극의 마지막 순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죽어서도 그의 적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47) L.M. 몽고메리, '빨강머리 앤' 세종서적(2008)

Antony: This was the noblest Roman of them all.
All the conspirators save only he
Did that they did in envy of great Caesar;
He only, in a general honest thought
And common good to all, made one of them.
His life was gentle, and the elements
So mix'd in him that
Nature might stand up
And say to all the world,
'This was a man!'

Octavius: According to his virtue let us use him
With all respect and rites of burial.
Within my tent his bones tonight lie,
Most like a soldier, order'd honorably.
So, call the field to rest; and let's away;
To part the glories of his happy day.

아마도 내가 항상 좋아하는 엔딩은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일 것이다. 이 책은 극적인 사건이 지나고 삶이 계속되는 느낌을 아주 잘 전달하고 있다. '그'는 잼의 아버지 애티커스이다. 잼은 팔이 부러진 후 차분히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는 불을 끄고 잼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밤 새 방안에 있을 것이고 내일 아침 잼이 일어났을 때에도 잼의 곁에 있을 것이다.⁴⁸⁾

물론 당신의 엔딩이 위에 나와 있는 기존의 엔딩들과 같을 필요는 없다. 당신은 얼마든지 특이한 엔딩을 써 볼 수도 있다. 헨리 밀러의 『섹서스』에 나오는 엔딩을 한번 읽어보자.

'멍! 멍! 멍멍!' 하고 나는 짓었다. '멍! 멍, 멍, 멍!'⁴⁹⁾

최악의 엔딩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내 어깨를 흔드는 것을 느끼고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라고 끝내거나, 뉴스기사로 끝나는 것이다. '오늘의 뉴스 : 어제 어린 소녀의 시신이 친체스터 애비뉴 28번지에서 발견 되

48) 역자 번역.

49) 역자 번역.

었다. 경찰은 그녀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이런 엔딩은 진부하고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야기를 끝내는 게으른 방법들이다.

요약

◆ 독자들이 더 읽고 싶어 하도록 한다.

◆ 사용 가능한 엔딩으로는 죽음, 이후로 일어난 일들, 등장인물이 그동안 배운 점을 돌아보는 것,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되돌리는 것, 앞으로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또는 모든 사건이 끝났고 이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웃기 좋은 글들

모든 글쓰기에는 유머가 들어가면 더 나은 글이 된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지는 나도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만일 '모든' 과 '작문' 사이에 '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그 의견에 찬성 할 것이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서스펜스와 블랙 코미디는 함께 사용되어야 영화에서 가능한 가장 무서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 성공을 거둔 대부분의 영화와 책은 장르를 불문하고 모두 유머를 사용한다. 하지만 비단 영화와 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력서, 은행 지점장에게 쓰는 편지, 역사 에세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작문에 조금의 유머를 곁들이면 도움이 된다.

당신이 좋아했던 영화나 책 중에서 유머가 들어있지 않던 작품을 기억해 낼 수 있는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조크를 생각해 낼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는 분명 유머가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 역시 유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거의 모든 그의 연극들과 심지어 비극에서조차도 광대나 바보는 의무적 배역으로 나왔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조크에도 정말 무례한 것들이 있었다.

내가 쓴 『할 말이 많아요』의 초고를 읽은 편집자가 내놓은 제안 중 하나는 좀 더 유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리나가 순진하게 만들었던 할머니의 생일카드 같은 가벼운 분위기의 장면을 덧붙였다.

카드라구? 할머니한테 카드를 쓴 건 여섯 살인가, 일곱 살 때가 마지막이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였다. 무슨 말을 써야 할 지 몰라서 문구점에 있던 카드 문구를 그대로 옮겨다 적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즐거운 생일날, 뜨겁고 화끈한 밤을 보내시기를' 인가,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다. 무슨 말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어른들은 그 말을 충분히 이해했고 난 그날 이후 다시는 카드를 만들지 않았다. 다시는.⁵⁰⁾

50) 존 마스든, '할 말이 많아요', 솔(2003)

유머의 기능은 무엇일까? 우선, 유머는 독자들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다음의 감정적 공격이 발생할 때까지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도 한다. 끝도 없는 긴장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조금 늦추면서 유머는 독자들의 기대를 불러 일으켜 클라이맥스를 더욱 효과 있게 만든다.

유머는 이야기나 등장인물에게 다정함을 더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가 그 또는 그녀에게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반대로 유머가 없는 등장인물은 특별히 독자들에게 비호감이다. 이야기 속에서 진정으로 몰인정한 인물을 만들고 싶다면 이 점을 기억하자. 조지 오웰의 『1984』가 더욱 소름끼치는 이유는 소설에서 그려진 사회의 모습에 유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파리대왕』에서도 오직 랄프만이 유머감을 가지고 있지만 골딩은 가끔 피기(새끼 돼지)에게도 유머를 더해서 독자들이 우리가 그를 좋아할 수 있게 했다. 찰스 디킨스는 『데이비드 코퍼필드』에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가장 기분 나쁜, 말 그대로 유머가 전혀 없는 유리아 힘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냈다. 유리아는 가끔 웃었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따뜻함이나 유머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Uriah stopped short, put his hands between his great knobs of knees, and doubled himself up with laughter. With perfectly silent laughter. Not a sound escaped from him. I was so repelled by his odious behaviour, particularly by this concluding instance, that I turned away without any ceremony; and left him doubled up in the middle of the garden, like a scarecrow in want of support.

그래서 유머는 강력한 무기이다. 하지만 물론 억지 유머는 웃기지 않는다. 유머는 반드시 가벼운 터치로 그려져야 한다. 만일 당신이 사랑 이야기, 전쟁 이야기, 공포 이야기 또는 어떤 극적이거나 감성적인 작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전체 에세이 중에서 한 번의 유머러스한 순간이 딱 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논픽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평적 분석이나 개인적으로 쓴 글에서도 조크 한 번이면 족하다. 하지만 유머를 사용한 그 순간이야말로 후에 독자들이 가장 애정을 갖고 기억하며 가장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과 같이 어두운 책에서도 유머러스한 순간은 있다. 록우드는 히스클리프 여사의 고양이에 대한 아침을 늘어놓으며 그녀와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 놈 잘생겼군.” 나는 다시 말을 붙였다. “부인, 새끼들을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그것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그 귀여운 안주인은 히스클리프보다도 더 통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아, 부인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은 이쪽에 있나 보군요!” 나는 고양이 같은 것들로 우글거리는 구석진 곳의 방석을 돌아보면서 말을 이었다.

“참 별난 취미시군요.”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다. 재수 없게도 그것은 죽은 토끼들을 쌓아 놓은 것이었다.⁵¹⁾

자,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생겼다. 모든 유머에는 비극적 요소와 잔혹성이 담겨있다.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 만일 이것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면, 유머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요약

◆독자들에게 가벼운 분위기 전환을 하고 등장인물에 다정함을 더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라.

◆혐오스러운 등장인물을 만들고 싶다면 그 또는 그녀가 유머감이 없게 하라.

이야기의 자료들

이야기는 경험과 상상력 이 두 곳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렇다, 이야기 쓰기는 그렇게 쉽다. 어떤 이야기들은- 전기, 자서전, 회고록- 제 1의 범주에서도 금방 나올 수 있지만 모든 소설은 위의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나온다. 가장 특이한 이야기들도 상상력의 산물로 시작 되었을 것이고 그 상상력은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J.R.R. 톨킨이 『호빗』과 『반지의 제왕』을 집필했을 때에도 그는 앵글로색슨과 핀란드인 그리고 노르웨이 신화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던 방대한 지식에 기반을 두었다. 루이스 캐롤과 J.M. 베리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피터팬』이 작가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캐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논리적 게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논리에 강한 흥미를 갖고 있던 탁월한 수학자였다.

"3월 14일인 것 같습니다."

모자 장수가 대답했다.

"15일이야."

3월 토끼가 말했다.

"16일이야."

겨울잠쥐가 토를 달았다.

"기록하라"

왕이 배심원들에게 일렀다. 배심원들은 각자의 석판에 날자 세 개를 열심히 받아 적

51)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하서(2010)

은 다음 날짜를 모두 더하더니 돈으로 환산했다.⁵²⁾

14살 때 죽은 형에 대한 베리의 비극적인 집착도 그의 글에 영향을 끼쳤다. 베리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그의 형은 영원히 열네 살에 머물렀고 그 모습은 피터팬과 꼭 닮았다.

이야기에 쓰이는 경험은 우리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것일 수도 있다. 그 경험들은 가볍고 순간적이거나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잊지 못할 기억일 수도 있다.

신문은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료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신문에서 잘라 둔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다.

방콕에 있는 한 남자가 스무 살 때, 그의 부모에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했지만 부모가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자 방에 틀어 박혔다. 그는 마흔 두 살이 되도록 방 안에 있었고, 그는 22년 동안 토라진 채로 지내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1991년 폴란드에서 금속 탐지기를 들고 25만명의 피해자가 묻혀있는 나치 수용소 장소에 있던 세 사람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땅에 시신으로부터 보석류를 훔치려고 했다고 전했다.

역시 1991년, 미국의 한 부부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첫째 딸에게 둘째 아이의 골수를 이식하기 위해 일부러 두 번째 아기를 낳았다.

6살에 어린 나이에 윌리엄 왕자는 수영장에 있던 다른 어린이들과의 난투극에 휘말려들었다. 경비들은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고 서둘러 아이들을 떼어 놓고 곧바로 왕자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미국의 달라스 시는, 공화당의 정치 회의를 주최하며 모든 부랑자들과 노숙자들이 거리 풍경을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모두 모아서 시에서 숙박비를 지급하는 호텔에 그들이 머무를 방을 예약했다.

퀸즐랜드에 사는 한 남자가 몇 잔의 술을 마시고 볼링 한 게임을 치고 나서 클럽에서 3 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 못 하지만 110 킬로미터를 달려 탄광에 도착해서 또 다시 갱로 안으로 600미터 가량 들어갔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작업을 하러 들어온 광부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발견 당시까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인도네시아 해안에 있는 돌고래 학교가 난파한 배의 선원들이 안전하게 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밤새 조금씩 움직이며 인도했다.

52) 루이스 케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인디고(2007)

어느 미국인 한 명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클랜드 지역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에 도착하는 바람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탑승 안내 방송을 잘못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르시카에서 있었던 축구 경기에서 한 관중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골대로 공이 굴러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상대방이 득점 하지 못하도록 권총을 꺼내서 공을 쏘았고 경기는 갑작스럽게 종료 되어버렸다. 그는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위의 기사들은 모두 사실이고 평판이 좋은 신문에 보도 되었던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어떤가?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기이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다. 아직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한 기사는 하나도 없지만, 내가 사용한 기사들도 매우 많다. 내가 쓴 소설 중 『할 말이 많아요』와 『나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두 부분적으로 신문 기사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다. 『할 말이 많아요』는 총에 맞아 얼굴이 망가진 케이 네스빗의 용기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신문만으로는 충분한 글쓰기의 자료가 될 수 없다.

좋은 작가는 관찰력이 있는 작가이고, 관찰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항상 광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학교에는 항상 이야깃거리가 가득하다. 내가 한 때 근무하던 학교에서 남학생이 병으로 열 네 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다. 슬프고 끔찍한 일이었다. 얼마 후 학교는 죽은 남학생을 위한 추모식을 올렸다. 죽은 학생의 친구 두 명이 추모식에 도착했지만 한 선생님은 두 친구가 교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역시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가르치던 남학생 중 한 명이 정신장애를 갖고 태어난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신생아 시절부터 이 소녀는 교외에 사는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는데 그 결과, 그 남학생과 여동생은 서로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자랐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근무했던 한 기숙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두 명이 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가 창문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의 형상을 사람의 얼굴처럼 대하는 모습을 좋아했다. 소녀들은 그것을 맥스라고 불렀고 맥스는 어느새, 소녀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었다. 소녀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상상물을 무서워하기도 했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나는 이 맥스를 소설 『아웃 오브 타임』에 사용했다.

소소한 이야기들과 거창한 이야기들 모두 중요한 자료들이다. 그냥 무턱대고 전쟁, 열정적인 로맨스, 영웅의 투쟁, 폭탄의 폭발처럼 상당히 극적인 사건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글의 뼈대로 이런 사건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당신에게는 소소한 이야기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앤 타일러처럼 몇몇 작가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상세히 묘사해서 훌륭한 책들을 쓰기도 한다. 내가 소소한 이야기들을 모으는 이유는 내 소설에 색감과 깊이를 더하고, 이야기의 배경을 채우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애나라는 소녀가 중학교 등교 첫 날 열 손가락에 각각 다른 색깔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왔던 일은 나로 하여금 소설, 『위대한 가텐비』에서 '멜라니'라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멜라니가 처음으로 책에 등장하는 부분에서 나는 멜라니가 기백이 넘치고, 화려하고 거친 인물로 그려지기를 바랐다.

"두 번째로,"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느 여학생 한 명이 손가락 마다 다른 색깔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곳, 린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교실 한가운데에 있는 의자 팔걸이에 앉아있는 한 소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부모님들은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소녀는 바로 사감선생님의 눈을 쏘아보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와 사랑에 빠져버렸다.

"여러 가지 색깔 매니큐어가 어쩐다는 거죠?" 라고 그녀가 물었다. 교실은 웅성거렸다. 나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더 이상 그녀와 사랑에 빠져 있을 수 없었다.

평소에 초록색이었던 사감 선생님의 얼굴은, 화산재처럼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사감 선생님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지금 지면 그것은 곧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는 순간이었다. "그건 이 곳 규칙 중 하나예요."라고 결국 사감 선생님이 말했다. 그는 젖다.⁵³⁾

손톱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수집했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나는 불어 수업 시간 동안 손톱을 수정펜으로 칠하고 빨강, 파랑, 하얀색 펜으로 꾸미고 나온 한 여학생과 마주쳤다. 소소한 이야기란 어떤 한 순간이나 빠르게 스치는 이미지, 잠깐의 응시와 같은 것들이다. 내 공책에서 또 하나를 꼽자면, 어느 날 한 소년이 창문에 붙어 있는 파리를 손으로 때려죽이려고 했던 일이다. 소년은 파리를 죽이기는 했지만, 너무 세게 창문을 손으로 친 나머지 창문도 부숴버린 것이다.

파리에 대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는 내가 멜버른에서 청중들에게 연설을 할 때였다. 모든 사람들은 말 할 때 침을 튀기는데 나도 예외는 아니다. 연설 중 어느 한 문장의 중반쯤 말했을 때, 내 침 한 방울이 입속으로부터 날아가서 마침 내 앞을 지나가던 똥파리 한 마리를 정확히 맞춰서 떨어뜨린 것이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연설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뺨을 잃고 똥파리를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10년을 꼬박 연습했다한들 이번처럼 완벽하게 명중시킬 수는 없었을 거야.' 그동안 똥파리는 테이블 위에 대자로 뺨아서 어리둥절하고 약간은 충격을 받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청중들은 이 일을 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내가 왜 연설을 멈추고 테이블 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몇 초 후, 나는 정신을 차리고 연설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똥파리를 잊지 못한다.

53) 국내 미 출판 서적, 역자 번역.

얼마 전에 나는 멜버른에 있는 고급에 값 비싼 신발가게에 갔다. 내가 평소에 즐겨 가는 타입의 가게는 아니지만 나는 충동적으로 그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새 신발을 살 때 통과하는 보통의 단계를 거쳐 갔다. 어떤 단계인지 당신도 잘 알 것이다. 신발을 한 짝 또는 두 짝 다 신어보고 시범으로 가게 안을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정도 걸어보는 것이다. 나는 걸어 다니면서 신발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바지의 무릎 밑 부분이 커다랗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했다. 이걸 도대체 뭘까? 신발 알려지? 암인가? 나는 내 다리를 보기 위해 한 쪽 발로 중심을 잡고 섰다. 청바지를 입고 있을 때 한 쪽 발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전날 밤, 나는 모두가 그러는 것처럼 한 번에 청바지와 사각팬티를 같이 벗었다. 오늘 아침 나는 새 팬티를 입었고, 그 위로 어제 입었던 바지를 입었다. 하지만 어제 내가 벗어놓은 팬티는 아직 바지 안에 있었던 것이다! 더 심각한건 내가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몇 센티미터씩 그 팬티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다음 여섯 걸음을 내딛는 동안에는 가게 안에 깔린 두꺼운 카펫 위에 팬티가 놓여 질 상황이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당연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신발 진열대 뒤로 가서 내 다리를 더듬기 시작했고 이것 역시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나는 팬티를 찾았고, 그것을 잡아서 빼낸 다음 얼른 주머니 속에 넣었다. 하지만 나는 주머니 속에 팬티를 집어넣으면서 위를 올려 보았다. 내게 신발을 팔던 여자가 카운터 뒤에서 목을 길게 빼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줌도둑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신발 가게에서 팬티를 휘날리기를 좋아하는 종류의 변태로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웃을 수 있게 된 지는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웃어넘기기에 너무 수치스러운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 일의 웃긴 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유머러스한 건 아니다. 내 친구들의 친구 중 한 명은 판사였다. 그 판사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았다. 내 친구들은 어느 날 밤,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판사로서의 직업을 즐겼나?" 라고 그들이 물었다.

"아니," 판사가 버럭 하며 말했다. "나는 판사로서의 매 순간이 싫었네."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판사 일 대신 뭘 하고 싶었나?"

판사는 "의학.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난 의사가 되고 싶어 했었어."

"그럼 왜 의학 일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내가 판사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 말고는 어머니를 만족 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네."

왜 사람들이 특이한 이야기에 끌리는 그 이유는 설명하기 힘들다. 그리고 물론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효과 있는 이야기에 포함되는 두 가지 요소를 파악하는 일은 가능하다.

1. 강력한 감정을 포함한 이야기는 항상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위에서 인용했던 두 개의 일화에는 분명 강한 감정이 들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당황스러움이, 두 번째 이야기에는 증오와 슬픔이 서려 있다. 강력한 글을 쓰고 싶어질 때에는 강한 열정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던 때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자신이 이룬 성과로 인해 특히 자랑스러웠던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를 느꼈을 때, 강한 연민을 느꼈을 때,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했던 때 말이다. 위와 같은 경험만을 묘사해도 거의 대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하지만 그 글은 물론 논픽션이 될 것이다).

누군가 내게, 의기양양함에서부터 두려움까지, 갈망에서부터 분노, 공감까지 아우르는 인간 감정의 목록을 건네준 적이 있다. 목록에는 140개의 각기 다른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가 다 떨어지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

2. 지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나 지위를 얻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도 강력하다. 내가 이번 섹션에서 다룬 일화들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 지위를 위한 몸부림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유리창에 있는 파리를 손으로 때려잡으려고 했던 소년의 이야기가 있었다. 소년이 파리를 짓누르려고 했던 것은 그가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크고 강하며 (파리에 비하면) 그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행동하고 있다. 소년이 파리를 후려칠 때 그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축소판이 된다. 하지만 잠깐 뒤, 창문이 깨지면서 그는 서투른 얼뜨기로 전락한다. 소년의 지위는 갑자기 파리만큼의 작은 존재로 추락하는데, 그 지위는 정말 낮은 것이다. 우리 문화에서 죽은 파리들이 그들의 지위를 즐긴 적은 없지 않은가(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왜 이야기 속에서 지위의 변화가 그토록 인간에게 매력적인 것일까? 지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추가 자료들

동물 이야기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들을 가

지고 있는 것 같다. 누구라도 개, 고양이, 말, 태즈매니안 타이거⁵⁴⁾나 다른 생물을 기르거나 관찰해본 적 있는 사람은 적어도 동물에 관한 글 한 편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될 것이다. 라이스라는 한 소년이 쓴 글 중에서 나는 개가 나오는 부분을 좋아했다. 라이스의 개에게도 어느 덧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던 것 같다. 그래서 라이스의 엄마는 개를 차 조수석에 태우고 목줄을 좌석의 윗부분에 고리모양으로 감아놓고, 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창문을 조금 내리고 병원으로 출발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녀도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자동조종 장치' 설정을 했고 라디오를 들으며 교통상황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고 생각했던 것은 수 킬로미터 전이었다. 그녀가 보았을 때, 그녀는 개가 사라진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목줄은 조수석 위에 묶여 있었지만 개는 없었다!

그래서 라이스의 엄마는 당연히 사이드 미러를 보았다. 그리고 거울로 개가 빨리 달리는 자동차 프로펠러의 후류에 의해 시간당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끌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연결고리에 목줄이 여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였다. 당연히 그녀는 차를 세우고 뛰쳐나가서 개를 구했다. 라이스에 의하면 개는 아무 탈도 없었지만 아직도 자동차를 타고 나갈 기회가 생기면 그 때와 같은 열정으로 반응한다고 했다. 아마 라이스의 개는 그 때의 경험을 아주 즐겼던 것 같다. 아마도 행글라이딩이나 수상스키를 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라이스의 개가 아주 멍청하던지 말이다.

부상

동물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부상과 질병에 대한 풍부한 양의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쳤던 일, 또는 다칠 뻔 했던 일은 쉽게 잊을 수 있는 기억이 아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스케이트보드나 말 또는 서핑보드에서 떨어지는 일,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 교통사고를 당했던 일, 손을 베었던 일, 뼈가 부러지거나 피를 흘렸던 일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매우 드물며 그는 아마도 삶을 너무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죽음

이야기의 또 다른 좋은 자료는 죽음이다. 죽음에 대해 쓴 글이 지루해지거나 실패작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죽음은 그렇듯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읽고 우리가 죽음과 직면했던 일을 기억하고,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

만일 내가 죽음에 관해서 완벽에 가까운 묘사를 하는 호주 작가를 지명해야 한다면

54) 유대목(有袋目) 주머니고양이과의 포유류. 싸일러쥘(Thylacine) 혹은 태즈매니안 늑대(Tasmanian Wolf)로도 불리우며 학명은 Thylacinus cynocephalus다. 태즈매니안 타이거(Tasmanian Tiger)로 불린 이유는 등에 나 있는 호랑이무늬 때문이었다. 몸길이 100~130cm 에 꼬리길이는 50~65cm에 이르렀고, 현재는 완전히 멸종된 동물이다.

나는 덩불 속에서 사라진 뒤 사망한 어린 소녀에 대한 설명을 했던 톰 콜린스를 선택 하겠다. 소녀의 이야기는 그의 소설 '그것이 인생'의 8장 중반쯤에 나온다.

가여운 덴! 그는 아이처럼 조용히 울면서, 그러면서도 흠뻑 젖은 담요 밑에 있는 작은 형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내내 유람마차의 뒤를 따라 걸어왔다. 그는 슬픔에 잠겨 있다! 그는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전에 소녀가 그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 만일 그가 100살이 될 때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는 소녀의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⁵⁵⁾

비단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동물의 죽음도 기록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 A.B.페이시의 『A Fortunate Life』에 나오는 '돼지죽이기'는 호주의 숲 속 삶을 잘 그려낸 고전이다. 경험이 없는 작가에게도 기니피그에서부터 금붕어에 이르기 까지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의 죽음도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글의 분위기는 굳이 침울할 필요도 없다. 사람은 각자 죽음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가질 수 있다.

경험을 사용하는 방법들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니면 스무 다리를 건너서든, 누구나 몇 천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글쓰기에서 어떻게 그 경험들을 사용할 것인가에 있다.

경험을 글로 쓰는 것은 평균 길이의 학교 과제물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의 경험을 골라서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 써보자.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다. 만일 좀 더 정교하게 해보고 싶다면 당신이 생각해 볼만한 제안이 이 책에 많이 있다.

소설을 쓰는 장기간의 작업은 더 복잡할 수 있다. 많은 소설들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긴' 이야기들과 어쩌면 수백 개의 작은 이야기들로 서로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다.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는 핀치가 사람들의 극적인 시기의 이야기인 동시에 톰 로빈슨이 겪은 학대와 죽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소설은 부 레이들리의 슬픈 인생 이야기이다. 이 세 가지의 거대한 이야기는 책의 매 페이지마다 교차하고 또 다시 교차한다. 그리고 소설 안에는 소소한 이야기들도 있다. 딜의 유년시절, 돌퍼스 레이몬드의 신비한 삶, 잭 핀치 삼촌과 마우디 여사의 시시한 연애, 그리고 켈롤린 피셔 선생님이 첫 번째 과제물을 낼 때의 힘겨움과 듀보즈 여사의 쓸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앵무새 죽이기』에 나와 있는 수백 가지의 사건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보는 것도 재미있는 연습(아마 그럴 것이다)이 될 것이다. 톰 로빈슨이 받은 학대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말하자면, 사촌

55) 국내 미 출판 서적. 역자 번역.

아이크 핀치 삶까지 말이다.

만일 사춘 아이크가 누구인지 기억 못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소설 전체에서 그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문단 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도 거창한 이야기들과 같이 소설 전체 구조의 성공을 보장하게 된다. 빌딩의 벽돌 하나하나는 토대와 골조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를 집필했을 때 나는 주인공 트레이시와 맨디의 두 개의 삶을 주요 이야기를 사용 했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이야기는 막 기숙 학교를 졸업한 열여덟 살의 소녀 한 명과의 대화로부터 시작 되었다. 내가 소녀에게 이제 학교를 떠나서 집에서 보낼 시간이 있어서 좋겠다고 천진하게 묻자 그녀는 반박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오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오빠는 너무 난폭한 나머지 싸이코 패스 같았다. 그녀는 오빠와 단 둘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나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았다.

그 후에 나는 갑자기 집에서 나와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던 한 소녀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었다. 한참 후에 나는 소녀의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가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소녀는 십대 중반이 되어서야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의 어머니를 죽였고 그래서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내게 강한 충격을 주었고 역시나 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동시에 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만들어내는 판타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못 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한다. (우리 모두 그런가?)

내가 여러 가지 기관에 매료된 이유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런 장소에는 병원, 교도소, 학교(특히 기숙학교)처럼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은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요소들과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숙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잠재의식이 그 작업을 하도록 놔둔다. 몇 달 동안, 나는 정원을 돌보거나 빅토리아 주 주변을 운전하거나 개를 산책 시킬 때에도 서로 다른 이야기와 생각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놔두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나는 정확히 어느 지점에 내가 서 있었는지 가리켜 보일 수도 있다) 내가 원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가 떠올랐다. 책에서 사용하지 않을 아이디어들은 모두 사라졌고, 나는 비로소 이야기가 전개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쇠스랑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소소한 이야기들을 잊지 말 것! 소소한 이야기들이야말로 말로 완성된 이야기에 색감과 풍성함을 더해준다. 그 이야기들은 주요 줄거리만큼이나 중요하다.

요약

- ◆ 관찰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 ◆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수집해라.
- ◆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라.
- ◆ 지위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라.
- ◆ 동물, 질병 그리고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강력할 수 있다.

상상력

글쓰기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상상력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꼭 필요한 요소이다.

세계 골프 선수 중 순위 1위를 기록한 그렉 노먼은 몇 년 전, 불가능해 보이는 샷을 쳐야 했다. 골프공과 홀 사이에 돌이 있어서 그의 접근을 완전히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를 토너먼트에서 유리한 위치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노먼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홀을 등지고 서서 공을 반대 방향으로 쳤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 한 것을 보았고 그것은 당구에서처럼 두 번째 돌의 한 면에 맞은 공이 튕겨져 나와서 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TV 해설자들은 감탄했고 나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건,” 이라고 해설자 한 명이 외쳤고, 이어서 “아주 엄청난 상상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웨스턴 볼독 풋볼 팀에 테리 휠러가 새 코치로 부임했고 그는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다. 시즌의 중반쯤에, Age 신문은 그의 성과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이 문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테리 휠러가 그의 젊은 팀에게 어필 할 수 있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상상력 이었다.’

작가 존 버거는 『행운아』 라는 에세이에서 존 사살이라는 의사의 삶과 직업과 철학을 살펴보았다. 독자들은, 사살이 정말 행운아이고 자기 일에 대한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버거는 사살이 좁은 시야를 가진 의사에서 놀라울 만큼 폭넓은 세계관을 갖게 되는 진화를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상상력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상상력을 탐구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수준의 상상력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의 상상력이 우선 첫 번째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관찰력이 흐트러질 것이고, 그 다음이 그의 환자들의 상상력이었다.’

당신의 야망이 어떤 것인지는 상관없다. 아마 당신은 프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의사, 농부, 미용사, 요리사, 선생님이나 정원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다.

당신이 상상력 없이 접근 했을 때 이런 직업들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제한된

성공밖에 이를 수 없을지 상상 가능한가? 어떤 분야에서든 정상에 오른 사람 중에 상상력 없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는가?

그렇지만 당신의 포부에 상상력을 조금 더 확장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포부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사랑하는 사이에서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와 같은 도전 과제에 상상력을 더 많이 붙여넣으면 붙여넣은 만큼 당신은 성공할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더 좋게 반응해 줄 것이다.

글쓰기에서 상상력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그건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상상력의 한 가지 요소가 여기 있다. 상상력이란 이런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무엇,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약물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약물을 복용하고 할 수 있는 상상만큼, 아니 그 보다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내 상상력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면 그것이 내 상상력을 변하게 하거나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런 가능성을 원치 않는다.

'다른 사물이 된다는 것...' 이것은 마치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당신은 연습과 집중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사용하지만 나는 그렇게 체계적인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이 되거나 다른 장소, 다른 시간 속에서 생각 할 수 있다. 당신은 16세기 프랑스의 여덟 살 아이나, 오늘 날 도쿄에 사는 마약 밀매상이나, 2050년에 짐바브웨에 있는 할머니가 되어 설득력 있게 글을 쓸 수 있다.(물론 사실적 지식이 상상력과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지식들은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한 번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설득력 있게 글을 쓸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애나 슈얼이 『검정말 이야기』에서 말이 될 수 있었으며, 데이비드 말로프가 어떻게 『이미지너리 라이프』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로마의 시인이 될 수 있었으며, 폴 제닝스가 어떻게 『검나무 잎 전쟁』에서 코가 7센티미터나 되는 소년이 될 수 있었을까.

요약

- ◆ 상상력은 당신의 인생을 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풍부하게 할 것이다.
- ◆ 설득력 있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당신의 등장인물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유체이탈'의 경험이 필요하다

효과적 언어 사용

과연 나쁜 문장이라는 것이 있을까? 다음 문장은 어떠한가?

내 마음 산산조각 났고 나는 씩씩한 흐느낌을 울었다.

그렇다, 이것은 끔찍한 문장이다. 하지만 왜 그럴까? 위의 문장으로 돌아가서 ‘강력한’ 단어들에 번호를 적어보아라. 적어도 네 개의 강력한 단어가 있다. 산산조각 나다, 울다, 쓰다, 흐느끼다. ‘마음’이라는 단어도 강력한 단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실패한 것이다. 이 문장은 너무 많은 강력한 단어들 아래 깔려서 신음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아마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그렇겠지만 강력한 단어들은 많이 있다. 강력한 단어들을 모두 함께 사용할 수는 없다.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숨을 쉴 수 있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단어들은 마치 닭장 안에 있는 수탉처럼 죽을 때까지 서로를 쪼아 먹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은 구절이 여기에 있다. 이것은 좋은 문장인가?

예수는 울었다.

‘울었다’라는 강력한 단어에는 문장이 효과적일 수 있기에 충분한 공간이 할애되어 있다.

영어로 글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너무 많이 쓴다. 글을 너무 많이 쓰는 이유는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나는 무서웠다.’ 나 ‘그는 울었다’와 같은 문장은 독자들에게 충분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984년에 호주 전쟁 기념관은 『전장(戰場)에서의 호주인들』이라는 제목으로 87년에 거쳐 여러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과 여군들의 사진을 선별해서 펴냈다. 이 책의 편집자들은 50만 장의 사진 가운데서 책에 실을 사진을 골라야 했다. 그들은 그 중에서 200여장의 사진을 골랐지만 매 페이지의 작은 여백마다 사진으로 채워놓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각 페이지마다 한 장의 사진이 들어갔고 어떤 페이지에서는 하얀 공간의 크기가 사진의 크기보다 더 컸다.

사진에서도 그렇지만 단어에서도 그렇다. ‘적을수록 많다’라는 말은 언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설인 것이다. 한 문장에 한 단어, 한 문단에 단어 한 개나 두 개, 에세이 하나당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의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하면 적당하다. 강력한 단어들은 남겨 두었다가 최적의 때에 사용하라. 체호프는 “독자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싶다면 더 냉정해져라”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설파 했던 대로 실행에 옮겼다.

체호프는 그의 캐릭터 중에서 미스 N.N. 이라고만 나오는 여성을 통해서 사랑과 젊음의 소멸, 그리고 인생 그 자체에 대해 썼다. 그녀가 젊었을 적, 어느 격렬하고 열정적인 밤, 피터 세르게이라는 청년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 연애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나의 아버지는 죽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나를 기쁘게 해주고, 어루만져 주고, 희망을 주었던 모든 것들-빛소리, 우르릉 울리는 천둥소리, 행복한 상상, 사랑의 말들-은 이젠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앞에는 평평하고 텅 빈 광야가 있을 뿐이다. 광야에는 살아있는 영혼이라고는 하나 없고, 멀리 보이는 수평선 위에는 어둡고 지독한...

그 땐 종소리가 들렸다. 피터 세르게이가 날 보기 위해 왔던 그 때에는. 나는 전원의 겨울을 보며 초록으로 태어났던 여름의 전원을 떠올릴 때 “오, 나의 사랑들!”이라고 속삭인다.

그리고 나와 함께 봄을 지냈던 사람들을 볼 때면, 나는 슬프고 또 따스해지면서서 같은 말을 속삭인다.

오래 전,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마을로 보내졌다. 그는 어쩐지 늙어버렸고 왠지 더 야위어 버렸다. 오랜 전 그는 내게 전하는 사랑의 말을 멈추었고, 그는 더 이상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의 일을 싫어했다. 그는 어떤 병을 앓았고, 그는 무엇인가에 실망했으며, 인생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했고 존재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다. 그는 모닥불 옆에 앉아서 타오르는 불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신랄함, 인생의 적막함은 냉정하게 표현되었다. 작가는 그에게 주어진 감정적 공간을 모두 사용해 버리지 않았다. 체호프는 미스 N.N.의 텅 빈 존재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공간을 비워 두었다.

내가 만약 내가 쓴 책들 속에서 어떤 문장을 가장 자랑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온 두 단어로 된 문장이다. ‘세 개의 별.’ 이 문장은 트레이시의 독방에서 보이는 풍경을 묘사하는 문단에 쓰였다. 나는 손바닥 크기의 하늘만 볼 수 있는 그녀의 슬픈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숨기고자 하는 그녀의 성격의 한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강해보이고 싶었지만 우리는 그녀가 별이 있음을 알고, 그 수를 헤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별들이 그녀에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녀에게도 세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만일 이 문장을 읽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단어를 망가뜨리는 또 다른 방법은 수식어구⁵⁶⁾를 사용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에 나름대로 스스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인 단어들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보여서 그런 건지, 사람들은 그것들을 둘러싸기 위하여 몇 개의 단어를 더 갖다 붙인다. 다른 단어들에 강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 수식어구들은 단어들에 오히려 약화시킨다. Just(딱, 바로), very(아주, 매우), quite(꽤, 상당히), really(실제로, 진짜로), absolutely(틀림없이), arguably(거의 틀림없이), tremendously(엄청나게), extremely(극히) 는 큰 아쉬움 없이 영어라는 언어에서 페

56) 명사나 형용사 등등을 앞 또는 뒤에서 수식해주는 말.

기될 수도 있다. 'Id의 마법사' 라는 만화에 나왔듯이, "What is so pretty about soon?"이다. (so와 pretty와 about 과 soon 은 무엇일까?)

곧 비가 내릴 것 같았다.

비가 내릴 것 같았다.

두 문장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있는가? 만일 없다면, 단어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자.

우리는 정말 피곤했다.

우리는 피곤했다.

첫 눈에 보기에는 첫 번째 문장이 더 강해보이지만 나는 두 번째 문장이 주는 있는 그대로의 단순함이 마치 화강암으로 된 산처럼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겠다.

그것은 틀림없이 내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었다.

그것은 내 생애 최악의 순간이었다.

위의 예에서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첫 번째 문장이 더 강하다. 글쓰기에는 규칙이 없다. 어떤 글의 스타일에서는 수식어구가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모든 수식어구들이 제인 오스틴의 『앤마』에서처럼 가끔은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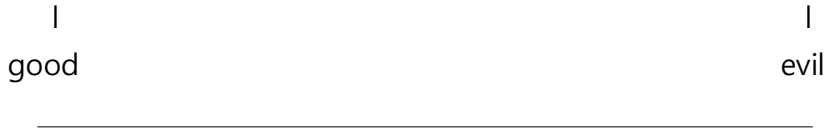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사랑에 깊이 빠져 있어. 모든 것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그것도 아주 깊은 사랑 말이야!⁵⁷⁾ 마찬가지로 나는 이전 페이지에서 '적을수록 많다'를 격언으로 인용했지만 어느 건축가가 공식적으로 '적을수록 따분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모든 작가들은 자신만의 목소리와 스타일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만일 영어를 하나의 연속체로 보면 훨씬 더 분명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Freezing Chilled Cold Cool tepid warm hot boiling

위의 나열된 언어 중 최고조가 boiling 이라면 우리는 이 단어에 수식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It was really boiling (정말 들끓고 있었어)라던가 'I'm absolutely

57)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북스캔(2007)

boiling(나는 정말 열이 나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라고 말한다 한들 'boiling'에 더 할 수 있는 의미는 없다. 'boil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계에 다다라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상으로 그 의미가 더 강해질 수 없다는 뜻이다.



만일 한쪽 끝이 evil로 설정되지 않다면,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전혀 논의거리가 되지 못한다.

범위 안에 다른 단어들을 넣어보자.



내가 쓴 책들 가운데서 『복수의 불꽃』을 위주로 집필 당시 직면했던 몇 가지 편집과제들이 여기 있다. 각 사례마다 괄호 안에 내가 문장에서 삭제 할 수 있었던 단어의 수를 적어 놓았다. (어떤 때는 아예 새 단어를 써야 했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최종 삭제 횟수를 나타낸다.)

They'll be able to hear you in Wirrawee. (3)

All I needed was to see a glimpse. (2)

I fired once and hit it, when the jeep was just ten meters away from it. (2)

I scooped up the thousand pieces, marched down to the gully and ceremoniously dumped the whole lot in there. (3)

Leaving the pack there I went forward ten meters and turned on the torch. (1)

People write for a lot of reasons. (2)

'I don't see the big harm in picking it up, ' Fi said. (2)

I had to be content with that, because there was no other way to explain it. (2)

During each of these interruptions we hid in the same truck. (2)

Did you find any? (2)

조지 오웰의 유명한 규칙 중 하나는, “한 단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작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라고 본다.

15년 전에 나는 어느 지혜로운 교장선생님은 우리가 “단어들을 자질구레한 임무를 수행하게 내보내는 통에 강력한 단어들이 끊임없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진정한 사상이었고 기품 있게 표현되었다. 만일 당신이 강력한 단어들의 저력을 음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우 흥미롭고 아름다운 언어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요약

- ◆ 강력한 단어들을 절약해서 사용하다-적을수록 많다.
- ◆ 수식어구의 사용을 최소화하라.
- ◆ 이미 경계점에 있는 단어들을 인식하라. 그 단어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스타일에 대하여

인색한 작가가 되어라! 당신이 현실 속에서 얼마큼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든. 글을 쓸 때는 당신의 인색한 면을 개발하라. 물론,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부분에서,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독자가 원하는 모

든 것을 넘겨줄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독자들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즐거워지고, 자극을 받고, 재미를 느끼고, 도전을 받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그들은 결코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못해 조금만 그렇게 해주고, 적은 분량만 건네주고, 그들을 기다리게 하라. 모든 것을 다 주면 안 된다. 당신이 쓰고 있는 장면이 강렬할수록, 이와 같은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다.

영어시간에 당신이 공부했던 명작들을, 당신이 책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시작하게 한 책들을 생각해보라. 그럼, 좋다, 만약 생각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어 선생님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책들을 생각해보자. 마일즈 프랭클린의 『나의 멋진 직업』에서 우리는 시빌라가 해리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책이 되었다.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에서 우리는 랄프와 피기(새끼 돼지)가 책과 로저, 그리고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기를 바란다. (어디가 아프지 않고 서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 로버트 코미에르의 『초콜릿 전쟁』, 폴 진텔의 『피그 맨』,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햄릿』은 모두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책들이다. 우리는 위의 모든 책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연민을 느꼈던 인물들의 파멸을 목격한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행복을 갈망했을까라도.

드디어 내가 현대 호러영화를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실망했다. 깜짝 놀라고 혐오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나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고 조금 지루하기까지 했다. (아마 그 영화의 제목이 '나이트메어 엘림 스트리트'였을 것이다.) 이 영화의 감독은 공포에 있어서 더 인색하고 절제된 자세를 보여줬어야 했다. 이 영화보다 더 효과적인 영화는 1948년에 나온 흑백영화 『올리버 트위스트』이다. 빌 사이크스가 낸시의 작은 싸구려 방에서 그녀를 죽을 때까지 때리려고 드는 장면이다. 이쯤에서 많은 감독들은 망치, 피, 낸시의 얼굴, 그리고 죽음까지의 과정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데이비드 린 감독은 연이은 장면에서 관객들로부터 진정한 공포를 유도해낸다. 우리는 빌이 우든클럽을 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낸시에게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영화는 빌의 개에게로 렌즈를 돌린다. 공포로 인한 착란 상태에 빠진 빌의 충성스러운 불테리어는 문 앞으로 계속해서 몸을 내던지며 도망가려고 한다. 빌이 저지른 범 죄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나머지 그의 개마저 주인을 두려워하며 같은 방에 있음을 못 견뎌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화가 몇 시간 후의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 새벽녘까지 클립으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다음 장면에서 빌과 개는 같은 방에 있지만 그 개는 이제 빌을 비난하듯 쳐다본다. 문이 열리자마자 개는 한때 충성을 바쳤던 괴물로부터 악을 쓰며 도망간다.

린 감독은 수 리터의 피를 보여주면서 관객들의 가장 싸구려 입맛에 힘없이 굴복하고 자기와 관객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그 길을 거부하고 한층 창의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었다. 그 결과, 그의 영화는 내가 보았던 영화 중,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되었다.

아무리 잘 쓴 책에서도, 심지어 좋은 사람들이 이기는 이야기에서도, 그들의 승리

는 불완전하다. 『맥베스』에 나오는 선한 승리도 그 이외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다. 『햄릿』에 나오는 선한 승리도 햄릿과 오페리아가 죽어버린 이후의 일이다. 미스터 하딩은 앤소니 트롤로페의 『더 워든』에서 고결한 일을 해내지만 그가 맡았던 병원은 타락하고 수감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현대물에서 몇 개의 예를 들자면, 페임 포퓰의 『내 이름은 에서 레브』에는 레브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룬 예술적 승리가 있고, 이안 세레일러의 『은검』에는 루드비히라는 개의 희생을 통해 승리에 이르지만 이후에 몇몇 어린이들이 감정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신시아 라일런트의 『친절』에서는 어린 여자아이의 출생이 하나의 관계를 치유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만다.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탄, 사랑, 흥분 등과 같은 감정들은 분출되기를 갈망하며, 우리는 작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책장 위에 그 감정을 쏟아 부어주길 바란다. 하지만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정들을 쏟아 부어내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그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독자들에게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작가가 우리의 감정들이 점점 고조될 수 있도록 허락 하면 할수록,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발산할 수 있는 감정은 더욱 강렬해진다.

여기 글쓰기에 대한 좋은 규칙 세 가지가 있다. 절제해서 말하기, 절제해서 말하기, 절제해서 말하기. 지난 섹션에서 말했다시피 작가는 언어에 대해서는 날카로워야 한다. 지금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인이 된 호주의 줄리아 맥크레이는 매주 평가를 받기 위해 도착하는 수많은 원고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에게는 검토해 볼 만한 원고를 결정하기 위해 정해놓은 몇 가지 테스트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책의 중간부분을 펼치고 대화부분을 찾아보는 것이다. 대화부분을 찾으면 그녀는 등장인물의 대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본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벌써 문제가 있는 원고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 그거야!” 그는 웃었다.

“초록색으로 된 것도?” 그녀가 질문 했다.

“응, “그가 말했다. “그것들도.”

“그래!”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전적으로 반대야.”

하지만 이런 구절은 줄리아 맥크레이의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다.

“그래, 그거야!” 그가 말했다.

“초록색으로 된 것도?” 그녀가 물었다.

“응, “그가 말했다. “그것들도.”

“그래!”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전적으로 반대야.”

두 번째 작가는 꾸밈없는 단어 '말했다'가 거의 대부분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두 번째 스타일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미국의 단편소설가 레이몬드 크레이버나 호주의 폴 제닝스를 찾아보면 된다.

많은 작가들은 형용사들 속에서 빠져서 뒹굴 거린다.

아름다운 파란하늘의 맑은 날이었다,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답게 쏟아지는 햇살 사이로 일렁이는 반짝이는 물이 춤을 추고 있었다.

웃지 않길 바란다. 나처럼 수많은 영어 에세이를 채점해 본 적이 있다면 웃을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쓰는 학생은 분명 누군가 잘못 가르친 것이다.

이런 경우는 효과를 내기 위해 너무 노력하다보면 생기는 결과다. 나는 토마스 핀천의 소설 한권에 나오는 이 첫 문장이 무리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내 말에 찬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느 때보다 좀 늦은 1984년의 어느 여름 날, 로이드 윌러는 창문에 걸려 조금씩 흔들리는 무화과를 비추는 햇살에 자신도 모르게 잠에서 깨어났고 지붕 위에서는 큰어치 비행중대가 발을 쿵쿵 구르고 있었다.

나는 핀천이 마지막 구절을 쓰면서 스스로의 영리함에 감탄했을 거라는 느낌이 든다. '창문'에서 멈췄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말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강아지가 침대위로 뛰어 올라와서 내 얼굴을 핥으며 나를 깨운다. 강아지가 내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을 때 나는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리하게 노력한 글 중 최악의 예를 원한다면 커플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신문에 낸 기사를 읽어보자.

아침 햇살 사이로 그녀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 한 줄기를 그녀의 귀 뒤로 넘겨주었다. 말들은 조약돌이 있는 시원한 개울처럼 흘러갔고, 웃음 가득한 눈으로 서로의 손을 어루만진다. 하루는 여름 산들바람의 속삭임처럼 흘러 가버린다. 둘이었기에. 우리는 이해합니다. 전화하세요...

아니다, 방에서 뛰쳐나가면 안 된다. 다른 것으로라도 마음을 진정시키길 바란다. 예를 들어 촌충 생각이라도 해보길 바란다.

스타일의 또 다른 요소는 반복을 사용하는 것이다. 분명 모든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복을 사용한다.

Cannon to right of them (그들의 오른쪽으로 대포를)
Cannon to left of them (그들의 왼쪽으로 대포를)
Cannon to front of them (그들의 앞쪽으로 대포를)
Volleyed and thundered. (집중 투하하고 우르릉 거리며 질주했다)
Stormed at with shot and shell, (실탄과 유탄 속으로 기습하여)
Rode the six hundred. (600 을 타고 지나갔다)
Boldly they rode and well, (그들은 대담하게 솟구쳤다)
Into the Jaws of Death (사지로)
Into the Mouth of Hell...(지옥의 입구로)

이상은 테니슨이 묘사한 크림전쟁 중 경기병대(輕騎兵隊) 치명적 돌격이다.

반복은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반복은 신중한 판단과 함께 사용 되어야 한다. 너무 자주 우물에 가면 안 된다. (Don't go to the well too often.) 반복을 너무 많이 반복하면 안 된다. 마틴 루터 킹은 반복을 알맞게 사용했다. 워싱턴 기념비 앞에서의 그의 유명한 연설을 한 번 들어보자.

반복을 사용할 때 '속임수' 중 하나는 의미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을 다양하게 사용 하는 것이다. 독자들이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을 갖고 잠잠해지는 순간 - 이런 상황은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당신이 사용하던 반복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책 나갈래?"

"아니."

"비디오 볼래?"

"아니."

"바닷가는?"

"아니,"

"로버트 만나러 갈래?"

"아니, 절대로! 나는 그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우리가 또 다른 '아니' 를 기대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한 표현으로 인해 안주하고 있던 마음이 깜짝 놀라게 된다.

알려주지 말고 보여주기

초등학교 시절, 'Show-and-Tell' 수업을 충실히 들었다면 이 타이틀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알려주지 말고 보여주기'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줄 때 신비함과 함께 주는 단순한 방법이다. 순진한 작가들만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준비된 패키지를 넘겨준다. 중요한 내용들은 세심하게 배열하여 보여주는 것이 독자들이 행간을 뜻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훨씬 낫다. 다음의 나오는 예를 생각해보자.

나는 어느 날, 포트 화이트헤드에 있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내 이름은 루시고 나는 열네 살이며 가족과 함께 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매년 그러하듯이 엄마, 아빠 그리고 두 명의 오빠와 함께. 그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내 친구 조를 만나고 싶어서...

이 글은 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따분한 글이다. 작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다. 그냥 TV나 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 글과 비교해보자.

전화벨이 울린다.

“브론?”

“네, 풀이죠?”

“이번엔 암말이에요. 또 쓰러졌어요. 오실 수 있나요?”

“말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나요?”

“아니오, 그 반대예요. 선생님, 빨리 좀 와주시겠어요?”

나는 첫 번째 예보다 이것이 좀 더 재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속임수를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 아직까지 별로 없기 때문에 흥미로운 예다. 벌써 우리는 꽤나 많이 알고 있고 바로 그것이 이런 접근법의 매력이지만 우리는 계속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우리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우리는 우리가 찾는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브론'이라는 수의사가 풀이라는 남자와 꽤나 친밀한 사이이며(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낸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친하지는 않게(그는 한 순간 그녀를 '선생님' 이라고 부른다) 지내면서 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사는 대개 이야기를 보여준다기 보다는 말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된다. 최악의 경우는 동의어 반복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 쳤다.

그가 화나 있다는 건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사랑해,” 그는 낭만적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도전 의식을 복돋우는 글쓰기 연습은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몇 개의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세부사항을 독자들에게 미묘하게 전달하는 글의 첫 부분을 시작해 보아라.

Its winter, 1942; Sydney, Australia; the main character in your story is a newspaper vendor aged about sixteen who has a brother and a sister in the armed forces.

Or:

It's 2050, in Africa, and your main characters are two prisoners in an old jail block. They're a married couple with strong religious beliefs. The woman is pregnant.

Or

A contemporary story in an overseas city of your choice. Your main character is a divorced police officer with a child. The child has been caught shoplifting. The police officer's chief interests are swimming, music and old movies.

여기 전문 작가가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다. 마가렛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의 첫 부분이다.

우리는 한때 체육관으로 썼던 곳에서 잠을 잤다. 래커 칠을 한 바닥 위엔 한때 그곳에서 열리던 경기들을 위한 직선이며 동그라미들이 그려져 있었다. 농구 그물은 없었지만 링은 여전히 제자리에 달려 있었다. 실내를 빙 둘러 관중석으로 쓰던 발코니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 추잉검의 달콤한 흔적과 관전하는 소녀들의 향수 냄새, 그 속에 어우러진 자극적인 땀 냄새의 흔적이 희미하게 코끝에 닿았다. 사진을 보면 여자 아이들은 처음에 펠트 스커트를 입다가, 나중에는 미니스커트를, 그 다음에는 바지를 입었고, 훨씬 더 훗날에는 한 쪽 귀에만 귀걸이를 하고 머리에 요란한 초록색으로 군데군데 물들인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 댄스파티도 열렸을 법한 곳이었다. 음악의 여운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머무른다. 덧쓰고 지우고 그 위에 다시 덧쓰는 양피

지의 글씨처럼 영영 들리지 않은 소리들이 겹겹이 포개어져 있고, 스타일 위에 스타일이 겹치고, 나지막히 깔리는 드럼소리, 허허로운 흐느낌, 휴지로 만든 꽃다발, 마분지로 만든 악마들, 춤추는 사람들 위로 빛의 눈발을 흩뿌리며 빙빙 돌아가는 유리의 공들.⁵⁸⁾

모든 훌륭한 시작 부분은 정답 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한다. 에트우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그녀의 시작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특히 한 때 체육관에서 농구를 했던 소녀들의 스타일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뀌는 모습의 묘사는 그녀의 빼어난 감각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야기의 배경이 미래로 설정되어 있고 화자가 매우 민감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해두지만, 레오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에서 그랬듯이, 많은 작가들이 '현재'의 상황으로 오기까지의 직접적인 설명으로 책을 시작하기도 한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했고, 불행한 가족은 제 나름대로 불행하다.

오블론스키네 집에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집에서 일하던 프랑스 인 가정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와 한 집에서 살 수 없노라고 선언했다. 이 상황은 벌써 사흘째 계속되고 있어 부부는 물론 전 가족 그리고 하인들도 괴로워했다. 모든 가족과 하인들은 그들이 함께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한 여관에 우연히 들른 사람들 사이라도 오블론스키 가족과 하인들보다는 틀림없이 더 가까운 관계일거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남편은 사흘째 집을 비웠다. 아이들은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처럼 온 집안을 돌아다녔다. 영국인 가정교사는 가정부와 다투고 나서 친구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 새 일자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요리사는 어제 바로 식사 시간에 집을 나가 버렸고 찬모와 마부도 집을 떠나려고 급료의 정산을 요구했다.⁵⁹⁾

최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짧은 요약으로 이어지는 선이 굵고 인상적인 (그리고 유명한) 첫 문장이 여기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독자들이 최근 상황까지 따라오게 되면 이제야 비로소 책인 진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오프닝은 서막과 같다.

비단 오프닝에서만이 아니고 책 전반적으로 'show don't tell' 은 유용한 모토이다. 아마 이 모토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면, 완곡어법 부분에서 내가 인용한 토마스 하디의 『더버빌가의 테스』 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요약

58) 마가렛 에트우드, '시녀 이야기', 황금가지(2002)

59)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작가정신(2009)

- ◆ 인색할 것.
- ◆ 냉정할 것.
- ◆ 절제할 것.
- ◆ 꾸밈없는 영어가 최고다.
- ◆ 부사 사용에 신경 쓸 것.
- ◆ 보여주기만 하고 알려주지는 말 것.

시시한 말

시시한 말 대회에서 경쟁을 하던 두 사람에 관한 조크가 있다. 두 사람은 유명한 아트 갤러리에 들어간다. 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세상에, 저 그림 좀 봐,” “정말 대단한 걸.” “맞아,”라고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고 그는 이어서 “그리고 작품에서 빛이 나네.” 라고 말했다.

너무 웃긴 코미디이지 않은가? 자, 진정하고, 우선 눈물부터 좀 닦고 방광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때 다시 방광을 눌러주겠다.

여기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시시한 말은 따분하다는 것이다. 이야기에서 무엇을 빼야 하는 지 아는 것은 이야기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 지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시시한 디테일은 빼도록 하자.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아무도 아침식사로 뭘 먹었는지 구구절절 읊어대는걸 원하지 않는다. 만일 채식주의자가 아침으로 튀긴 양고기를 먹었다면 그건 재미있는 이야기다. 아니면 어느 불행한 사람이 아침을 먹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다. 아침에 토스트와 커피를 마시며 언쟁이 시작 되었다면 또 모를 일이다.

어떤 사람은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규칙에도 몇 개의 유명한 예외의 경우가 있다. 제임스 더버의 유명한 단편 『월터미티의 숨겨진 삶』이 그 예다. 미티는 소설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서 가장 시시한 캐릭터 중 하나지만 우리는 미티가 백일몽을 통해서 그의 단조로운 일상으로부터 탈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티의 백일몽도 단조롭기는 하지만 더버의 이야기는 미티가 평범한 남자들 중 한 사람이며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뒤틀리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

브라이언 무어의 책 『주디 허른의 외로운 열정』에 나오는 허른은 따분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그녀의 가여운 몸부림, 특히, 그녀의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에 집중하게 된다.

더 많은 경우에, 작가들은 등장인물들에 특별한 개성을 부여해서 재미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낸다. J.D. 셀린저의 『목수들이 대들보를 높이 올려라』에 나오는 거의 모든 형제들은 책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어른으로 나온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보기 드문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공영방송의 어린이 퀴즈쇼의 고정 게스트였다.

폴 진델은 『더 피그맨』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농담하기를 좋아하고 장난감 돼지 모으기가 취미인 미스터 피그나티(pignati)라는 인물을 만들어낸다. 글렌다 아담스의 『댄싱 온 코럴(산호 위에서의 춤)』에서의 주인공은 특이한 이름 ('라크')을 가졌을 뿐 만 아니라 책이 끝날 때까지 내내 결국은 스스로 해외로 보내게 되는 상자를 만드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변화를 주기 위해 작가는 범상치 않은 상황 속에 있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다. 네덜란드 작가 헤리 물리시의 『The Assault』에 나오는 안톤 스톤직이라는 캐릭터는 무덤덤한 캐릭터이지만 그가 열 두 살일 적에 나치에 의해 그의 가족이 섬뜩한 경험을 했을 때의 이야기는 결코 무덤덤하지 않다. 물리시는 이 책에서 그 때의 경험이 스톤직의 인생에 드리운 그림자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찰스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에서 '핍'이라는 인물보다 더 무미건조한 인물은 거의 없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아무리 시시한 캐릭터라 할 지라도 그는 항상 우리가 그 인물의 시시함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 한 가운데 서 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수십 년 전 제단 앞에서 버림을 받아서 지금은 미치광이 노파로 변해버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결혼식 피로연의 분위기에 사로잡혀 앉아있는 미스 하비삼이 있다. 그리고 도개교(跳開橋)와 해자(垓子)로 자신의 집을 지은한 웨믹과,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도록 자라나서 모든 남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여자, 에스텔라가 있다. 그리고 강에서 건진 다른 남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강변 어느 선술집의 임시고용인이 있다. 글쓰기의 스타일 부분에 있어서도 진부한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보기에 는 다음에 나오는 팝송의 가사도 진부한 편이다.

**You are my special angel, sent from up above,
My fate smiled down on me and sent an angel to love,
You are my special angel, right from paradise,
I know that you're an angel, heaven is in your eyes.**

**A smile from your lips brings the summer sunshine,
The tears from your eyes bring the rain,
I feel your touch, your warm embrace,
And I'm in heaven again.**

**You're my special angel through eternity;
I'll have my special angel here to watch over me.**

대부분의 진부한 글쓰기는 이처럼 클리셰⁶⁰⁾에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부

한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진부한 글쓰기는 흔해 빠지고 피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당연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팝뮤직의 또 다른 범위의 끝에는 찬송가가 있지만 찬송가 가사 역시도 진부하기는 마찬가지다.

**Every morning the red sun
Rises warm and bright
But the evening cometh on
And the dark, cold night
There's a bright land far away,
Where'tis never ending-day.**

**Every spring the sweet young flowers,
Open bright and gay,
Till the chilly autumn hours,
Wither them away.
There's a land we have not seen
Where the trees are always green.**

진부한 글쓰기가 대부분의 경우에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피상적이고 이상 속에 서만 존재하는 세계를 그린다는 말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위의 찬송가의 시작부분 네 줄만 읽어보도록 하자. 태양은 새벽에 항상 붉은 색인가? 세상의 모든 밤은 춥고 어두운가?

It was bright, beautiful, warm day when our ship spread her canvas to the breeze, and sailed for the regions of the south. Oh, how my heart bounced with delight as I listened to the merry chorus of the sailors, while they hauled at the ropes and got in the anchor! The captain shouted; the men ran to obey; the noble ship bent over to the breeze, and the shore gradually faded from my view, while I stood looking on with a kind of feeling that the whole was a delightful dream.

이 글은 R.M. Ballantyne의 『산호섬』의 한 부분이다. 이 글의 화자, 랄프는 다른 두 소년들과 친구가 된다. 덧붙여서, 발렌타인이 이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 형용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자.

There were a number of boys on the ship, but two of them were my special

60)진부한 표현.

favorites. Jack Martin was a tall, strapping, broadshouldered youth of eighteen, with a handsome good-humoured, firm face. He had had a good education, was a clever and hearty and lion-like in his actions, but mild and quiet in disposition. Jack was a general favorite, and had a particular fondness for me. My other companion was Peterson Gay. He was little, quick, funny, decidedly mischievous, and about fourteen years old. But Peterkin's mischief was almost always harmless, else he could not have so much beloved as he was.

'Hello, youngster!' cried Jack Martin, giving me a slap on the shoulder, the day I joined the ship. 'Come below, and I'll show you your berth. You and I are to be messmates, and I think we shall be a good friends, for I like the look o'you!'

Jack was right. He and I and Peterkin afterwards became the best and staunchest friends that ever tossed together on the stormy waves.

랄프와 피터킨 게이가 서로 부대끼면서 험난한 삶의 물결을 헤쳐 나가도록 가만 놔둬야 할 것 같다. 여기 위버 스미스의 『골든폭스』에 나온 조금 더 정교하게 쓰인 진부한 표현들이 있다.

Then abruptly her pulse checked and then raced away again. In her ears the music took on a sweeter, more cheerful note, the oppressive crowds and the noise seemed to recede, her dark mood evaporated miraculously, and she was borne up on a wave of excitement and wild anticipation.

There he was, standing in the front doorway. He was so tall that he towered half a head above those around him. A single lock of hair had fallen like a question mark on to his forehead, and his expression was remote, almost contemptuous.

She wanted to shout his name. 'Ramon, here I am!' But she restrained herself, and set aside her glass without looking. It toppled over and the girl on the step below her exclaimed as lukewarm champagne cascaded down her bare back. Isabella did not even hear her protest. She came to her feet in one fluid movement, and instantly, Ramon's cool green gaze was on her.

They looked at each other over the heads of the swirling, gyrating dancers

and it was as though the two of them were completely alone. Neither of them smiled. It seemed to Isabella that this was a solemn moment. He had come, and in some vague way she sensed the significance of what was happening. She was certain that in that instant her life had changed. Nothing would ever be the same again.

She began to descend, and she did not stumble over the sprawling, embracing couples that clogged the staircase. They seemed to open before her, and her feet found their own way between them.

She was watching Ramon. He had not moved to meet her. He stood very still in the giddy throng. His stillness reminded her of one of the great predatory African cats, and she felt a tiny thrill of fear, an exhilaration of the blood as she went down to him.

When she stood before him, neither of them spoke, and after a moment she lifted her tanned bare arms towards him as he took her to his chest she wound her arms around his neck. They danced and she found every moment of his body transmitted to her own like a current of electricity.

The music was superfluous; they moved to a rhythm of their own.

발췌한 부분의 첫 번째 문장조차도 'then'의 반복 때문에 결함이 생겨버렸다.

수많은 스릴러 작가들이 설득력 있는 여성 캐릭터를 묘사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다. 그들의 여성 캐릭터는 2차원 적이고 러브씬은 과장되고 믿기 힘들 정도다(incredible). 사람들로 붐비는 파티에서 연인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은 너무 진부해서 탁월한 스타일리스트가 아니고서는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불행히도 스미스는 그런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다. '...her life has changed(...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다)'와 같은 지긋지긋하고 애매한 표현이 이어진다.'Nothing would ever be the same again(예전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표현은 그저 'Fillers(채우기)' 일 뿐이고 캐릭터의 감정을 현실적으로 탐구할 수 없게 한다. 깨진 유리조각 위로 기어서 멀리 있는 냉담하고 업신여기는 듯한 남자에게 다가가는 여자의 모습은(말 그대로)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섹시한 이미지지만 현실 속에서의 남녀 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she was borne up on a wave of excitement(참을 수 없는 흥분의 파도에 휩싸여)'와 같은 진부한 은유들과 , 'her feet found their own way between them(그녀

의 발은 스스로 제 자리를 찾았다'와 같은 터무니없는 이미지들, 그리고 'they moved to a rhythm of their own(저마다 각자의 리듬에 맞추어 움직였다)'과 같은 클리셰들은 『골든폭스』를 진부한 표현을 모아놓은 전화번호부처럼 만들어버렸다. 당신은 분명 이것보다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버 스미스는 20세기 후반 영문학 저자로서 가장 많은 책이 팔린 작가 중 한 명이다. 자, 그 이유를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시시한 언어

1946년에 호주 과학자 에릭 에쉬비(Eric Ashby)는 '교육의 당면문제'에서 '아이들은 학교 교육의 일곱 가지 치명적 오류가 독창성 부족, 자원 부족, 회의적인 태도, 비판적 판단, 부적합, 학교당국에 대한 존중 부족, 교수요목 이상의 학습 강요임을 확신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위의 일곱 가지 대죄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언어의 영역에서는 특히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처럼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서 언어를 특정한 패턴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Ocean)'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의 자동으로 바다는 파랗고(Blue) 반짝인다(Sparkling)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글에 나오는 새들은 늘 지저귀고, 낙엽은 바스락 거리고, 번개는 번쩍거린다. 아기들은 항상 조그맣고 귀여우며, 60세 이상 노인들은 주름이 깊고 지혜롭다 (내가 '애드리안 물의 다이어리'에서 내가 좋아했던 부분은 버트 벅스터라는 인물이 늙은 연금수혜자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냄새가 나으며 밀린 공과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는 떠오르고, 해는 지고, 어둠은 내려앉고 달은 떠오르고 별을 떴다(반짝거리거나 뿌려져있기도 하고). 늑대들은 울부짖고 새는 머리위로 날아가며 (발 밑에서 위로) 저 먼 곳 어딘가로 날아갔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본 듯한 이야기 아닌가? 한 번 이러한 패턴을 배우고 나면 당신은 위와 같은 에어포트노블⁶¹⁾을 다름 100 만 명의 사람들 중 4분의 1이 그러 하듯이 써 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 하듯이 당신은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 당신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신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가 모든 작업을 대신 해 주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동안 TV를 켜둘 수도 있고 워크맨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첫 번째로, 당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당신 고유의 성향이 낙인찍혀 있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좋은 책들은 작가의 성향이 낙인 찍혀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구절들은 클리셰로 가득한 창고로부터 바로 나온다. 그런 글을 쓸 때 당신은 '의심의 여지없이...', 위대한 우리의 국가는...', '최고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개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성장시키기 위해...' 와 같은 글은 인간이 쓴 글이라는 것

61) 장시간 비행동안 읽기 좋은 책

짚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글 속 어딘가에서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길을 잃어버렸다. 위와 같은 언어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런 글을 쓰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당신이 꿀에 대한 글을 쓴다고 가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명사를 찾아보자. '달다'라는 명사가 있다. 당신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는 강요하듯 이 단어를 떠오르게 할 것이다.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가 형편없는 작가에게 해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이다. 그 또는 그녀는 '달다' 이외에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좋은 작가는 '달다'라는 명사에 만족하지 않고 거부 버튼을 누를 것이다. 즉시 컴퓨터는 다른 단어를 내놓을 것이다. (아주 효율적인 컴퓨터라면) '황금빛'과 같은 단어를 내놓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좋은 작가라면, 덜 따분한 단어를 찾을 것이고 재미없는 것은 거부할 것이다. 그래서 꿀에 관한 것이라면 '끈적거린다', '신선하다', '맛있다' 등이 있다. 결국, 당신은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위에 나열한 표현들이 전부 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달다
황금빛이다
끈적거린다
신선하다
맛있다

좋은 작가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비로소 여기서부터 진정한 글쓰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좋은 작가들은 장벽을 넘고 광활한 대지로 나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한다. 적어도 고유한 관념과 어휘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형용사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물론 허니⁶²⁾의 예를 들어보자. 뉘니허니(runny honey)⁶³⁾도 나올 수 있고 트릭클링허니(trickling honey)⁶⁴⁾와 크리핑(creeping)⁶⁵⁾, 슬리더링(slitherling)⁶⁶⁾, 슬라이딩허니(sliding honey)⁶⁷⁾도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더 많은 생각과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어렵다. 아마 이런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TV도 음악도 잠시 꺼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면 할수록 문장은 더 간결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거의 모든 글쓰기에서는 몇 개의 원어(原語)만을 예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너무 많은 원어를 사용하게 되면 인위적이고, 지나

62) 꿀을 녹여 단단하게 만든 과자 종류
63) 줄줄 흐르는 꿀
64) 뚝뚝 떨어지는 꿀
65) 엉겨붙은 꿀
66) 미끄러지는듯한 꿀
67) 미끄러지는 꿀

**of Neon where I'd
crash land perfectly
in the deserted
airport of your heart.**

아마 당신도 터너와 로렌스의 시를 끝까지 읽고 그들이 언어를 신선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방법들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 자신에게 한 번 물어보도록 하자. 균형을 잘 잡았는가? 너무 과장되게 언어를 사용 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들이 쓴 시가 예측 가능하고 설정되어 있는 듯 한가?

아마 언어가 가장 많이 쉽게 발목을 붙잡히는 부분은 직유법과 은유법일 것이다. 'Stuck in a rut'⁶⁸⁾ 역시 좋은 예다. 이렇게 억지스러운 문장이 있다니!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자.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해독해보자. 해독한 단어를 찾아 으면 함께 떠오르는 비유를 그 옆에 적어두어 보자. 예를 들면 'as dark as ' 가 되겠다. 하지만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여야만 한다.

TWEIH	as white as
WLOS	as slow as
HTLIG	as light as
ADDE	as dead as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나 해 보자. 첫 번째 단어에서 몇 명이나 'snow' 또는 'ghost'라는 단어를 썼는가? slow 라는 단어에는 snail을? 아니면 wet week 이나 turtle 또는 tortoise를 쓰지는 않았는가? light에는 feather(깃털)을 쓰지는 않았는가? 'dead(죽다)' 라는 단어 옆에는 'doornail(큰 못)' 이나 'dodo(도도새)' 를 적어놓지는 않았는가? 이번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특정 단어들을 함께 사용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최고의 스타일을 가진 글은 잘 쓰고 간결하며 단도직입적이며, 특히 독자들에게 들려줄 힘 있는 스토리라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하지만 당신은 클리셰(상투적인 문구)나 '죽음의 문 앞에서', '충분히 알다', '유망한 시작을 하다', '완전히 박살내다', '진실은 소설보다 더 이상하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종일 기분이 안 좋다'와 같은 구절을 쓰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좋다.

아래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새로운 비유를 보자.
as slow as
as heavy as

68) Stuck in a rut 이라는 직유법의 하나.

as dead as
as fast as
as red as
as happy as

보통 비유와 관념은 함께 사용되었을 때 잘 어울린다. 예를 들어 as light as love (사랑처럼 밝고), as dark as death(죽음처럼 어둡고), as deep as time(시간처럼 깊이가 있고)가 있다.

또 다른 연습 하나는 형용사와 명사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6개정도의 명사를 종이 한 쪽에 써놓고 종이의 반대편에는 형용사나 명사를 적어두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들을 무작위로 짝을 지어본다.

형용사

green
bubbly
bony
squawking
striped
electronic
exploding

명사

grass
champagne
skeleton
parrot
zebra
watch
bomb

위에서 한 것처럼 기존의 짝꿍끼리 묶어놓으면 위의 형용사와 명사들은 평범한 표현이 된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섞어본다면 당신은 새로운 이미지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An exploding watch(폭발하는 시계)?, striped grass (줄무늬 잔디)?, Green champagne(초록색 샴페인)? Electronic(전자)라는 형용사는 시계 빼고 다른 명사와 연결했을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을 만든다. 물론 어떤 단어들은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green parrot(초록색 앵무새)이란 표현은 우리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내지 못한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이런 언어 게임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창의력을 기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위에서처럼 형용사와 명사를 짝지어보면서 새로운 표현들을 현실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를 들어 전기 잔디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태초부터 있었던 전기 잔디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전기 잔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걸을 때마다 전기로 발을 마사지 해주는 것인가? 전기 잔디가 최고 기관의 도난경보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전기양의 먹이로 전기 잔디가 사용되고 있

는지? 어느 날, 당신이 잔디 깎는 기계를 들고 전기 잔디밭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는가?

요약

- ◆ 당신만의 확실한 스타일이나 스토리 자체에 특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미건조한 인물들이나 상황을 묘사해도 괜찮다.
- ◆ 언어에 대해서만은 도전적이어도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

영국의 저명한 연극 연출자 Peter Brook (피터 브룩)은 자신의 배우들이 즉석연기 게임을 하다가 얼어버렸을 때 “계속 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게 만들어!” 라고 말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글쓰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조언이다. 당신이 쓰고 있는 이야기가 늘 어지기 시작하고 (모두 그런 과정을 한 번은 겪는다) 있다면 그때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좋은 시점이다. 누군가를 죽여봐라. 누군가 상을 타게 해봐라. 거인의 손이 바닥을 뚫고 올라와 등장인물의 발목을 잡고 그 또는 그녀를 끌고 들어가게 해봐라.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해봐라. 세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해봐라. 진탕 먹고 마시며 난잡하게 노는 잔치를 벌여보아라. 글을 쓸 때 당신은 신이 된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글쓰기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죄는 지루함이다.

여기 좋은 연습문제가 있다.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앉고 한 사람은 A 또 다른 한 사람은 B라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A와 B에 질려버렸다면 Q와 E라고 해도 좋다.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할지 정한다. 맞다, 누가 먼저 시작할지 정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 자, 그럼 B가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하자. B가 A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어떤 오래된 이야기라도 괜찮다, 지루 할수록 더 좋다. A가 B의 이야기를 듣다가 재미없어 지거나 뻘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A는 B에게 ‘아니, 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반박하기 시작하면서 B가 이야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B: I woke up this morning, got up and got dressed...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A: No, you didn't.

아니, 넌 그러지 않았어.

B: Oh OK, I didn't. I stayed in bed and went back to sleep.

어, 그래 나 안 그랬어. 나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다시 잠들었어.

A: (Still board) No, you didn't.

(아직도 지루하다) 아니, 넌 그러지 않았어.

B: Oh. Well, I crawled under the bed, where I found my baby brother, who we'd been looking for since the weekend(this is better). He was quite hungry, so I gave him a biscuit.

어, 그래. 나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거기에는 주말부터 찾고 있던 남동생이 있었어 (훨씬 나아졌다). 동생이 배고파해서 비스킷을 줬어.

A: No you didn't.

아냐, 넌 그러지 않았어.

B: No, I ordered a pizza, which arrived half an hour later. The pizza was really good.

그래, 나는 피자를 시켰어. 30분 후에 도착했는데 피자는 아주 맛있었어.

A: No it wasn't.

아니, 피자는 그렇지 않았어.

B: No, in fact it was so rubbery we used it for a frisbee.

그래, 사실은 피자가 고무처럼 질겨서 프리스비⁶⁹⁾ 놀이에 써버렸어.

이 정도면 수백만 부가 팔리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런 연습을 몇 번 하고 난 후에 당신은 대화 내용을 글로 옮겨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파트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대신 (또 하나의 진부한 표현) 당신 스스로 머릿속에 파트너의 목소리를 재현 해내어야 한다. 민일 당신이 쓰고 있는 이야기가 진부하고, 너무 틀에 박혔다면 당신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뛰어!” 라고 병장이 외쳤다. 나는 큰 맘 먹고 뛰어내렸다. **['오, 제발,' 선생님이 한숨을 쉰다. 또 하나의 전쟁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라며. 그리고 '큰 맘 먹고'는 더할나위 없이 진부한 표현이다.]** 다행히 낙하산이 펼쳐졌고, 나는 땅으로 안전하게 착지하고 있었다. 나는 딱딱한 모래 위에 떨어졌다.**[안돼! 안돼! 아니, 넌 그러지 않았어.]**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페션후르츠⁷⁰⁾ 스펀지 케이크 위에 착지했다? 상승기류로 인해 나는 다시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다? 착지해 보니 그곳은 23세기였다?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써 봐.]** 오싹하게도 나는 두 개의 텐트 사이에 착지했다. 어느 보초병이 나를 보고 소리치면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 나는 낙하산이 펼쳐지는 버튼을 눌렀고 낙하산이 보초병의 시야를 가렸고 그는 내게 다가오지도 못했다. 나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아니, 넌 그러지 않았어.]** 좋다, 그 부분은 없애고. 나는 세

69) 프리스비(던지기를 하고 놀 때 쓰는 플라스틱 원반)

70) 시계꽃 열매

워져 있는 자동차 쪽으로 뛰어갔다.[아니, 넌 그러지 않았어.] 나는 텐트 안으로 몸을 숙이고 들어갔는데 텐트는 비어있었다. [아니, 그렇지 않았어.] 텐트 안에는 두 명의 병사가 침낭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텐트 안에서 나왔다.[아니, 넌 그러지 않았어.] 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침낭에 손을 뻗어 자는 척 했다...

위의 글은 모두의 구미에 맞는 글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가지고 있다. 물론 당신은 더 깊게 들어가서 주인공을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쯤에서 '도살자 캐시디와 그을린 키드⁷¹⁾'의 제작자들은 두 주인공이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영화는 '아니, 넌 그러지 않았어'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자동차 추격신을 예로 들어보자. 초기 영화들 중에서 자동차 추격신을 사용한 영화는 *The Italian Job*(1969), *Bullit* (1968) 그리고 *The french Connection*(1971)이 있다. 60년대의 순진한 아이들에게 이 영화들은 아주 흥미로운 영화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영화와 모든 1시간 분량의 TV 경찰 드라마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추격신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요즘 들어서는 *Homicide*⁷²⁾에 나오는 멜버른 경찰들이 Falcon⁷³⁾ 미국 경찰들이 할리 데이비슨이나 무스탕을 타고 하는 추격신을 따라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자동차 추격신이 어찌할 도리 없이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시청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액션 영화 작가들은 '아니, 넌 그러지 않았어' 버튼을 자주 눌러야 한다. 경찰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캐딜락을 타고 있는 사기꾼의 뒤를 쫓는다? 아니,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방법은 너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자, 그럼 스피드보트에 탄 영웅이 다른 스피드보트에 타고 있는 사기꾼을 잡기 위해 육지와 강 사이를 뛰어넘어 다닌다 (007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가 하던 것). 아니면, 경찰차에 타고 오래된 난파선을 타고 도주하는 좋은 사람의 뒤를 쫓는 수백 명의 경찰들(*The Blues Brothers*에 나왔던 장면). 그것도 아니면, 도주 차량이 반으로 동강나면서 추적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장면 (*Malcolm* 에 한 장면).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베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쯤은 알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베낀다. 베끼면서 조금씩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 추적, 열차, 말, 우주선, 헬리콥터, 불도우저 추적 같은 기발한 추적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The Back to the Future*(1985)라는 영화는 처음으로 스케이트보드 추적신을 선보였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임스 본드가 이층버스에 타고 도망가다가 낮은 다리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극적인 결과를 연출한 적도 있다.

지위

71) *Butcher Cassidy and the Suntanned Kid*, 1969

72) 호주 경찰 드라마

73) Ford 사에서 만든 승용차. 호주의 경찰차는 모두 Falcon이다.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물들의 사회에는 나름대로의 지위계층이 있다.

호주에서는 아마 총독이나 수상이 지위의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사람들의 관점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아티스트나 운동선수 아니면 가수나 배우가 어떤 이들에게는 수상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의 지위계층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학교들은 잘 정립된 지위들을 가지고 있다. 보통, 학교의 구조는 교장선생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원로교사가 있고 그 다음이 나머지 교사들, 반장 또는 상급생 차례로 가장 어린 하급생까지 신분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많은 사람들과 상황을 무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내 관리직원과 청소부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비서직은 어떤 지위를 갖고 것인가? 10학년 학생이 12학년 학생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인가? 만일 교사가 교내에서 어떤 학생들보다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만일 당신이 위와 같은 신분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학교의 대해 읽어보고 싶다면 A. S. Neill의 『*Summerhill*』이라는 작품을 읽어보기 바란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교사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많은 교실에서 교사들은 교실 앞 쪽에 교단을 가지고 있다. 교단이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선생님의 지위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당신은 평생을 지위에 대한 미묘함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겠지만 당신의 삶의 끝 자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미묘함에 대해서는 계속 배워야 할 부분이 남아있을 것이다. 지위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지위라는 것은 가족들 사이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에 있어서도, 지위의 변화는 코미디나 비극적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해준다.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 잘 생각해보자.

1) Rob knocked on the door.

'Come in,' the principal said.

'Rob entered the room and said, 'I've been sent to you by smoking.'

'Yes, I know, ' the principa said. 'And it's not good enough. This is the third time in a fortnight.'

1)롭이 문에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라고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롭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워서 교장 선생님 방으로 보내졌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 라고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롬의 행동은 바람직 하지 않아요. 벌써 2주 사이에 3번째 걸린거죠?’

꽤나 빈약한 장면이지 않은가? 두 사람 사이의 지위에 대해 더 상세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써보도록 하자.

2) Rob tapped nervously on the door.

'Enter,' the principal shouted.

Rob slipped into the room and stood just inside the door. The principal was busy writing and did not look up.

But as she wrote she suddenly said : 'Closer.'

Rob moved three short steps nearer to the de나. Finally Ms. Rhodes stopped writing, put down the pen and leaned forward, looking hard at Rob. Rob peered at his feet, studying the size of his shoes.

'Robert Chance,' she said, in a loud slow voice.

'Yea, Miss.' Rob whispered, hoping she couldn't smell the tobacco.

2) 롬이 두려운 마음으로 문들 두들긴다.

‘들어오도록,’ 이라고 교장이 소리쳤다.

롬은 미끄러지듯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 안 쪽에 서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무언가를 적느라고 바빴고 얼굴을 들어 롬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글을 적다가 갑자기 ‘가까이’ 라고 말했다.

롬은 3번의 폭이 좁은 걸음으로 교장 선생님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결국 미쓰 로즈는 글쓰기를 멈추고, 펜을 내려놓은 후, 책상 가까이로 다가와서 롬의 얼굴을 뵈히 쳐다봤다. 롬은 자신의 발망 응시하며 자신의 신발 사이즈를 눈으로 재고 있었다.

‘로버트 찬스,’ 라고 교장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불렀다.

‘네, 선생님,’ 롬은 교장 선생님이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없게 속삭이듯 조용히 대답했다.

교육에 대해 정말 무지한 사람이라서, 교장 선생님이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이 장면에 나오는 두 사람의 지위 차이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장면에 상세한 설명을 포함함으로써 두 사람의 대화는 생기를 띄고, 현실적이면서도 긴장감이 맴돈다.

그럼, 이 장면을 가지고 한 가지 변화를 더 주어서 좀 더 길게 만들어 보도록 하자. 그 변화는, 여기서 유일한 변화라고는 두 인물의 지위를 바꿔보는 것이다.

3) Rob threw open the door and strode into the room.

'This is the limit, ' he said. 'Three times in two weeks you've taken me away

from my physics class. You'd better have a good reason.'

He spoke softly but every word could be heard. Ms Rhodes jumped up.

'Oh, Rob, ' she said, 'I'm awfully sorry. Please sit down...no, have my chair, it's more comfortable. I do apologise...it's just... the teachers have been complaining again...'

'So?'

'Well, it's just... your smoking...you see, I am the principal...'

'So?'

'Oh nothing... I just thought... ' Rob shook out a cigarette from a half crushed packet in his pocket. Ms Rhodes hurriedly lit it for him, with a hand that trembled.

3) 립은 문을 열어젖히면서 성큼 성큼 걸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한계예요,” 라고 그가 말했다. “2주 동안 3번이나 물리시간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구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말 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똑똑히 들렸다. 미스 로즈는 펄쩍 뛰었다. “오, 립,” 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정말로 미안하게 되었구나. 잠깐 앉아서...아니, 여기 내 의자에 앉으면 더 편할거야. 내가 사과할게...그게 말야...다른 선생님들이 또 항의를 해서 말이야...’

“그래서요?”

“음, 그러니까 그냥 흡연일 뿐인데...너도 알다시피 내가 교장이잖니...”

“그래서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내 생각에는...” 립은 셔츠 주머니에 들어있던 반쯤 찢겨진 담배갑 안에서 담배 한 대를 꺼냈다. 미스 로즈는 떨리는 손으로 셔둘러서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다.

당신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지 않은가? 아마 당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당신은 등장인물들의 지위가 바뀌면서 코미디가 전개되는 영화 이름을 몇 개나 딸 수 있는가? *Annie*(1982)? *Kindergarten Cop*(유치원에 간 사나이, 1990)? *Beverly Hills Cop*(1984)? 그 유명한 ‘그게 칼이라고’ 라는 대사가 나오는 *Crocodile Dundee*(1986) 도 그 중 하나인가? *한여름 밤의 꿈*(1594-1595)에 나오는 Bottom 의 역할이 그러한가?

지위의 변화는 로맨스 영화에서도 똑같다. *신데렐라*(1996), *핑크빛 연인*(1986), *귀여운 여인*(1990) 등의 영화가 있다. 각 영화마다 연인 사이의 신분 차이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관객들은 그 신분의 격차가 좁혀질지 몹시 궁금해 한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경우에 낮은 신분의 여자가 높은 신분의 남성과 만나게 된다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준다.)

모든 경찰들과 도둑들, 당신이 본 서양영화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라. 모두가 신분 상승을 위한 투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극이 있다. 『리어왕』(1608)은 강하고 위대한 왕과 그의 세 딸에 관한 이야기다. 리어왕은 나이가 들어가자 세 딸에게 그의 왕국을 나눠주고 남은 생을 편하게 딸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살기로 결정한다. 세 명의 딸들 중 한 명은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아버지께 아부할 줄 아는 딸이 아니었고, 나머지 두 딸은 간절하게 옆드려서 아버지의 왕국을 둘로 나눠 갖는다. 하지만 문제는, 두 딸이 아버지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그들에 손에 넣자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린 것이다. 리어왕은 비참한 가난뱅이가 되어 시골지역을 돌아다녔고, 방황하고 외로워하며 그 상실감과 외로움으로 그의 혼과 마음은 배신감 아래 무너져 내렸다.

이 연극은 서사시적 비극이고 권력적 차원에서의 비극이다. 그리고 리어왕의 비극 중 한 가지 요소는 리어왕의 왕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되고 방황하는 가여운 영혼이 된다는 것이다. 그의 신분 박탈이 더욱 가슴을 저미어 오는 까닭은 그가 처한 사정에 이유가 그의 자만심과 부족한 판단력으로 인해 자식들이 그를 배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분적 요소는 거의 모든 소설 쓰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 작가 노먼 밀러(Norman Miller)는 작가들은 권력에 대한 '막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력이라는 것은 꾸준히 탐구되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가 주장하기로 는 만일 권력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당신은 '할기 없는' 이야기를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분과 권력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신분은 직업, 소유재산, 인종, 연령, 억양, 성격의 영향을 받는다. 신분은 성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아직도 성이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가? 신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책이나 영화를 보고 신분의 변화가책이나 영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는 감상문을 한 번 써보아라.

드라마나 역할극을 통해서 신분에 대한 탐구를 해보는 것도 신분의 미묘함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 보자.

교장실에서 보았던 장면과 같은 신분의 변화를 시도해 보자. 처음에는 '기존의 이미지'로 역할극을 해보고 반복할 때에는 신분에 변화를 줘보자.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무례한 요구를 하고 웨이터는 손님을 달래려고 애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반대로 해 보는 것이다.

3명에서 4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한 번씩 코멘트를 할 때마다 상대방보다 조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대화를 해 보자. 신분상승 욕구는 아주 조금씩만 비춰져야 하고 대화도 그럴듯해야 한다. 아니면 조금씩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면 조금씩 자신의 신분을 낮추는 대화를 해 보자 (그 유명한 몬티 파이톤(Monty Python)의 영화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지만 사실은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게임 말이다).

하나의 그룹 안에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그들은 기존의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연습방법도 있다.

어떤 사람이 그 또는 그녀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또는 그녀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장면도 연출해 보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젠 그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놀로그를 해 보자.

보디랭귀지는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교장실에서 있었던 장면을 생각해 보자. 교장 선생님이 롱이 방에 들어왔는데도 고개를 들지 않았던 것... 책상 앞으로 다가와 가까이 기대어 앉았던 것... 롱이 방문을 두드리던 모습 등을 통해 우리에게 교장선생님의 신분과 롱의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말해주는 대신) 이러한 모든 세부적인 보디랭귀지가 장면을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든다.

어떤 보디랭귀지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앉는가? 그들은 어떻게 서있는가? 어떻게 걷는가? 그들은 어디에 앉는가? 그들은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 손가락 찌르기는 아주 높은 지위를 나타낸다.

요점

- ◆ 당신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지위를 파악하라.
- ◆ 인물들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디테일들을 포함하라.
- ◆ 이야기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 지위의 변화를 사용하라.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

작가들 중에서 좋은 작가를 구분 짓는 것 중 하나는 좋은 작가를 제외한 나머지 작가들은 글을 쓸 때 디테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디테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섹션에서 우리는 지위에 대한 논의에서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좀 더 가까이에서 디테일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나는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당신이 어렸을 때 'I spy⁷⁴⁾' 같은 가족게임을 함께 해주었기를 바란다. 이런 게임들은 당신에게 관찰력을 길러주고 이러한 자질은 보기에겐 대수롭지 않으나 작가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 할 수 있는 연습이 있는데 이 연습은 관찰력 있는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해 줄 것이다.

보편적인 물건 하나를 골라보자. 열쇠고리에 달려있는 열쇠 하나를 예로 들어보

74) 숨바꼭질

자. 원형으로 앉아있는 그룹 멤버들에게 물건을 돌려가며 보도록 한다. 한 사람마다 이미 언급한 성격 이외의 성격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야 한다. 물건이 몇 번쯤 돌아오면, 그래서 60개나 80개나 되는 물건의 성격이 나오면 이 연습은 꽤나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연습을 계속할 것! (1가지 힌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사용할 것.)

인물의 디테일

유명한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신성한 디테일을 찬양하라'고 말했다.

모든 글쓰기에서 당신이 디테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적어도 세 번 정도 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인물을 묘사할 때이다. 만일 그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이라면 그저 그 또는 그녀를 '키 170cm에 검은머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인구의 반이 그 조건에 들어간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작가들이 인물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인물의 특별한 성격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예들을 보았다. 당신의 주요 등장인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창적인 디테일을 지니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등장인물의 옷 스타일이랄까? 그들이 하고 있는 보석류 액세서리랄까? 아니면, 그들이 문신을 했는지, 치아교정기를 껴는지, 안경을 썼는지, 얼굴에 있는 털이 있는지, 메이크업이나 매니큐어를 했는지 등등?그들에게 특이한 점은 없는가? 아마 그들이 두 개의 손목시계를 찰 수도 있고, 여분으로 양말한 켈레를 가지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빅 버드⁷⁵⁾가 그려져 있는 커다란 배지를 하고 다닐 수도 있다.

물론, 그들의 태도, 의견, 생각, 성격에서 당신의 인물들이 진정으로 그들만의 독창성을 표현하겠지만, 옷차림이나 그들의 걸모습과 같은 작은 디테일이 도움이 된다.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당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손등을 깨문다던가, 운전할 때에는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던가,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멜로디를 짜증나도록 흥얼거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처럼, 몸에 밴 습관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보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배경과 디테일

두 번째로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은 중요한 장소를 묘사할 때이다. 이러한 배경들은 집, 마을, 도시, 나라, 어디에서든 생동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만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관찰력을 발휘한다면 배경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75) 빅 버드 ((미국 TV 프로 Sesame Street에 나오는 크고 노란 새; 상표명))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 집 또는 캐러밴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우리는 그 곳에 지붕이 있고, 벽과 바닥이 있으며, 문과 창문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적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런 집들에 특별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집만의 독특한 운치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여기 찰스 디킨스가 쓴 *데이비드 코퍼필드(David Copperfield)*에서 나오는 예가 하나 있다.

I gazed upon the schoolroom into which he took me, as the most forlorn and desolate place I had ever seen. I see it now. A long room, with hats and slates. Scraps of old copy-boards, and exercises litter the desks. Two miserable little white mice, left behind by their owner, are running up and down in a fussy castle made of pasteboard and wire, looking in all the corners with their red eyes for anything to eat. A bird, in a cage very little bigger than himself, makes a mournful rattle now and then in hopping on his perch, two inches high, or dropping from it; but neither sings nor chirps. There is a strange unwholesome smell upon the room, like mildewed corduroys, sweet apples wanting air, and rotten books. There could not well be more ink splashed about it, if it had been roofless from its first construction, and the skies had rained, snowed, hailed and blown ink through the various seasons of the year.

긴장감을 위한 디테일

세 번째로, 디테일이 특별하게 효과적인 상황은 다음에 나오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To Kill a Mockingbird*)』의 한 부분이다. 법정에서의 장면인데, 거기서 변호사 에티커스는 증인인 미스터 이월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 발췌된 부분을 읽다 보면, 다른 정황에서는 전혀 악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특별한 디테일들이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디테일들이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 모든 디테일들은 독자들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나오는 변호사의 요청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Atticus was reaching into the inside pocket of his coat. He drew out an envelope, then reached into his vest pocket and unclipped his fountain pen. He moved leisurely, and had turned so that he was in full view of the jury. He unscrewed the fountain pen cap and placed it gently on his table. He shook the pen a little, then handed it with the envelope to the witness. 'Would you write your name for us?' he asked. 'Clearly now, so the jury can see you do it'

하퍼리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디테일이 가진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에서, 디테일은 “당신의 이름을 좀 적어주시겠습니까?”라는 말이 매우 생생한 표현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디테일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중요한 순간을 알려주는, 즉 클라이맥스이다. 만약 내가 ‘나는 문 앞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은 무엇인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가?

나는 낡은 초록색 문 앞으로 걸어갔다. 오랜 시간동안 페인트칠이 안 되어 있는 문이었다.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갈라져있었다. 나는 녹슨 손잡이를 잡고 몇 센티미터 정도 오른쪽으로 돌려서 밀어보았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나무 바닥에 길고 하얀 굵은 자국을 남겼다. 나는 방 안으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다.

자, 이제 나는 독자들에게 방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었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신문 영화평론을 두 개를 읽어보면서 이번 장을 마치도록 하자.

카메라맨 프란츠 플래너의 흑백 영상에서는 . . . 거의 모든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그가 찍은 사진들 속에는 약간 기울어진 고개, 머리카락 한 줌에 불어오는 바람의 숨결까지 자그마한 제스처에 담겨진 시적 아름다움이 모두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우아한 카메라의 움직임은 장면, 장면으로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이미지들이 당신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글과 비교해보자.

...극의 작가이자 감독인 크리스 컬럼버스는...관객들이 무지해서 그의 영화에 담겨진 디테일에 대한 부족한 집중력을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추측했다.

영화에서 그렇다면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독자들이 바보라서 디테일의 부족함을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추정하면 안 된다.

요점

- ◆ 중요한 인물들과 장소들에는 디테일을 사용하라.
- ◆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사용하라.

이름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름을 고르는 것은 글쓰기에 있어서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내 옆에 있는 참고 서적들 중에는 성(姓)을 모아놓은 사전, 이름사전, 오래된 출석부, 전화번호부, 우편번호부 그리고 신화사전도 있다. 나는 인물들과 장소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 사전들 속으로 파고들지만 사전의 도움을 받고서도 적합한 이름을 찾는데 몇 시간이 걸리곤 한다.

그래도 이름은 아주 중요하다. 때로는 이름 소리가 등장인물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암시해주기도 한다.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에 나오는 재거스씨 (Mr. Jaggers⁷⁶)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그의 성격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은가? 아니면 같은 책에 등장하는 펴블훅 (Mr. Pumblechook⁷⁷)은 어떠한가? 당신은 그와 친구가 되겠는가? 디킨스의 『니콜라스 니클비 (*Nicholas Nickleby*)』에 나오는 스쿼어⁷⁸씨는 어떠한가?

톨킨⁷⁹ 역시 이름에 대해서는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당신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이름에서 당신은 무엇을 감지할 수 있는가?

Gollum⁸⁰, Strider⁸¹, Mr.Butterbur⁸²
 Gandalf⁸³, Fangorn⁸⁴, Grimbald⁸⁵
 Pippin⁸⁶, Wormtongue⁸⁷, Shagarat⁸⁸
 Mordor⁸⁹, Merry⁹⁰, Thorin Oakenshield⁹¹)

다음에 나오는 이름들은 옛날 영국의 학교 이야기를 다룬 텔벗 베인즈(Talbot

- 76) Jagger : (英방언)짐을 운반하는 사람, 행상인, 짐말.
 77) Fumble : (무엇을 하거나 찾느라고 손으로) 더듬거리다.
 Bumble : 실패하다, 실수하다, 비틀거리다, 더듬거리며 말하다, 엉망으로 하다.
 Mumble : 중얼거리다, 웅얼거리다, 우물우물 씩다, 중얼중얼 말하다.
 따라서, -umble 은 능숙하지 못하고 서툴거나 실수를 잘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Chook : (호주 영어 뉴질랜드 영어 비격식) 닭, 똑똑하지 못 한 사람에 비유할 때 쓰인다.
 78) Queer : 기묘한, 괴상한
 Squeers: 스쿼어즈, Mr. Wackford ~ ((Dickens, Nicholas Nickleby에 등장하는 교장으로 정평있는 악당)).
 79) John Ronald Reuel Tolkien), 소설가; 출생지: 남아프리카공화국; 1892~1973
 80) Gollum : 독일어와 스웨덴어에서는 ‘찾는사람’ 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있다.
 81) Stride : 성큼성큼 걷다.
 82) Butterbur : (식물)머위.
 83) Gandalf : 주로 성인 남자 이름, 어린이에게 Gandalf 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는다.
 84) Fangorn : Beardtree, 수염이 난 나무, 또는 덤수룩한 나무.
 85) Grimbald : 용감하고 대담한.
 86) Pippin : 피핀중 사과; [식물] (사과·귤 등의) 씨(pip); [속어] 아주 훌륭한 것[사람]
 87) Wormtongue : 한국어 자막에서는 ‘뱀 혀바닥’이라고 번역했다.
 88) Shag : 추적하다
 Rat : (비격식 못마땅함)취새끼 같은[비열한] 놈.
 89) Mordor : 검은 땅.
 90) Merry : 즐거운, 명랑한.
 91) Thorin: 독성이 있는.
 Oakenshield : 한국어 자막에서는 ‘참나무 방패’라고 번역했다.

Baines Reed) 리드의 『성 도미니크의 5학년(Fifth Form at St Dominic's)』에서 선정된 것이다.

Loman⁹²), Ricketts⁹³), Padger⁹⁴)
Cripps⁹⁵), Dr Senior⁹⁶), Bullinger⁹⁷)
Bramble⁹⁸), Greenfield⁹⁹)

선정된 이름들 중에는 보이는 바와 같이 적어도 두 명의 선한 친구와 두 명의 나쁜 친구가 있는데, Bramble과 Padger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그저 지저분하고 잉크자국이 묻은 난폭한 동물 같은 젊은 친구들도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책에 나오는 이름들은 대부분 그 의미가 덜 미묘하다. 왜냐하면 동화에 선택된 이름들은 발음이 웃기거나 이름이 나타내는 대상에 대한 확실한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메리 스틸의 책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Mr Wanderlust¹⁰⁰), Mrs Woollybutt¹⁰¹) 과 캡틴 Chilblain¹⁰²)처럼 금방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름들을 사용했다.

이름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선택된다. 성경에서 보면 유명한 형제가 나오는데, 그들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 카인과 아벨이다. 질투에서 비롯된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카인은 아벨을 죽인다. 오늘날, 작가들은 (때로는 다른 스펠링으로 나오기도 한다) 형제였거나,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의 사이가 틀어졌을 때 카인과 아벨의 이름을 사용한다. 허번 오크의 『캐인호(號)의 반란(Cain Mutiny)』에서 전쟁 중에 해군들이 힘을 합쳐 전투에 참가해야 할 때, 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 결국에는 서로를 상대로 싸운다는 내용이다. 올슨 웰스의 영화 『시민 캐인(Citizen Kane)』에서 우리는 두 명의 아내와 친구들을 배신하는 한 남자를 볼 수 있다. 심지어, 1936년에는 로맨스 영화 『캐인과 마벨(Cane and Mabel)』이 있었고 제프리 아처의 소설 『카인과 아벨(Kane and Abel)』도 있다.

스티븐 스피버그의 첫 번째 흥행작은 세미 트레일러¹⁰³)와 자동차의 싸움을 그린

92) Loman : 헐벗은, 발가벗은.

93) Ricketts : Rickettsia 와 비슷한 발음으로서 rickettsia는 발진티푸스 등의 병원체를 뜻한다.

94) Badger : 오소리, 그 털가죽, 행상인.

Cadger : 행상인, 도박장수, 운송업자, 유랑자, 남을 등쳐먹는 사람.

따라서 -adger는 부정적 의미, 즉 좋은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님을 추측해 볼 수 있다.

95) Clipp : Clip은 핀, (무엇을 짧게) 깎음, (손으로 날찌게) 때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clip somebody's wings 라는 표현은 ~의 날개를 꺾다(누구의 자유나 권력을 제한한다는 뜻)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96) Dr Senior : Senior는 (고등학교·칼리지의) 마지막 학년[졸업반]의 학생을 의미한다.

97) Bullinger : 영미권에서 성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는 Bully(놀린다, 괴롭힌다)의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다.

98) Bramble : 검은딸기나무.

99) Greenfield : [명사 앞에만 씀](英)개발된 적이 없는, 개발 가능한.

100) Mr Wanderlust : (독어에서)방랑벽.

101) Mrs Woollybutt : Eucalyptus 속(屬) 나무의 총칭: 오스트레일리아산.

102) Mr Chiblain : (주로 복수로)동상; 동창.

103) 세미 트레일러(조종부와 트레일러 부분이 분리되는 대형 화물[합승] 자동차).

로드필름의 고전 '듀얼(Dual)'이다. 영화를 눈여겨보면 스피버그가 의도적으로 어떤 단계에 걸쳐 작업을 했는지 볼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 Mr Average는 평범하고, 부드럽고, 모던한 남자로서 영화에서 그는 석기시대로 갑자기 내던져진 후 '드래곤'(트럭)을 물리치기 전에 다시 정교함과 역센 의지를 재발견 하게 된다. 스피버그는 이 평범한 남자에게 David Mann 이라는 완벽한 이름을 지어 주었다. David(다윗)은 waha집이 작은 남자로 성경에서 거인을 물리친 사람의 이름이고 Mann은 그가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임을 상징한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름에 담겨진 의미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Dave Mann'이라고 읽어보면 소리가 caveman(석기시대 험거인) 과 매우 비슷하지 않은가?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서 Dave 는 분명 석기시대 험거인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된다. 또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Dave가 절벽의 정상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Dave는 승리에 감격하여 소리 지르며 두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며 온몸으로 승리를 만끽한다.

호주 작가인 Murray Bail는 『홀든의 퍼포먼스(Holden's Performance)』 라는 책을 썼다. 그는 Holden이라는 이름을 고른 이유가 Holden¹⁰⁴⁾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책에서 Holden은 시드니에 있는 교외에 있는 바닷가 Manly로 가는데 Holden 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그가 그곳에서 더 남성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영화 '멋진 인생 (It's a wonderful life)'에 등장하는 악당 Mr.Potter는, 'Potter's field'라는 주택개발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관찰력이 있는 관객들은 성경에서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대가로 받은 돈으로 산 '토기장이의 밭' 을 기억할 것이다. 그레이엄 그린의 소설 『소진된 케이스(A Burnt Out Case)』 는 Quarry라는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로, Quarry라는 이름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붙여졌다. 캔 케이시의 『빠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One Flew Over the Cuckoo)』에 나오는 간호사 Ratchett은 마치 진짜 래칫(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게 되어 있는 톱니바퀴)처럼 계속해서 병동을 엄격하게 장악하고, 모두에게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을 강요한다. 내가 쓴 『나에게 보내는 편지(Letters from the Inside)』에 나오는 Mandy는 때때로 'Manna'라는 닉네임으로 나온다. 만나(Manna)는 영적 양식 중 하나로서,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며, 그것이 바로 Mandy가 그녀의 친구 Tracey의 삶 속에서 맡은 역할이기도 하다.

감각들

어떤 시각 장애인들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후각만으로 누가 그 방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Koori¹⁰⁵⁾사람들은 숲 속에서 냄새만으로 사람의 자취를 추적할 수

104) 자동차 회사 브랜드 명

105) (호주 영어)쿠리(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 출신의 원주민)

있다. 프랑스에서는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부서지기 쉬운 트리플(송로버섯)을 찾을 때, 돼지 대신 냄새를 맡도록 어린이들을 썼다고 한다.(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의 후각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선호했다.)

우리 모두는 놀랄만한 감각력((感覺力)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점점 자동화 되어 감에 따라 우리는 감각력을 점점 덜 쓰게 되었고, 그래서 감각이 약화되고 말았다. 만일 당신이 우리가 가진 감각력이 얼마나 강력해 질 수 있는 지 알아보고 싶다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라.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뛰어나게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시각장애인인 톰 설리반이 쓴 『들리는 것이 너에게 보인다면(If You Could See What I Hear)』이라는 책도 나왔다. 청각 장애인들은 매우 날카로운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디테일도 알아채고 주변부를 바라보는 시력이 매우 높다.

헬렌켈러는 시각장애인이자 청각장애인이었다. 자서전 『The Story of My Life』에서 그녀는 뇌우를 묘사한다. 글 속에서 그녀는 나무에 앉아있는 상태다.

Suddenly a change passed over the tree. All the sun's warmth left the air. I knew the sky was black, because all the heat, which meant light to me, had died out of the atmosphere. A strange odour came up from the earth. I knew it, it was the odour that always precedes a thunderstorm, and a nameless fear clutched at my heart. I felt absolutely alone, cut off from my friends and the firm earth. The immense, the unknown, enfolded me. I remained still and expectant; a chilling terror crept over me. I longed for my teacher's return; but above all things I wanted to get down from that tree.

There was a moment of sinister silence, then a multitudinous stirring of leaves. A shiver ran through the tree, and the wind sent forth a blast that would have knocked me off had I not clung to the branch with might and main. The tree swayed and strained. The small twigs snapped and fell about me in showers. A wild impulse to jump seized me, but terror held me fast. I crouched down in the fork of the tree. The branches lashed about me. I felt an intermittent jarring, that came now and then, as if something heavy had fallen and the shock had travelled up till it reached the limb I sat on.

내가 알고 있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五感)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도전 한 사람은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한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인간이 독수리의 시력(3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동작도 볼 수 있는)을 가지고 있고, 개의 청각, 쥐의 후각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아마도 꽤나 우습게 생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어느 생물이 가장

예민한 피부나 미뢰(味蕾, 혀의 맛봉오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물론 와인 감정가들은 수년간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 포도의 산지가 어디인지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인지, 어느 포도밭인지, 몇 년도에 와인이 생산되었는지 까지 알아낼 수 있다.

세상은 점점 더 큰 동질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은 점점 둔화되어 갈 위험에 처해있다. 맥도널드와 같은 기업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생긴 햄버거를 전 세계에 수십억 개씩 팔면서 다양성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서, 개개인의 미묘한 차이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과일과 채소 생산자들도 기업들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과일과 채소의 다양한 모양, 식감, 향과 맛을 무시하고 오래도록 썩지 않는 똑같은 모양의 상품(포장하기 좋게)만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식품에서만 나타는 양상은 아니라 건물, 자동차, 의류, 언어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성의 가치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작가는 그 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최대한 발달시켜서 글쓰기에 활용해야 한다. 냄새를 포함하지 않은 폭풍에 대한 묘사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꽃을 묘사할 때에는 꽃잎, 잎사귀, 줄기의 감촉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음식의 냄새를 빼고 음식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있다. 그러나 캄퐁 분타위의 소설, 『동북의 아이(A Child of The North-East)』의 한 부분을 보라.

The two Kratongs were filled with the (ant) eggs and the queen ants. Koon's mother sprinkled them with salt and Kamgong carefully poured water over them until it nearly reached the top. Then they placed them over the fire, and soon tiny bubbles began to rise. For a brief moment, the queen ants, which had been floating about, beat their wings rapidly, then were still. Roon's mother spooned a bit of pla ra into each kratong, turned to Uncle Gah and said, 'You taste it for us.'

'Nobody has to taste it, ' he replied. 'The smell went up my nose, and my mouth is full of saliva already.'

Koon thought that Uncle Gah was right. The smell was right. The smell was enough to tell anyone how good it would taste. He went to his cart for rice boxes, and as he walked back toward the fire his mother called out, 'Everyone come now. The gaeng is done.'

When they had formed their circle, Uncle Kem looked around and asked, 'Why hasn't anyone brought fish or roasted frogs?'

Everyone laughed, and Uncle Gah said, 'You go to your cart and get fish and frogs, and you eat them. I am eating only this gaeng.'

'These spoons are too short,' Jundi complained, frowning into kratong at the mass of eggs that lay in the bottom. 'I can't even

get any of the eggs, only juice.'

'You are suppose to sip the fragrant juices first,' Uncle Gah said. 'And dip your rice into jaew. Then, when all the juices are gone, and you are not so hungry, you eat the eggs.'

어쩌면, 우리 사회는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법은 단순히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여기, 디킨스가 『황폐한 집(Bleak House)』에서 냄새를 잘 표현한 부분을 발췌해놓았다.

It is somewhere about five or six o'clock in the afternoon, and a balmy fragrance of warm tea hovers in Cook's court. It hovers about Sangby's door.

리처드 르웰린의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How Green Was My Valley)』에 나오는 장면 중 한 소년이 부모님 몰래 이층 방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소리를 주요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

I was not exactly afraid now that the time had come but my heart was beating so loud I was sure they would hear downstairs. It is strange how loud little sounds become when you are in the dark and doing something wrong.

When I got up the old bed creaked so much I could have give it a brick for its trouble, but at last, inch by inch, I was out of it, and even then the bedclothes breathed so loud it was like putting back some old man.

The floor, then.

Each plank had something to say, scolding and moaning when I put down a foot and picked it up, and the crept, too, was stretching and grieving all the way to the chest of drawers by the window.

To push up that window was to suffer for years, it seemed to me. I held my breath and pulled all sorts if faces as I raised the little sash, ready at the slightest movement downstairs to leap for the bedclothes. Bit by bit it went up, and more shivering I got, and what between listening for noise downstairs and squeaks in the window, and sounds of somebody coming outside, I got a sort of squint in my ears...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에 대한 풍부한 표현을 담고 있는 책으로는 호주 작가 데릭 롤스의 『감각의 축제 (Celebration of the Senses)』가 있다. 롤스는 농부이자 시인이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들과 감각적 경험들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써내려갔다.

The flow of blood, the flow of squeals stop together. Pig is meat. The water has reached 62 degrees C. We lower the carcass in, move it about for a couple of minutes, then lift it out on to the scraping table. The hair slips off with the paper-thin top skin and the carcass is firm, smooth, white and rounded. A layer of fat about a centimetre deep underlies the thick skin that bubbled into a crisp, aromatic crust, the crackle, on every slice of roast pork.

소설의 후기에서, 그는 『*감각의 축제*』라는 글처럼 감각에 대해 깊이 있게 글을 쓴 작가는 자신이 처음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소설은 롤스와 그의 아내 조안의 애정 가득한 성관계를 솔직하게 묘사한 부분을 읽어보기 위해서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권할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엄두가 난다면, 그의 책을 읽어보고 그와 같이 솔직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에 대한 경험에 대해 글로 써 보아라.

요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 것.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모두가 작가에게는 똑같이 중요하다.

경험해 본 척 하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라!' 영어 선생님들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조언을 학생들에게 하도록 훈련을 받은 것 같다. 경험에는 많은 가치가 내재되어 있지만, 소설가가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데도 한계는 있다. 만일 당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마약밀매 사건이나 영화배우의 삶이나 전쟁에 대한 소설을 싶다면, 아마도 내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글을 쓰지 말 것' 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지가 강하다면, 문제는 어떻게 설득력 있게 글을 쓸 것인가이다.

그렇다면 분명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어드벤처 소설과 탐정소설, 그리고 스릴러 소설가들은 글을 쓰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경험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뉴욕에서 일어난 약물사건을 학생이 소설로 쓰면 실패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글로 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접근해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중 하나를 골라서, 쓰고자 하는 소설 속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가령, 당신이 은행 강도 사건을 쓰려고 한다고 해보자. 그럼 당신이 직접 은행을 터는 대신, 어렸을 적 도둑질을 했거나 학교에서 컨닝을 했던 기억을 상기시켜보는 것이다. 그 다음, 그 경험을 은행 강도 사건에 이입시켜 본다. 당신이 도둑질이나 컨닝을 계획했을 때 느낀 모든 감정, 그 일을 저지르고

났을 때의 감정, 그 일이 탄로 났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간에 그 때의 감정들은 은행 강도들이 느끼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혼에 대한 글을 쓰고 싶지만, 당신의 부모님은 사이 좋게 같이 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 부모님 중 한 분이 멀리 가셨던 때와 그 때 느꼈던 감정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악물에 대한 글이 쓰고 싶다면? 꿈에서 본 한 순간이나, 당신이 아프고 고열로 시달렸을 때의 경험을 이용하라.

당신의 경험에서 짜 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짜낸다면 훌륭한 소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당신이 쓰게 될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과거와 현재에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좀 더 이국적인 이야기를 쓰고 싶다면(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호주에서 사는 당신의 인생을 충분히 이국적이고 매혹적으로 느끼겠지만)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쓰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조사를 하는 것이다. 뉴욕의 마약 밀매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조사는 TV앞에 앉아서 잔뜩 부풀려진 공상으로 가득한 'Danger Squad' 나 'Undercover Petrol' 과 같은 범죄수사 드라마만 봐야 한다. 이런 드라마들은 이야기를 쓸 수 있을 만큼의 통찰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차라리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쓴 글을 읽어보도록 하라. 실제로 경험한 이들의 기록들을 많이 읽어보면, 그제서야 글로 썼을 때 이해하기 쉬운 장면 하나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도소 수감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브리엘 캐리의 『저스트 어스(Just us)』를 읽어보고, 정신병원에서의 삶이 궁금하다면 피터 코칸의 『트리트먼트(The Treatment)』와 『큐어 (The Cure)』를 읽어보기 바란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쓰고 싶다면 나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진정으로 살아 있어라(To Live Until We Say Goodbye)』를 추천하고 싶은데 이 책에서 그녀는 4명의 사람이 각각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지 나와 있다. 그리고 레이몬드 무디의 『Life After Life』는 소생술로 깨어나기 전에 짧은 순간동안 의학적 죽음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함께 담겨져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한 책들은 읽기 어려운데, 모두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쓴 책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읽어내기가 어렵다. 이 책들은 연속극이나 시트콤에 나오는 것처럼 걸만 번드르르하고 초현실적인 감정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날 것' 그대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책들은 살아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경험을 조금은 읽기 불편 할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으로 전한다. 만일 이러한 책들을 당신이 읽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다면, 당신의 글쓰기는 그 시점에서부터 영원히 변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멜로드라마로는 만족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세상의 흐름을 읽고 보는 방법도 당연히 변할 것이다. 멜로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너무나도 상투적이기 때문이다.

요점

- ◆ 당신의 경험에서 우려난 감정을 소설의 적당한 부분에 적용하라.
- ◆ 조사를 할 것.

현실의 법칙을 따르기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 속에서 건배 제의를 하는 토스터(toaster)가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토스터(toaster)로 빵을 구워서 안 되는 이유를 납득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왜 토스터로 빵을 구우면 안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다. 다음은 어느 7학년 학생이 쓴 글이 있다.

I woke up at five-thirty a.m. I was feeling really sick, so I went in to visit my mum. I went into her bedroom. It was so dark in there. I looked over at the bed. She wasn't there! I was horrified. I decided to go get down two Disprin^{s106}) and then go back to bed. I did this, then I don't know how, but I fell asleep.

이 글의 첫 번째 문제가 보인다. 그녀의 엄마가 없는데 그녀는 어떻게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울 수 있을까?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 이야기는 현실성의 법칙에 순응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된다.

**I woke up two hours later. By this time it was seven-thirty.
I went to school.**

똑같은 문제점이 보인다. 그녀의 엄마는 여전히 안 보이는데 그녀는 학교에 간다. 오후에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간다. 그리고 이렇게 쓴다.

Then suddenly I heard gun shots from the toaster. I thought it had had a malfunction or something. I started to walk over to it. Then suddenly from inside it I heard: 'Wee!! Yeah! Hah!' but what surprised me even more was that it was my mother's voice! I looked at the toaster, then I looked at the bread basket. I got two pieces of white bread (I was hungry anyway) and I put them into the toaster.

자,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본성 중에 있는 어떤 신비한 법에 의해

106) 아스피린의 한 종류.

서 말하는 토스터기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디어이며 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토스터에서 엄마 목소리가 나오는 동안 빵을 굽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상으로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현실적 규칙은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위험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현실성 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총을 6방이나 맞았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어떤 영웅이라도 그 정도 총을 맞으면 적어도 비틀거리기는 해야 한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8학년 학생이 쓴 이야기다. 한 여성 범법자에 대한 글이다.

I followed her outside and saw her get on a horse, the second fastest horse on our farm. I jumped on my horse, the fastest on the farm, and followed her out the gate.

하필이면 범법자가 농장에서 두 번째로 빠른 말을 타고 도주한 것은 매우 편리한 우연이다.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벌써 이 이야기가 격렬한 추격전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She at last came to a thicket and camped there. Eventually she fell asleep, so I crept up to her bag and took her gun and our family's money and rode back to the house. I rang up the police and told them what had happened and then I ran to the pool, got out all the contents of the overnight bags and put them all in the dryer. While they were drying I woke up Dad and told him also.

지금 아버지를 깨운다고? 지금에서야? 이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가족인가? 아마 현실성 있는 가정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여기, 내가 5학년 때 썼던 이야기가 있다. 당시에 나는 이 글이 자랑스러웠지만 지금 읽어보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David Jackson and his friend Peter Young were camping out in the rugged Lakes District country. On the first night in camp, after a tea of grilled chops and potatoes, they went to bed early. Several hours later, David woke up to hear stealthy footsteps outside. Quickly he woke Peter up and whispered, 'Be quiet you idiot. There's someone rummaging in the haverasack.'

Peter sat up. 'Probably some tramp,' he muttered.

'We'll give him a shock.'

The two boys crept silently from the camp. In the moonlight they could see the back of a man searching through their equipment.

'Now!' Peter yelled, and the two leapt upon the man. They heard him mutter a guttural oath and tear himself free. The two boys set off after him at a run. For about ten minutes they followed him through the thick forest, and then he gave them the slip. After a fruitless search they returned to camp, battered and bruised. Satisfied that nothing was missing, they drifted back to sleep.

After an early breakfast, David and Peter set off. They hoped to reach Longmore that evening, where they would spend the night. Naturally, they were discussing the incident of the previous night. At three o'clock they came to Longmore.

'Well, here we are,' David commented. 'Let's have a rest.'

'Look at that old place,' remarked Peter. 'Let's have tea there.'

'OK' replied David. They were approaching the house, when David pulled Peter into the grass and hissed, 'There are two men going into the house. One of them is the chap who raided our tent last night.' Ten minutes later they crept to one of the windows and heard the men talking

'You fool!' the oldest hissed. 'You mean to say that you let two schoolboys beat you. Unless you are more careful in the diamond robbery tonight, you will have to be killed! We will go now.'

'Jump on them when they come out,' whispered Peter.

As the men appeared, the two boys launched themselves upon them, One let out a groan and fell, the other went down soon after. It is sufficient to say that the police came down and gave the boys five pounds each.

이 짧은 스릴러는 곧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촬영될 예정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언어가 지극히 평범하고, 줄거리가 지루하며, 캐릭터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다. 데이빗은 왜 피터를 바보(idiot)라고 부른 것일까? 피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피터는 한 밤중에 일어나서 바보 소리를 듣는다. 피터에게는 불공평한 일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다른 주요 결함에 비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년들이 어른들에게 달려들고, 어두운 숲 속에서 어른들의 뒤를 쫓는 다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들의 텐트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어른 한 명을 때려잡는데도 실패했는데 나중에 어른 두 명을 공격하여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썼던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글쓰기에 대한 책을 출판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야기 하나에 쓸 수 있는 우연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장편소설에 있어서 적당한 우연의 수는 몇 번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물론 내가 쓴

글에는 너무 많다. 소년들은 가방을 훔치려는 도둑을 만나고 남자들은 뒤쫓아 온 소년들이 은둔처 창문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들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왜 다이아몬드 도둑이 학생 배낭이나 훔치겠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점점 우울하고 어처구니없는 엔딩으로 치닫는다.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당신은 감정에 대한 참고문과 글쓰기에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현실의 법칙들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다. 내 이야기에 나오는 소년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현실성의 법칙은 일찌감치 어겨버린 것이다.

더 가까워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오류는 더 많이 보인다. 이런 비평적이고 철저한 검토가 스스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요점

- ◆현실성의 법칙을 따르라.
- ◆우연의 일치에 너무 치중하지 말 것.

섹스와 죽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서도 섹스와 죽음은 중요한 문제이다. 섹스와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중요하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노먼 린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쓸 때 음식과 싸움이라는 두 가지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금은 무모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어른들을 위한 책을 쓸 때에는 섹스와 죽음을 넣어야하며 둘 다 사용하지 않는 작가는 그리 많지 않다.

당신은 섹스와 죽음을 글쓰기에서 서로 직면하게 하여, 섹스와 죽음이 가진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 아마 섹스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사람일수록 그것들에 대해서 더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섹스와 죽음 중 어느 하나 내지는 그 두 가지에 흠뻑 젖어들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소설들 가운데 몇 작품은 섹스와 죽음에 대해 강박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과민했던 작가들이 쓰기도 하였다.

섹스와 죽음에 대한 글을 쓰는 방법은 물론 당신 스스로 알고 있다. 그것들에 대한 글을 썼을 때 사람들로부터 강한 반응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도 없다. 독자들의 반응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좀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는 글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 소개하는 일반화된 가설들이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자극을 줄 것이다.

어떠한 관계에도 성적 요소는 존재한다.

우리 문화에서, 남성의 공격성과 섹스는 불가분한 관계로 엮여있다.

섹스에 대한 두려움은 서양 사회에 만연했다.

인간이야말로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물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삶을 영속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찾는다.

죽음의 삶의 의미를 준다.

섹스와 죽음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접전을 벌이는 도발적인 두 가지 컨셉트는 당신이 글을 더 깊이 있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매우 강렬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약을 조절하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말은 가장 짝 조이는 고삐를 가지고 있다. 찰스 디킨스는 작은 넬이 『골동품상점(*The Old Curiosity Shop*)』에서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감성적으로 잘 표현했지만 그 시절은 지금과는 다른 때였다. 문학에서도 유행은 변하고 다른 곳에서도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글의 분위기는 이제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표현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죽음에 대한 글을 쓸 때, 예를 들자면, 구질구질하고 질척한 표현을 빼기는 힘들테니 글을 쓸 때에는 가능하면 눈물이나 울음을 배제시키는 것이 좋다. '눈물의 강이 두 뺨을 타고 흘러 내렸다.'나 '눈물이 차올라서 나는 가슴이 찢어질듯이 울었다' 나 '내 눈가는 눈물로 가득 차 흘러 넘쳤다.' 이 중에서 독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아마, 울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글을 쓰는 것 보다 울음을 참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더 감동적일 것이다.

글쓰기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한 것들에 빛을 밝힐 때 효과적인 글쓰기가 된다. 보통, 사람들은 섹스나 죽음에 대한 기억을 글로 쓸 때, 흥분(섹스)이나 비통함(죽음)에 대해서만 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글이 잘못된 이유다. 섹스와 죽음 말고도 그 과정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누군가가 죽으면, 예를 들어, 살아남은 자는 분노, 두려움, 혼란, 죄책감, 자유, 안도감, 쇼크, 행복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짧은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은 왜 죽음에 대해 다룰 때 비통함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해준다.

『*Darkness, Be My Friend*』에서 엘리는 그녀의 절친 코리가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된다.

Corrie's grave was the third of the little mounds of dirt. It had her name and the date of her death on the white cross, nothing else. Tears kept running down my face, but it was just water out of my eyes; I didn't feel I was crying in the way that people normally do. Like sobbing. It's lucky Lee was holding me though, because I would have just folded into a heap on the ground if he hadn't been. And if I'd gone down, like a sheep in a drought, I don't think I'd have got up again. That's what war does to you. Either kills you in one go or destroy you bit by bit. One way or the other, it gets you...And then the horror of it hit me. Corrie was my age, my friend, my best, best friend who I'd shared my childhood with. This was Corrie sobbed, 'Ellie told me to go to my room, and I haven't even done anything wrong!' Corrie, who played school with me, when we used poddy lambs as the students and tried to make the poor stupid things stand in straight lines for their lessons. Corrie, who had conspired with me to be naughty one day in Grade 1, and we threw Eleanor's lunch in the rubbish tin and filled her lunch box with sheep droppings. We got in so much trouble that we were shocked...And now my best mate was under the earth, under six feet cold heavy soil, separated from me by six feet and by eternity. How could it be possible? All those futures we discussed, all those plans to share a flat and go to uni, to travel the world together, to get jobs as pilots or jillaros or teachers or doctors of governesses: in none of those plans did none of those plans did we ever consider for a moment that it might end like this. Death wasn't on our agenda. We never mentioned the word. We thought we were indestructible. And what would happen to me now? Our plans had always been for two, but Corrie had left me and I was on my own. I felt like a Siamese twin who'd been amputated from her other half. Sure, I had Fi, and sure I loved her dearly, but I hadn't grown up with her the way I had with Corrie.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소녀가 여덟 살 때 같은 반 남자친구가 크리켓 방망이에 머리를 맞아서 갑자기 죽었던 일을 말해준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은 후 소녀는 바로 그 자리로 뛰어갔다고 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소년을 보고 소녀가 처음 했던 생각은 '적어도 수영장에서 이제 날 이기지는 못하겠네.' 라고 했다.(둘은 반에서 가장 뛰어난 수영선수였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인간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당연하고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글을 쓸 때 항상 그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요점

- ◆섹스와 죽음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것.
- ◆대상의 복잡한 심경을 파악할 것 -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

심리학

당신의 호기심이 당신의 신세를 망쳐버렸는가? 아니면 호기심이 글쓰기의 성공의 비밀이 되었는가? 아마 당신이 호기심 많은 고양이라면 크림이 들어있는 향아리를 찾았거나 생쥐들의 도시라도 찾은 것 같은 기분일 것이다.

호기심이 부족한 작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러한 호기심의 결과는 책에 잘 나와 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은 어느 외과의사보다도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인간이라고 불리는 모순되고,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며, 품위를 지키면서도 추한 동물에 대하여 통찰력을 길러주는 분야이다.

많은 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나는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심리학을 배울 수도 있다. 서점에 가면 많은 심리학 교과서들이 있고 그 중에는 쉬운 책도 있고 수준이 높은 책도 있다.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책으로는 로빈 스카이너와 존 클리스의 『가족들 (Families)』 과 데스몬드 모리스의 『인간행동학(Manwatching)』 이 있다. 교과서로 집필되지 않은 책이지만 여전히 심리학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책을 읽어볼 수도 있다. 이런 책들은 심리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데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 심리의 정상상태를 배운다. 그 중에는 버지니아 엑스라인이 쓴 『디브즈(Dibs)』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정신장애가 심한 5살짜리 소년의 이야기이다. 아니면, 모쉬와 테사랭이 쓴 『코럽팅더영(Corrupting the young)』 이나 『회복탄력성(Resilience)』는 쉽게 읽히고 재미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길 바란다.

많은 소설들이 사람들의 심리뿐만 아니라 그 심리의 구조까지 탐구한다. 주디스 게스트의 『보통 사람들 (Ordinary people)』은 자살 시도를 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이다. 한나 그린의 『난 당신에게 장미정원을 약속하지 않았어요(I Never Promise You A Rose Garden)』에서 그녀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소녀의 삶을 설득력 있게 다루고 분석한다. 많은 훌륭한 소설들이 심리학적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 책들을 읽으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묘함과 깊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톨스토이를 읽어봐도 그렇고 로얼드 달, 제이 오스틴 그리고 주디 블룸을 보면 알 수 있가. 이것이 바로 내가 버지니아 앤드류의 책이 실패했다고 생

각하는 이유이다. 그녀의 책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심리적 진실을 찾아 볼 수 가 없다.

요점

- ◆호기심을 가질 것.
- ◆인간 행동을 배우는 학생이 될 것.
- ◆당신의 등장인물이 심리적으로 신뢰할 만한 인물일 것.

빛

화가들이 빛에 아주 많은 신경을 쓰는 반면, 작가들은 글을 쓸 때 빛을 어떻게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가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다. 불쌍한 작가들이여.

인상파 화가들은 빛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자 빛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되어 버린다. 모네를 예로 들자면, 어떻게 다른 빛이 다른 효과를 주는지 알기 위해 3년 동안이나 루앙 성당에서 캔버스에 많은 그림을 그렸다. 1895년에 모네는 성당에서 새벽부터 황혼까지의 성당의 모습을 그린 그림 20점을 전시했다. 그는 색깔과 빛에 집중해서 연꽃(Water Lilly)을 수백 번이나 그렸다. 단어를 가지고서 이와 비슷한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연습이 될 것이다. 똑같은 장면을 6번쯤 쓰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시간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빛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빛은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에너지 레벨에도 영향을 미친다. 숲에서 나무 사이로 언뜻 보이는 얼굴은 그림자로 그들이 드문드문 보이고 초록을 띤 빛이 얼굴에 반사되어 보일 것이다. 그 얼굴은 바닷가의 거칠고, 건조하고, 햇살이 비추는 곳에서 보는 얼굴과는 다를 것이다. 아니면 땅거미가 질 때 어두워지는 방 안에 베네치아 블라인드가 있다면 그 곳에는 죄수복의 줄무늬 같은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때로는 에드가 앨런 포의 『어셔가의 몰락(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에서처럼 간단한 언급이 적당할 때가 있다.

Feeble gleams of encrimsoned light made light their way through the trellised panes...

아니면 제니퍼 존스톤의 『세도우 온 아워 스킨(Shadow On Our Skin)』의

Lights from the shop windows made patterns on the wet roads.

그리고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Lord of the Flies)』

...there was a scatter of pearly light from the sky down through the trees.

때로는 장면을 설정하기 위해 장황한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다.

다음에 나오는 글은 리차드 휴의 『해적선장과 소녀(*A High Wind in Jamaica*)』의 한 장면이다.

The suffused brilliance of the stars lit up everything close quite plainly, but showed nothing in the distance. The black masts towered up, clear against the jewelry(sic), which seemed to swing slowly a little to one side, a little to the other, of their curves all diffused away, seemed flat. The halyards and topping-lifts and braces showed here, were invisible there, with an arbitrariness which took from them all meaning as mechanism.

Looking forward with the glowing binnacle light at one's back, the narrow milky deck sloped up to the foreshortened tilt of the bowsprit, which seemed to be trying to point at a single enlarged star just above the horizon.

물론 빛은 상징적으로 사용 될 수도 있다. 조셉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의 한 부분을 보면, 화자가 부패와 악마에 의해 감싸져 있지만 아직 그를 굴복시키지 못 했음을 나타낸다.

The long shadow of the forest had slipped down hill while we talked, had gone far beyond the ruined hovel, beyond the symbolic row of stakes. All this was in the gloom while we down there yet in the sunshine, and the stretch of the river abreast of the clearing glittered in a still and dazzling splendour, with a murky and overshadowed bend above and below.

여기 베리 하인즈의 『케스(*Kes*)』에 나오는 소년 Billy가 있는데 소년은 황조롱이를 찾아서 점점 더 깊고 깊은 상징적 어둠과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It was immediately darker, and he had to move with his arms forward to protect his face from the branches of the saplings. Above the saplings were the dark bunches of the hawthorns, and high above these the branches of the tallest trees formed lattice work against sky.

귀신이야기를 쓸 때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의 묘사를 아주 많이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장르의 글을 쓸 때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의 중요성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글을 쓸 때 빛 공포증에 걸리지 말 것!

요점

- ◆장면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빛에 대한 묘사를 할 것
- ◆적절한 타이밍에 빛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라

페이스 조절하기

멜번컵에서 레이스 중계자가 경주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경주마들을 막고 있는 장벽이 열리자마자 그는 최대 볼륨으로 마이크에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

AND THEY'RE RACING. OH, FANTASTIC START! OH LOOK AT MAGIC CIRCLE, LEADING ALREADY BY HALF A LENGTH FROM MEXICAN MISS, BUT HERE COMES MEXICAN MISS NOW, SHE'S GETTING TO HIM, MAGIC CIRCLE ON THE RAILS LEADS BY A LONG HEAD, MEXICAN MISS IS WEARING HIM DOWN, JUST A HEAD IN IT NOW, MEXICAN MISS ON THE OUTSIDE, MAGIC CIRCLE HANGING ON, MEXICAN MISS COMING AT HIM, SHE DRAWS LEVEL, MEXICAN MISS, MAGIC CIRCLE, MEXICAN MISS, OH YES, MEXICAN MISS, IT'S MEXICAN MISS, SHE GOES TO THE LEAD, SHE LEADS HALF S LENGTH AT THE 3000, BUT LOOK AT THIS, HERE COMES PIRATE MAN TO CHALLENGE, PIRATE MAN, ON THE OUTSIDE, HE THROWS DOWN THE CHALLENGE...

그렇다, 당신이 똑바로 들은 게 맞다. 앞으로 3000미터 남았다. 아직 말들이 200미터밖에 안 달렸고 아직 3000미터를 더 달려야 한다. 이 레이스 중계자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 그는 앞으로 3분간 이렇게 고조된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레이스의 초반과 중반에서는 그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왜 레이스의 열기가 최고조로 올라야 할 마지막 부분의 정반대인 시작 부분에서부터 그는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더 이상 쏟아 부을 정열이 없는 것 같다. 클라이맥스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작가들도 똑같은 실수를 한다.

모든 이야기, 모든 영화에는 페이스가 조절되기 때문에 소강상태도 있고 클라이맥스도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최대한의 속력으로만 하나의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치 오토바이를 최고 스피드로 아주 오랫동안 타는 느낌과 같을 것

이다. 그렇게 되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 끔찍하고 느끼하고 냄새나고 탄내가 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영화제작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한다. 인디애나존스, 터미네이터, 다이하드, 리썰웨 폰처럼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영화도 사실은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는다. 이 영화들 속에도 조용한 시간이 있고, 긴 대화가 있고 낭만적 순간이 있으며 막간의 유머가 있다.

물론 하나의 이야기에 클라이맥스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마에 서는 말이 넘어지거나 말들의 견제가 심하면 하나 이상의 클라이맥스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그려보자면 이런 모양일 것이다.

당신은 클라이맥스가 없는 구조의 이야기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클라이맥스만 있는 이야기는 아주 쓰기 어렵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스케치 해 본 클라이맥스의 구조가 가장 보편적일 것이다. (위 표 참조)

페이스 조절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요소는 글을 쓰는 템포이다. 다시 말하지만, 템포에도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토모드 하우젠의 『제플린(Zeppelin)』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자.

The holiday house was a dream house. She opened the dream door and went into the dream.

She floated up the stairs. Her feet moved almost without touching the ground.

Slow arms and slow feet.

The bedroom door swung open by itself. As if it were ready for her.

The shoes were waiting in a blue light that filled the whole room. She had blue arms and blue legs.

The shoes were pointing at her.

그리고 헬렌 가너의 『더 다크 더 라이트(*The Dark, the Light*)』도 있다.

We heard he was back. We heard he was staying in a swanky hotel. We heard she was American. We washed our hair. We wore what we thought was appropriate. We waited for him to declare himself. We waited for him to call.

No calls came. We discussed his possible whereabouts, the meaning of his silence, the possibilities of his future.

We thought we saw him getting into a taxi outside the Rialto, outside the Stock Exchange, outside the Diorama. Was it him? What was he wearing? What did he have on?

템포는 글의 스타일에 달려있다. 지난 세기동안의 글쓰기 스타일은 여기 나오는 노렌스 스톤의 『트리스트럼샌디(*Tristram Shandy*)』와 같이 느린 템포였다.

In the beginning of the last chapter I informed you exactly when I was born; but I did not inform you how.

No, that particular was reserved entirely for a chapter by itself; -besides, Sir, as you and I are in a manner perfect strangers to each other, it would not have been proper to have let you into too many circumstances relating to myself all at once. You must have a little patience. I have undertaken, you see, to write not only my life, but my opinion also; hoping and expecting that your knowledge of my character, and of what kind of mortal I am, by the one, would give you a better relish for the other. As you proceed farther with me, the slight acquaintance, which is now beginning betwixt us, will grow into familiarity; and that, unless one of us is in fault, will terminate in friendship.

당신이 정하는 템포는 당신이 정한 소재, 문체 그리고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헬렌 가너가 매닝 클락에게 엽서를 보냈던 일화가 있다. '친애하는 매닝씨, 저는 제 문체가 지겨워졌어요. 제 문체를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헬렌이 보냈고 매닝은 이에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친애하는 헬렌, 당신의 문체는 당신이 바꾸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요.'

당신의 글쓰기의 정확한 템포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당신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테이프로 녹음해 놓는 것이다. 당신의 말의 리듬과 템포를 듣고 글로 다시 써보도록 하라. 여러 가지 실험도 해 보아라. 무더운 오후에 몇 시간이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는 글을 빠른 템포로 써보도록 하라. 충격전을 아주 느린 템포로 써보아라.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의 임팩트를 느린 템포로 써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다. 당신이 훌륭한 스타일리스트라면 위와 같은 연습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웨스트사이드스토리, 사운드오브뮤직, 스타트랙, 모션픽처스를 만든 영화감독 로버트 와이즈가 주는 팁 하나는 이것이다. '만일 당신이 촬영을 하는 동안 장면이 약간 지루한 것 같다면 극장에서 상영했을 때, 두 배는 더 지루하다.' 이와 같은 점은 글쓰기와 독서에도 해당된다.

요점

- ◆내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글을 쓰지 말 것.
- ◆클라이맥스를 현명한 위치에 자리 잡게 할 것.
- ◆여러 가지 템포로 실험해보고 당신과 당신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템포로 글을 써라.

등장인물의 성격묘사와 목소리

우리 모두는 글쓰기에 각기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내 경우에,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다. 일단 주인공들의 목소리(화법)를 찾으면 그 이상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줄거리에 대한 아주 희미한 아이디어와 이야기의 배경, 등장인물의 인생에 대한 사실적 디테일만 있어도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단어, 리듬, 패턴을 알고 그들의 말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지면 나는 워드프로세서로 가서 글을 쓸 준비가 된 것이다.

유명한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에는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나는 걸음걸이에만 신경써요.' 라고 말했다. '인물의 걸음걸이만 설정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깐요.'

올리비에에게 그것이 걸음걸이라면 나에게도 말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 스스로 글쓰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역사 에세이나 문학 에세이를 또는 편지를 쓴다면, 당신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도록 써야한다.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당신이 중년이 아니라면 중년의 목소리로 글을 쓰지 않도록 하자.

I hope she fulfils all her expectation in her chosen field of study.

이것은 내가 어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 갔을 때, 전교 부회장이 미국으로 떠나는 전교회장에게 전하는 송사에서 했던 말이다. 이와 같이, 엘리자베스여왕 2세가 NSW의 Parkes를 방문했을 때에도 어느 11학년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환영사를 전했다.

Your visit will linger forever in our minds.

시드니에 있는 어느 12학년생은 학교 잡지에 이런 글을 썼다.

...We must all make the little effort that os needed to keep our uniforms neat and tidy and behave in a manner that will surely give the school a reputation of fostering responsible, well-disciplined and courteous young members of society.

이 글은 1893년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1993년에 쓰인 글이다. 이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투지 17살의 말투는 절대 아니다.

나는 사회 초년생 때 시드니 수자원 공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 나는 인사과로 발령을 받았는데-지금은 물론 인적자원부라고 불리우지만- 나는 3주동안 입사지원서들을 읽으면서 원본은 따로 모아놓고 나머지는 폐지시키는 일을 했다. 수 천개의 입사지원서가 들어왔고 지겨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입사지원서들을 읽고 폐지시키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나는 그들의 둔감함과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같은 노래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Dear Mr Macdonald,

I am writing to apply for the position advertised in the *Sydney Morning Herald* on April 15. My name is Melanie Scott and I am a Year 12 student at St.Anne's High School. I am studying English, Economics, Physics, Biology and Indonesian. Me interests are hockey, water-skiing, reading and music. The reason I think this job would suit me is because I have always liked...

이런. 말할 필요도 없이 멜라니도 똑같이 입사지원서를 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녀가 지원한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무덤덤한 답장을 받았다.

만일 80명이 한 포지션에 지원한다고 치면, 그리고 당신의 입사지원서가 79개의 다른 입사지원서와 똑같다면 고용주가 왜 당신을 뽑겠는가? 당신이 써야 하는 입사지원서는 입사지원서 파일 맨 밑에 있다가 담당자에 눈에 확 띄는 그런 입사지원서여야 한다.

어떻게 그런 입사지원서를 쓸 수 있냐고? 수자원 공사에서 3주를 보내고 난 후 내

뇌리에 남는 입사지원서가 몇 장 있었다. 내가 그 지원서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따뜻한 글이고 본인 스스로의 글이었으며, 신뢰감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사지원서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머를 사용하고 자신 있는 문체로 독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나는 매 줄을 읽을 때마다 지원서를 쓴 사람의 성격을 느낄 수 있었고 나는 그들의 성격이 좋았다. 나는 그들은 직접 만나서 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것이 개인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존 커크브라이드는 입사지원서 쓰기에 대한 몇 권의 별난 책을 썼다. 첫 번째 책은 『*In Reply to Your Advertisement*』와 그 후속편인 『*Thank You for Your Application*』이다. 흥미로운 책들이니까 기회가 되면 읽어보기 바란다.

당신이 스스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당신은 거짓이나 모방하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지난 수 세기동안 위선적인 언어들을 보아왔다. 그러니 거기다 당신까지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나는 앞서 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던 트레이시 위컴처럼 진정성 있는 인간의 목소리의 예를 모으는 습관이 있다. 여기 영국의 한 기숙학교에서 말 얘기에 빠져 정신이 없는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인을 기숙사 코너에 붙여놓은 것이 있다.

**No HORSES OR PONIES BEYOND THIS POINT;
or they'll be sausages.
NO soppy horse or pony talk.
NO pathetic photos of 'Honey', 'Midnight', or 'Stardust'
etc.
NO music apart from Van Halen, Andrew Lloyd Webber
and 'Me and My Girl' and sixties. YEAH!
NO breaking wind.
NO adults.
HORSE HATERS WELCOME.**

나는 시드니에 있는 어느 교실에서 이런 노트를 발견하기도 했다.

Jodie just walked past and bitched me. What's up her nose?

여기 *Age* 신문에 나온 한 열한 살 어린이가 부모의 별거를 묘사한 글이 있다.

**When Mum first left I wanted to chop everything up and chuck everything over the floor. I was mad and I didn't eat anything for a day or so. I remember trying to starve myself. I said to Dad, 'I don't want to see Mum again.'
And then when I saw her I ran up to her and said 'Mummy, I want to live with**

you.' She said, 'You can't darling. Dad wants you, he loves you too much.' And so I said 'I guess so,' and walked back.

위의 세 가지 예들은 다른 여지없이 진정성이 들어있다. 위의 세 가지 예에서는 적어도 목소리의 한 가지 나이의 영향이라는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십대들은 어린이와 다른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고 중년은 장년과 또 다른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다. 교장 선생님이 조회시간에 'Love ya dudes! How's it all hanging?' 이라고 말하면서 조회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목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성별이다. 남자들은 항상 여성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Mate' 란 말은 호주에서 남자들이 지난 200년 동안 써왔던 말이지만 여성들은 1970년대부터 이 말을 쓰기 시작했다. 'sweet' 이라던가 'cute' 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말이었지만 문맥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나는 'This jam's too sweet' 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You're a really sweet bloke' 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격과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앤서니 브라운의 『윌리더웬프(Willie the wimp)』 라는 책을 기억 할 것이다. 윌리는 어떤 일에든지 사과를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가로등기둥에 부딪혔을때도 그는 가로등기둥에게 사과를 한다. 그는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이 책에 잘 나타나 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거만하거나 ('요즘 들어 자네의 행동이 내 비위에 거슬려...') 공격적이거나('너 혼나는 수가 있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기 쉽다(거기 놓고 가면 돼, 고마워).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가 하는 말을 가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종종 장황한 단어나 문장들을 늘어놓게 된다.

당신이 소설을 쓴다면, 모든 등장인물이 눈에 띄는 확실한 목소리를 갖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독자들도 등장인물들이 실존인물이라고 믿게 된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고 한 사람이 학생이라면 모두가 교장 선생님이 고 모두가 학생인 상황보다 쉬운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스피치 매너리즘을 사용해서 우리는 작은 트릭을 쓸 수 있다. 찰스 디킨스의 『픽윅페이퍼(pickwick paper)』에 나오는 사무엘 웰러는 w를 항상 v로 발음하고 v를 항상 w로 발음한다. 그는 아주 성공적인 문학적 창조물이었고 그가 나오는 책은 시리즈로 나와서 처음에는 50부가 팔리더니 나중에는 매단 4만부나 되는 판매고를 올렸다.

...and he'd go home and laugh till the pig tail wibrated like the penderlum of a Dutch clock. At last, one day the old gen'lm'n was a-rollin' along, and he sees a pickpocket as he know'd by sight, a-comin'up, arm in arm with a little boy with a wery large head...

때로는 등장인물에게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하는 단어나 구절이 있다. 나는 데이비트 코퍼필드에 나오는 역겨운 인물 Uriah Heep에 대해 앞서 언급한 적이 있다. 그의 캐릭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umble'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서 읽을 때마다 독자들에게 더 기억에 남는다. 책이 출판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유리아를 기억하는 이유는 아마 그 단어 하나 때문일 것이다. 유리아의 어머니도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다.

'My Uriah' said Mrs Heep, 'has looked forward to this, Sir, s long while. He had his fears that our umbleness stood in the way, and I joined in them myself. Umble we are, umble we have been, and umble we shall ever be,' said Mrs Heep.

캐릭터의 목소리는 그가 말하는 리듬에 의해 설정되기도 하는데 로라 잉겔라 와일더의 『초원의 집 (*Little House on the Prairie*)』에도 나온다.

'It rests heavy on mind,' said Santa Claus. 'They are both of them sweet, pretty, good little things, and I know they are expecting me. I surely do hate to disappoint two good little girls like them. Yet with the water up the way it is, I can't ever make it across the creek. I can figure no way whatsoever to get to their cabin this year. Edwards, would you do me the favor to fetch them this gifts this one time?

반대로, 여기 흑인의 관점에서 본 똑같은 남자가 있다, 테드 존스가 쓴 『Santa Claws』라는 시다.

**IF THAT WHITE MOTHER HUBBARD COMES DOWN
MY BLACK CHIMNEY DRAGGING HIS PLAYFUL BAG
IF THAT RED SUITED FAGGOT STARTS HOHO
HOING ON MY ROOFTOP
IF THAT OLD CRACKER CREEPS INTO MY
HOUSE
IF THAT ANTIQUE REINDEER RAPER RACES ACROSS
MY LAWN
IF THAT OLD TIME NIGGER KNOCKERS FILLS MY
WIFE'S STOCKING
IF THAT HAINT WHO THINKS HE'S A SAINT COMES
SLED FLYING ACROSS MY HOME
IF THAT OLD CON MAN COMES ON WITH HIS**

TOYFUL JIVE

IF THAT OVERSTUFFED GUT BUSTING GANGSTER

SHOWS UP TONIGHT

HE AND ME SHOW GONNA HAVE A BATTLING XMAS

AND IT SHOW AINT GONNA BE WHITE

오직 흑인만이 이런 시를 쓸 수 있는데 시의 리듬이 그들의 독창적인 리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목소리는 적절한 어휘선택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대목은 선생님의 말투이다.

'We have been talking' said Penny, 'about ourselves and our personal histories...come on Mick. I'm grateful that you're on time but I'd appreciate it if I had your complete attention.'

이것은 리비 글리슨의 『기피자 (Dodger)』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내가 굳이 페니가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 글을 읽고 페니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개인의 목소리를 테스트 하는 방법이다. 만일 당신이 캐릭터의 목소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다면 독자들은 당신의 등장인물이 하는 말만 읽고서도 어떤 사람일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페니 선생님의 짧은 대화 내용을 보면 페니가 현대적인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현대적 시점에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1950년대라면, 선생님은 '믹! 집중하란 말이야!' 이라거나 심지어 '제임슨, 앞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수업의 내용도 배경이 현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한 사람으로서 페니는 다부지지만 공격적이지는 않고 대립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연약한 선생님들은 '오, 믹 이리온. 너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말을 안 듣잖니.'라고 말하거나 '믹, 만일 또 내 말을 안 들으면 다시 한 번 오피스로 보내주겠어.'라고 했을 것이다. 페니는 좋은 선생님이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에 나오는 남편 스탠리와 부인 스텔라의 첫 번째 대화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물론 그들의 관계 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STANLEY(bellowing) : Hey, there! Stella, Baby!...

STELLA(mildly) : Don't holler at me like that. Hi, Mitch.

STANLEY: Catch!

STELLA: What?

STANLEY: Meat!

(He heaves the package at her. She cried out in protest but manages to catch

it: then she laughs breathlessly. Her husband and his companion have already started back around the corner).

STELLA(calling after him): Stanley! Where are you going?

STANLEY: Bowling!

STELLA: Can I come watch?

STANLEY: Come on (He goes out)

스텐리는 9단어를 말하고 스텔라는 18단어를 말한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그것만으로 둘 사이와 둘의 성격을 잘 알려준다.

만일 당신이 글을 잘 썼다면 이야기의 끝에 가서는 독자들이 등장인물보다 등장인물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그래서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웨이크필드의 목사(Vicar of Wakefield)』에서 우리는 Vicar가 하는 말들을 보며 그가 무척이나 순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Vicar 자신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

I set him down in my own mind for nothing less than a parliament-man at least; and was almost confirmed in my conjectures when, upon asking what there was in the house for supper, he insisted that the player and I should sup with him at his house, with which request, after some entreaties, we were prevailed on to comply.

The house where we were to be entertained lying at a small distance from the village, our inviter observed that, as the coach was not ready, he would conduct us on foot, and we soon arrived at one of the most magnificent mansions I had seen in that part of the country. The apartment into which we were shown was perfectly elegant and modern; he went to give orders for supper, while the player, with a wink, observed that we were perfectly in luck.

슬프게도, 나중에 나오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손님은 집주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집주인 행세를 하는 집사이다.

George 와 Weedon Grossmith의 『모르소의 일기(Diary of a Nobody)』에서 그는 자신이 유머감각이 없는 지루한 사람임을 나타낸다.

At the office, the new and very young clerk Pitt, who was very impudent to me a week or so ago, was late again. I told him it would be my duty to inform Mr Perkupp, the principal. To my surprise, Pitt apologised most humbly and in a most gentlemanly role. I was unfeignedly pleased to notice this improvement in his manner towards me, and told him I would look over(sic) his unpunctuality. Passing down the room an hour later, I received a hard smack in the face from rolled-up ball of hard foolscap. I turned round sharply, but all the clerks were

apparently riveted to their work. I am not a rich man, but I would give half-a-sovereign to know whether that was thrown by accident or design.

여기서 유머는 그가 자신이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온다. 책이 끝날 때 까지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독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실 때문에 배꼽을 잡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작가가 캐릭터에 입에 알맞은 말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여기 주디 블룸의 『타이거 아이 (Tiger eye)』의 몇 줄이 나와 있다. 매 줄을 읽을 때마다 아마 당신은 화자에 대한 정보와 나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I'm not really feeling up to a party.'

'Nonesense, 'Walter says. 'It will do you good.'

'Basically...your duties are ti assist the nurses and the aides. You'll be delivering mail and flowers...'

'But you're my only friend,' she cries, 'and I'm never going to see you again.'

'Safety first, Davey,'Bitsy says. 'Just don't forget it again. We're trying to take good care of you but you've got to help us.'

'Crying is for babies,' he mumbles.

요점

- ◆논픽션을 쓸 때에는 당신 고유의 목소리로 써라
- ◆소설을 쓸 때에는 주요 등장인물에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목소리를 줄 것.
- ◆등장인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알게 해 주는 말이어야 한다. 캐릭터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보다 독자가 그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갈등 속 캐릭터

게르트루드 스타인이라는 미국작가는 그녀의 삶의 대부분을 파리에서 보내면서 프랑스 화가 마티스에게 더 이상 그의 그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신 안에서 어떠한 투쟁도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당신 마음속에는 스스로의 갈등이 전혀 없어요.' 이 코멘트는 놀라운 통찰에서 나온 말이다. 예

술에서도 그렇고 글쓰기에서도 그렇다. 만일 당신이 훌륭한 소설을 쓰고 싶다면, 당신은 당신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힘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글로 쓰기에 가장 재미있는 캐릭터는 갈등 중에 있는 캐릭터라는 것이다. 갈등은 외부적인 것 일 수도 있다. 스포츠 경기의 경쟁, 친구나 가족과의 충돌, 아니면 지배자 구도, 전쟁터에서의 갈등, 법정 싸움 아니면 범인을 잡기 위한 갈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과 싸우는 한 사람이나, 군중들과 대적하고 있는 한 사람은 소설 속에서 항상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는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다.

지위는 갈등요소에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한다.

갈등은 물론 내부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양심과 싸우는 유혹, 비겁함과 싸우는 용기,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성적 욕구, 탐욕과 정면으로 맞선 죄책감. 글쓰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 당신은 소설 한 권을 통째로 내면적 갈등에 대해 쓸 수도 있지만 외부적 갈등만 쓴 소설은 지루해지기 쉽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만일 당신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힘을 당신이 등한시 한다면 당신의 캐릭터는 매력이 없어진다.

당신의 캐릭터들은 반드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 해 줄 것이다. 그 갈등들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고 그 본질이 바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모든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면 노벨문학상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치의학을 공부 해보는 것은 어떤가?

요점

- ◆캐릭터들은 내부적인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외부적인 갈등에도 엮일수 있다.
-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인물들도 변화해야 한다.

뼈에 살 붙이기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상대방의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알고 싶은가? 처음 5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들을 덜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 그 사람을 가두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 친한 친구는 있는지?

하지만 이 과정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은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부터 시작된다. 상대가 아직 몇 백 미터 또는 몇 미터에 떨어져 있을 때

무엇부터 보이기 시작하는가? 성별, 인종, 옷, 크기, 모습, 대강의 나이?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 과정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그 사람을 정형화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귀 한쪽마다 다섯 개의 귀걸이를 하고 있다? 그들은 거칠다. 나이가 많다? 그들은 보수적이다. 물론 고정관념에도 진실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정관념에만 의지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고 좁은 시각이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매우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내가 사회 초년생 때, 시드니 병원 응급실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 어느 바쁜 저녁, 충격적인 차림에 여자가 응급실로 걸어 들어올 때 나는 복도에 의사와 간호사들과 서 있었다. 그녀는 빨간 가죽 핫팬츠를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 형클어진 핑크색 머리를 하고 있었다. '세상에' 라고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며 '응급실로 누가 들어오는 지 봐' 라고 말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그녀가 우리 쪽으로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사는 간호사들 쪽으로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다. '제 약혼녀입니다.'

멋진 순간이었다.

당신이 쓰고자 하는 소설의 캐릭터를 만들 때에는 실제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설정을 해야 한다. 성별, 나이, 모습, 옷, 인종, 그리고 직업이 그러하다. 하지만 정형화된 캐릭터만을 고집하지는 않길 바란다. 우리가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에서 조금은 벗어난 사람들이다. 야생화 말리기를 좋아하는 목축업자, 말을 더듬는 주교, 시를 쓰는 드레스 디자이너, 심기증에 걸린 병원 수간호사('심기증에 무슨 문제 있어요!'라고 그녀가 환자에게 말했다), 게이 프로 골프선수...모든 소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런 차이가 함께 어우러질 때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이다. 이것이 캐릭터는 물론이고 줄거리에 대한 진실이다.

캐릭터를 만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캐릭터에 성격을 심어주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연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짜 연습을 하고 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캐릭터에 어울리는 욕실을 디자인 해보는 것이다. 충분한 디테일을 넣는다면 당신은 캐릭터의 성격이 어떤지 잘 알게 될 것이다. 아니면 캐릭터의 가계도를 만들어서 거꾸로 몇 세대 정도 올라가면서 조금씩의 디테일을 적어놓는 것이다. 아니면 인터뷰 역할극을 하면서 당신이 캐릭터가 되고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TV쇼에서처럼 인터뷰를 해주는 것이다. 아니면 당신의 캐릭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아니면 인생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일 3가지를 토대로 입사지원서를 써보게 하는 것이다. 아니면 당신의 캐릭터의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 당신의 캐릭터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몇 가지 적어보는 것이다. 아니면 당신의 캐릭터의 자화상을 그려보아라.

당신은 캐릭터가 언제쯤 실제인물처럼 되는지 알 수 있다.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간 다음에 캐릭터의 이름을 바꿔보아라. 만약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캐릭터 만들기 성공 가도의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이다!

요점

- ◆당신의 캐릭터를 알고 그 캐릭터를 보여주어라.
- ◆당신의 캐릭터가 너무 고정관념에 묶여있게 하지 말아라.

배경(그리고 전경)

아티스트들은 배경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사진작가들도 그렇다. 당신이 글을 쓸 때도 그렇게 하는가?

이야기의 배경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년 전에 나는 어느 학생이 그림 그리기 숙제를 하는 것을 보았다. 자세에 상관 없이 그녀는 두 손을 그려야 했고 그녀는 두 손이 자기 목을 죄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배경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방을 배경으로 삼기로 했으므로 그녀는 벽을 그리고, 나무가 그려진 그림액자를 그렸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벽에 걸린 그림이 소녀가 하고 있는 손 자세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에 훌륭하게 그림을 고쳐놓았다. 그녀는 나무를 감싸고 있는 덩굴 식물을 스케치하고 나무의 몸통을 그 덩굴 식물이 죄고 있는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다. 이제 그녀의 그림은 전에는 없던 깊이도 있고 통일성도 있게 되었다. 배경이 전경을 반영해서 살아있는 생물 하나가 천천히 다른 하나를 죽이는 모습이 분명하고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고의 글쓰기에서 우리는 위와 같은 깊이와 통일성을 발견한다. 작가들은 배경과 마찬가지로 전경에도 될 수 있는 한 많이 신경 써야한다. 『파리대왕』에서 보면 배경과 전경에 신경을 쓴 장면이 나오는데 9장의 도입부에서 윌리엄 골딩이 배경을 곧 닥칠 파멸을 알리는 장면이다.

Over the island the build-up of clouds continued. A steady current of heated air rose all day from the mountain and was thrust to ten thousand feet; revolving masses of gas piled up the static until the air was ready to explode. By early evening the sun had gone and brassy glare had taken the place of clear daylight. Even the air that pushed in from the sea was hot and held no refreshment. Colours drained from water and treed and pink surface of rock, and the white and brown clouds brooded. Nothing prospered but the flies...

『할 말이 많아요(*So much to tell you*)』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마리나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 나는 독자들에게 결국엔 마리나의 인생에도 힐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I use grey school blankets but most of the beds are covered by doonas that girls have brought from home, with vivid doona covers. My favourite is Ann Maltin's on the bed opposite me. It looks like a jigsaw of stars: white on a dark background. But it is a jigsaw: none of the stars is complete.

I am always first in bed and I often lie there looking at the fragmented stars, trying to put them together. I suppose Ann must have watching me doing this. Last night she looked across at me and said: 'They do fit together. but it took mr years to figure it out.'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심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작가가 심볼을 일부러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저 영어 선생님의 상상력에서 나온 허구인지 알고 싶어한다. 나는 일부러 심볼을 사용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심볼을 사용하기도 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쓴 책을 다시 읽어보며 무의식적으로 내 잠재의식에 의해 글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곤 한다. 우리는 잠재의식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심볼을 찾아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앞서 제임스 베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열 세 살때 죽은 형에 대한 슬픈 집착을 가지고 있는 작가다. 베리의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의 연극 '메리로즈 (Mary Rose)' 에서도 작품명과 동일한 이름의 주인공이 25년동안 신비한 섬에 갇혀 지내는데 그녀의 시간은 멈춰있다. 그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모두 나이가 들었는데 그녀는 하루도 늙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그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지만 그녀는 철이 없어서 그녀야 말로 어린아이 한명 그 자체다. 베리는 메리로즈를 영원히 늙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았다. 예를 들어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Simon, I am very anxious to be honest with you. I have sometimes thought that our girl is curiously young for her age - as if -you know how just a touch of frost may stop the growth of a plant and yet leave it blooming. It has sometimes seemed to me as if a cold finger had once touched my Mary Rose.

여기, 연극 무대에서의 지시가 나와 있다.

Mary Rose is sitting demure but gaym holding her tongue with ther fingers, like a child.

베리의 『피터팬(Peter Pan)』에서 보면 피터는 이렇게 말한다.

'Wendy, I ran away the day I was born...It was because I heard father and mother,' he explained in a low voice, 'talking about what I was to be when I became a man.' He was extraordinarily agitated now. 'I don't want ever to be a man, ' he said with passion. 'I want always to be a little boy and to have fun...'

그리고 나중에

'Long ago,' he said, 'I thought like you that my mother would always keep the window open for me; so I stayed away for moon and moons and moons, and then flew back; but the window was barred, for mother had forgotten all about me, and there was another little boy sleeping in my bed.'

내가 보기에 베리는 등장인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심볼리즘이라는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피터팬을 쓰고 18년이 지나서야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피터팬을 쓰고 나서 아주 오랜 뒤에야 알게 되었다. 피터팬의 진실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앤드류 버킨의 『J.M Barrie and the Lost Boys』에서 발췌)

몇 년 전에 나는 이탈리아계 호주인 남자친구를 사귀는 여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다. 어느 날, 소녀는 남자친구를 내게 보여주며 그녀가 꿰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꿈 때문에 헛갈려서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다. 우리는 그 꿈을 같이 읽었고 같이 웃었고 거기 나와 있는 그녀의 성적 욕구를 그녀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다시 한 번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잠재의식이 심볼을 통해 소통을 하면서 의식적으로는 이해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완벽한 예였다.

I'm not too sure where I was or how I got there but I had a big beautiful brown horse with a shimmering coat and the soften eyes. He talked to me and instead of me riding on its back I wrapped my legs around its neck or front legs or somewhere and held its neck so we could talk face to face. I don't know whether it was male or female but I will have it male because I don't like calling horses 'it'. We went galloping everywhere and I felt completely safe abd at ease while I was leaning against his front and I could feel the muscle of his front legs moving. I think we even did some jumps which is strange because I can't ride well at all. We had a deadline to meet but I don't know who it was

with - someone important to do with school or education. We were pushed for time and then got caught in some barbed wire but we got out. I can't remember much else but it was the most beautiful horse I've ever seen. God it was stunning.

내 생각에는 deadline으로 표현된 부분은 '학교와 관련된 일'로 언급된 것 같고, 철조망은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헤어지기를 바라는 선생님들의 압력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거의 모든 보디랭귀지를 컨트롤한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의식이 취했을 때나, 약물을 복용했을 때, 최면에 빠졌을 때나 우리가 보았듯이 잠결에 나온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우리의 잠재의식은 나타나기 때문에 '은연중에 속마음을 드러내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7년에 멜버른의 축구선수 웨인 슈와쓰는 파울 플레이로 경기 출장 금지령을 받는다. 그 다음 날, 그는 그의 결백을 주장하며 Triple M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한다. 그는 방송에서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했고 충격을 받은 사회자가 다시 물었다. '뭐라고 하셨죠?' '오우, 제 말은 잘못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고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깨달으며 대답했다.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그가 출장정지까지 받게 된 일에 대해 분명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7년에 미국의 보수파 TV의 호스트가 여자 역도선수에 대한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는 내 남자의 부드러움과 솜털이 좋다'라고 말한 후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통찰력 있는 시청자들은 그의 사생활에 호기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야기를 쓸 때, 당신의 잠재의식이 언외의 숨은 이유를 적어줄 때에는 당신이 극에 극도로 몰입했을 때나 당신이 피곤할 때, 압력을 받고 있을 때나 '꿈을 꾸는 듯한' 상태에 있을 때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쓴 글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 당신도 모르게 사용한 심볼을 보고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도 할 것이다!

여기 그런 상황에서 글을 쓴 14살소녀의 글이 있다. 이 글에서 언외의 숨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가?

In another corner of the ground my grandmother was picking some blue and purple flowers. I watched her intently as she threaded them together and completing (sic) places them on my head. I thanked her. Breathless because of her kindness and thoughtfulness I turned in another direction where a large tree was standing outstretched. I moved towards it and started to climb. The bark was rough against my legs and I cried out in pain but feeling the need to climb it I continued. I knew the tree was trying to protect something but O

was not sure what. One more branch led me to the top where I saw hidden four tiny blue and while speckled eggs. I cried out to my grandmother but she warned me not to touch them. Although I was disappointed for I so much wanted to caress the eggs I returned to the ground.

작가들은 보통 심볼을 일부러 고른다. 내가 그렇게 할 때는 나는 독자들이 의식적으로 그 심볼을 알아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심볼이 미묘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더 풍부하게 하고 깊이를 더해줘서 독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 리사의 『절 믿어주세요(Take My Words for It)』이라는 책에서 그녀가 어린 시절의 장남감에 대한 글이 있다.

Last time Chloe rang I asked her to look for my old ballerina box when she went to Mt Sandon. It's nothing much-just a tacky old music box that has a dancing ballerina when you open the lid. But when I was a kid I thought it was a greatest thing I'd ever been given. I'd begged for one for a year, and finally got it for Christmas- I can't remember whether it was from Santa or who. I loved it so much. The trouble is, I was here at school when everything got packed and moved, and so much of my stuff got lost. Maybe it was thrown out, I don't know. Anyway, when I asked Chloe tonight, she said she hadn't had time to look for it. God she's selfish bitch. It's pathetic of me to want it, I know, but I just do.

The ballerina's stupid when you think about it- the way she just goes round and round.

책에 마지막 부분에 리사는 '돌고도는 세상에 갇혀버린'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그녀가 인생에서 언젠가 느꼈을 느낌일 것 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레리나가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마 문학과 영화에서 사용된 모든 심볼들은 다가오는 불행을 예고하는듯 하다. 여기 이안 세칼리아의 『은칼 (The Silver Sword)』 에 나오는 예를 살펴보자.

They were so excited that they did not notice how heavy the air was and how dark the clouds...Suddenly there was a great clap of thunder. It rolled and echoed far away into the distant Swiss mountains.

엄밀히 말하자면 이 부분은 줄거리의 한 부분이지 날씨를 심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밑에 나온 레이 브레드베리의 『Fahrenheit451』을 보면 명확하게 심볼로 독자들에게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You could feel the war getting ready in the sky that night. The way the clouds moved aside and came back, and the way the stars looked, a million of them swimming between the clouds, like the enemy discs, and the feeling that the sky might fall upon the city and turn it to chalk dust, and the moon go up in red fire; that was how the night felt.

브레드베리의 또 다른 책 『*Something Wicked This Way Come*』에서 보면

At dawn a juggernaut if thunder wheeled over the stony heaven in a spark-throwing tumult.

그리고 그래엄 스위프트의 『*The Sweet-Shop Owner*』를 보면

The needle in the barometer pointed to 'Change'.

색깔은 책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검은색은 죽음, 흰색은 순수함이나 순결함으로, 빨간색은 위험을 나타낸다. 영화 '빠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에서 첫 번째 장면은 커다란 간호사가 검은 옷을 입고 빨간 불빛 아래 서 있는 장면이다. 통찰력 있는 관객들은 알았겠지만 그 간호사는 위험과 죽음을 상징했다. 피터 위어의 영화 '행잉록에서의 소풍 (Picnic at hanging Rock)'에서 보면 실종되는 여자 아이들이 순결한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돌아온 소녀 혼자만 매춘을 나타내는 진홍색 옷을 입고 돌아온다. 위어는 돌아온 소녀가 성적 경험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많은 배경들과 백조들이 나오는 장면으로 강조한다. 백조들은 그들의 목의 생김새 때문에 보편적으로 남근을 상징한다.

『파리대왕』에서 고등은 법과 질서를 나타낸다. 고등은 크고 하얀색인데 섬에서 점점 법과 질서가 무너져 내리자 그 고등도 점점 투명해지고 연약해지기 시작한다. 고등이 부서졌을 때 우리는 아이들이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은 소년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 정도의 글쓰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위와 같은 자세한 연습방법들은 많은 도움이 된다.

방에 혼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글을 써 보아라. 방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죄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넣어보아라. 주의 창문에 있는 창살은 심볼이 아니다, 미묘한 방법도 아니다. 창살은 수감생활의 한 부분이다. 당신은 수감생활에 한 부분은 아니지만 수감생활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어야 한다. 거미줄에 붙어 있는 파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아이언 마스크(The man in the iron mask)』에 나왔던 어항에 있는 붕어도 그렇겠다.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차에 앉아있는 모습을 써 보아라. 배경에 있는 물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이끌려 가고 있음을 나타내보아라.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써보아라. 두 사람이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이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심볼을 포함해서 써 보아라.

요점

- ◆글을 쓸 때 배경에 신경써라
- ◆심볼을 사용하라-잠재의식의 언어를 써서 이야기의 효과를 증폭시켜라
- ◆언외의 의미를 쓰고자 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을 막지 말 것.

기억할 것들...

여러 사람들과 그룹으로 바닥에 앉아보아라 (가족 또는 친구들이 특히 좋다). 모두 둥근 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진짜 기억 하나씩을 말하도록 한다.(한 시간 전 기억도 좋고 10년 전 기억도 좋다). 하지만 한 문장만 이야기 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문장의 시작은 'I remember'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다. 원하는 만큼 원을 돌아가면서 문장을 말한다. 이것 대신 기억들을 글로 쓰는 것도 좋은데 한 문장만 써야 하고 그 문장도 'I remember'로 시작해야 한다.

I remember a yellow squeaking rubber cat we used to have on top of the fridge.

I remember the first time I tasted pizza.

I remember taking my baby sister to the top of hills in her pram, letting the pram go, and chasing it down the hills.

I remember breaking the window of a factory next door with a cricket ball, and being scared I'd get in trouble, but my parents just laughed and said 'It must have been aa big hit.'

I remember breaking my ankle when I fell downhill with splitting logs with a crowbar.

I remember trying to stay awake all Christmas Eve to see Santa come sown the

chimney.

I remember killing a spider one evening then dreaming about spider all night.

I remember how racked with fear I was the first time I stood in front of a class as a teacher.

I remember singing 'Does your chewing gum lose its flavour on the bed-post overnight' to the rest of the class when I was in grade five.

I remember hearing about Berlin Wall coming down.

I remember eating Choo Choo bars and getting black marks all over my clothes and face.

I remember finding a snake in our cubby when we were in grade six.

I remember going with this girl whose father was a cop, and one night we were in the back of a car going across a bridge, and we realised he was in a police car in the next lane.

I remember when I was about eight, and at the beach, I went into girls' changing room by mistake.

I remember losing a jumper my grandmother had knitted for me.

I remember my brother educating me about rock'n'roll and how sophisticated I thought he was when he started buying records.

I remember my grandmother's slow death from cancer.

I remember the thrill of coming sixth in race, out of two hundred runners.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뱅크를 만드는 방법이다. 당신이 기억만 해낼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수 천 가지의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다.

결론

모든 작가들은 글쓰기에 각기 다르게 접근한다. 글쓰기의 비법이라면서 누군가 당신에게 리스트를 넘겨줘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글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모든 그의 책을 말 그대로 일어서서 썼다. 그는 그가 일어서 있을 때 가장 글이 잘 써진다고 믿었다. 그게 그와 맞았다면 그것이 그의 방법이다. 원한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라. 만일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을 해 보아라. 알렉산더 뒤마는 집사라고 부르는 하인이 있어서 옷을 벗고 조그만 방에 펜과 종이만 쥐어준 채로 자신을 가두게 했다. 그는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글을 쓰는 것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아마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했었나보다.

많은 사람들은 독자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도 글을 쓸 때 독자를 의식하고 쓰지만 많은 작가들은 그렇지 않다. 우슬라 르권은 독자들에게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버트 코미어는 자신이 『초콜릿전쟁 (The Chocolate War)』를 썼을 때 편집자에게 보냈더니 편집자가 전화가 와서 '청소년 소설을 쓰신 거죠?' 라고 하자 '오우' '제가 그랬나요?' 라고 말했던 일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앨런 가너는 내가 존경하는 작가이다. 그의 책 중 한 권의 안내문을 보면 그가 책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책의 마지막 문단을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지 잘 나와 있다. 그는 그 마지막 문단을 항상 완벽하게 쓴다. 하지만 그 점은 나와는 바대다. 나는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문단이 확실히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글을 쓰지 못한다. 책에 맞는 톤도 찾고 나와 그 다음부터 글을 쓸 수 있다.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내가 말했듯이 나는 주인공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야 한다. 그리고 나는 책을 쓰면서 책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한다.

글쓰기의 규칙이라는 건 없다. 관습은 있지만 글쓰기의 규칙은 없다. 예를 들어 모든 문장은 마침표로 끝나야 한다는 관습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습들은 이해하고 이러한 관습들의 미묘함을 이해하고 나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당신은 빠른 생각과 글의 호흡이 끊기는 것이 싫어서 아마 마침표가 없이 문장을 줄줄 쓸 수도 있고 구두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If I move round here a bit she might turn and notice me gotta look cool what's she looking at, the surf? might just make a comment here something about the waves what can I say that'll be so dazzling she'll look at me differently prove I'm not boring, not a nerd oh God wish I wasn't sweating so much OK here goes: 'Um, do you think it's going to rain?'

나는 글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간단한 원칙 몇 개를 여기 써놓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들이 룰이 되어서는 안된다.

솔직할 것.
위험을 감수할 것.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것.
글을 쓰고 쓰고 또 쓸 것.
내세를 탐구할 것.
자세히 쓸 것.
단어 하나하나를 태워버리는 에너지를 느낄 것.
축소해서 말할 것.
훈련을 할 것.

글을 쓰는 일은 계속해서 멋지고 훌륭한, 벽차고 분통터지게 하는 소일거리가 될 것이다. 멜버른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은 내게 자신의 학생이 지은 시를 하나 읽어주었다. 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시를 한껏 손에 들고 흔들며 '드디어!' '날 이해하는 시를 찾았어요!' 라고 했다고 한다.

당신도 그런 시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